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인권 · 제도 · 폭력과 한국어문학 ①

- 안과 밖의 타자들을 사유하다

일시: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00 - 17:00

장소: 실시간 ZOOM

주최: 이화어문학회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인권·제도·폭력과 한국어문학 ① - 안과 밖의 타자들을 사유하다”

- ▶ 일시 :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00 - 17:00
- ▶ 장소 : 실시간 ZOOM
- ▶ 진행 순서

[10:00 - 10:10] 개회 및 축사	* 회장: 정끝별(이화여대)
-1부-	
	사회: 조남민(한기대)
[10:10 - 10:45] 박지윤(우석대) “중국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분석” 토론: 권성미(부경대)	
[10:45 - 11:20] 손달임(한기대) “뉴스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 분석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나타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토론: 방영심(이화여대)	
	중간 휴식 (10분)
	사회: 정경민(산기대)
[11:20 - 11:55] 최윤정(용인대) “덕촌 양득중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 -<사직소(辭職疏)>와 <등대연화(登對筵話)>를 중심으로-” 토론: 이연순(홍익대)	
[11:55 - 12:30] 김경미(이화여대) “종차별의 타자, 동물의 재현과 동물권” 토론: 김기림(조선대)	
	점심식사 (30분)

-2부-

사회: 허난희(한신대)

[13:00 - 13:35] 황지영(이화여대)

“근대 여공들의 스트라이크와 기숙사의 지정학(地政學)
-1920~30년대 공장소설을 중심으로-”

토론: 박구비(한신대)

[13:35 - 14:10] 김소륜(이화여대)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둘러싼 ‘상상’의 가능성 -김숨의 소설을 중심으로-”

토론: 양현진(인천대)

[14:10 - 14:45] 강유진(중앙대)

“남성 퀴어의 성 정체성과 소설적 재현 -김봉곤, 박상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토론: 김지혜(이화여대)

중간 휴식 (10분)

[14:55 - 15:30] 한승우(중앙대)

“김영하의 『작별인사』를 통해서 본 과학 기술 시대의 타자들”

토론 : 손혜숙(한남대)

[15:30 - 16:05] 이승현(경북대)

“1950년대 신춘문에 희곡과 현대극의 향방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토론 : 백소연(가톨릭대)

[16:05 - 16:40] 길혜민(서울시립대)

“젠더화된 스펙타클 노동: 고통과 유희의 자기계발”

토론 : 김민지(한기대)

[16:40~] 폐회사

목 차

“중국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분석”	
박지윤(우석대)	1
토론 : 권성미(부경대)	
“뉴스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 분석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나타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손달임(한기대)	12
토론 : 방영심(이화여대)	
“덕촌 양득중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 -<사직소(辭職疏)>와 <등대연화(登對筵話)>를 중심으로-”	
최윤정(용인대)	35
토론 : 이연순(홍익대)	
“종차별의 타자, 동물의 재현과 동물권”	
김경미(이화여대)	60
토론 : 김기림(조선대)	
“근대 여공들의 스트라이크와 기숙사의 지정학(地政學) -1920~30년대 공장소설을 중심으로-”	
황지영(이화여대)	71
토론 : 박구비(한신대)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둘러싼 ‘상상’의 가능성 -김숨의 소설을 중심으로-”	
김소륜(이화여대)	89
토론 : 양현진(인천대)	

**“남성 퀴어의 성 정체성과 소설적 재현
-김봉곤, 박상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강유진(중앙대) 105
토론 : 김지혜(이화여대)

“김영하의 『작별인사』를 통해서 본 과학 기술 시대의 타자들”

한승우(중앙대) 116
토론 : 손혜숙(한남대)

**“1950년대 신춘문예 희곡과 현대극의 향방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승현(중앙대) 127
토론 : 백소연(가톨릭대)

“젠더화된 스펙타클 노동: 고통과 유희의 자기계발”

길혜민(서울시립대) 144
토론 : 김민지(한기대)

중국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분석

박지윤 (우석대)

차례

- 1. 서론
- 2. 실험 연구
 - (1) 실험 설계 및 조음 검사
 - (2) 실험 결과 제시
- 3.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오류 원인 고찰
 - (1) 한국어, 중국어 파열음 대조 고찰
 - (2) 한국어 파열음 음향음성학적 분석의 실제
- 4. 결론

1. 서론

취학 전 아동들의 언어 습득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부모로부터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한국인 아동보다 한국어 습득 능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도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조음 현상에 관해 살펴본 바가 많다. 대별(大別)해 보자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조음 현상을 장애 아동과 비교한 연구(김민정, 배소영, 2000; 김수진, 신지영, 2007; 김수진, 2010, 김수진, 이수향, 2011 등)가 많았고,¹⁾ 아동의 음운 습득 발달 과정에 따른 조음 오류를 연구(김수진, 신지영, 2009; 김민정, 배소영, 2005; 김영태, 신문자, 1992; 한재순, 신문자, 1987; 김태경, 백경미, 2010; 윤혜경, 1997; 윤혜경, 권오식, 1995; 홍성인, 2005; 박향아, 2000; 김현자, 조증열, 2001 등)한 것도 다수 있다. 한국 아동은 비교적 소리 단위가 큰 것을 먼저 습득하고 점차 작은 것을 습득해 나가는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단어, 음절, 음소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통된 연구 내용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조음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조음 기능 장애 아동과 비교하거나 정상 아동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고, 음운 습득에 따른 조음 연구도 발달 단계에 따른 음운 산출 정도에 그쳐 있다.

본고에서는 취학 전후 중국계(한국계 중국인 제외) 다문화가정 아동(7세, 9세)의 한국어 조음 오류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 파열음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몇 가지 음운 대조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파열음에서 두드러진 음운 대조를 보인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중국인 어머니가 사용하는 중국어에 노출되어 중국어 음운

1) 이들 연구 중에는 한국인 정상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조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기능적 조음 장애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정상 아동에 비해 발달 기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일탈된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김수진, 이수향, 2011)하는 경우도 있다.

체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면,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오류는 중국어 음운 체계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 연구

(1) 실험 설계 및 조음 검사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취학 아동인 7세 다문화가정 아동 30명과 동일 연령 일반 가정 아동 30명, 그리고 중국계 취학 아동인 9세 다문화가정 아동 30명과 동일 연령 일반 가정 아동 30명이다.²⁾³⁾⁴⁾

조음 오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의도에 맞는 문항 요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말소리를 어두, 어중, 어말 위치에서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자음 유형마다 뒤에 오는 모음이나 자음 환경을 다양화하였다. 초성의 경우, 양순파열음, 치조파열음, 연구개파열음의 후행 모음을 다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후행 모음에 전설평순모음, 후설평순모음, 후설원순모음이 골고루 오도록 하였다.

검사 방법은 아동이 글자가 적혀진 카드나 그림이 적혀진 카드를 보고 낱말을 자발적으로 발화하도록 하였다. 카드를 제시하는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만약 아동이 목표 낱말을 말하지 못한다면 오류로 처리하고 다음 카드를 제시하였다. 한편 아동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되물어서 자가수정(self-correction)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바르게 대답하면 1점, 오답을 말하면 0점으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1~3급에 해당하면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를 '하', 4~6급이 나오면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를 '상'으로 처리⁵⁾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방식으로 조음 오류 검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설문지와 검사 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실증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아동의 연령,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파열음 조음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차이 검증인 이원변량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령기 초기,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음소 단위로 음운 인식이 가능하다고 밝힌 연구들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전후(前後)인 미취학 7세 아동과 취학 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공통된 선정 기준은 (1) 국내에서 출생하고 국내에서 성장하였으며 (2) 중국 거주 또는 중국어 교육 기관에서 중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한 경험이 없고, (3)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조음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는 아동 (4)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제외) 어머니를 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4) 검사 기간은 2019년 8월~10월이며, 자료 처리는 11월에 하였다.

5) 통상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1,2급은 '하', 3,4급은 '중', 5,6급은 '상'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숙달도를 '상', '하' 이원으로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1~3급을 '하'로, 4~6급은 '상'으로 처리한 것이다.

대상 아동이 검사 목록 낱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목록의 단어들을 지연 없이 조음을 잘 하면 ‘상’으로, 조음을 잘하지 못하면 ‘하’로 처리하였다.

(2) 실험 결과 제시

다음은 아동의 파열음 조음 오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 아동 파열음 조음 오류 기술 통계

연령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7세	다문화가정 아동	8.53	5.335	30
	일반 가정 아동	19.30	1.725	30
	합계	13.92	6.703	60
9세	다문화가정 아동	18.00	3.464	30
	일반 가정 아동	23.00	.000	30
	합계	20.50	3.501	60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3.27	6.532	60
	일반 가정 아동	21.15	2.223	60
	합계	17.21	6.267	120

<표 2> 아동 파열음 조음 오류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3414.025	3	1138.008	104.788	.000
절편	35535.208	1	35535.208	3272.101	.000
연령	1300.208	1	1300.208	119.724***	.000
가정 종류	1864.408	1	1864.408	171.676***	.000
연령 * 가정 종류	249.408	1	249.408	22.966***	.000
오차	1259.767	116	10.860		
합계	40209.000	120			
수정 합계	4673.792	119			

* $p < .05$, ** $p < .01$, *** $p < .001$

파열음 조음 오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 연령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119.724$, $p < .001$). 가정 종류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171.676$, $p < .001$). 연령과 가정 종류 상호 작용 효과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22.966$, $p < .001$).

기술 통계 수치를 살펴 보면, 9세인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7세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8.5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조음 오류를 적게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 중에서도 7세 아동은 9세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조음 오류를 더 많이 보인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파열음 조음 오류가 아동의 동일음 조음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파열음 조음 오류 기술 통계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하	다문화가정 아동	9.90	6.728	30
	합계	9.90	6.728	30
상	다문화가정 아동	16.63	4.255	30
	일반 가정 아동	21.15	2.223	60
	합계	19.64	3.709	90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3.27	6.532	60
	일반 가정 아동	21.15	2.223	60
	합계	17.21	6.267	120

<표 4>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파열음 조음 오류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2544.475	2	1272.237	69.906	.000
절편	26566.876	1	26566.876	1459.776	.000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680.067	1	680.067	37.368***	.000
가정 종류	408.006	1	408.006	22.419***	.000
오차	2129.317	117	18.199		
합계	40209.000	120			
수정 합계	4673.792	119			

* $p < .05$, ** $p < .01$, *** $p < .001$

파열음 조음 오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37.368$, $p < .001$). 가정 종류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22.419$, $p < .001$).

기술 통계 수치를 살펴 보면,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가 높은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M=21.15$ 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숙달도가 ‘하’ 집단인 다문화가정 아동인 경우에는 $M=9.90$ 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집단 내 아동 분석을 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하’ 집단은 평균 9.90인 데 반해 ‘상’ 집단은 16.63으로 ‘하’ 집단이 ‘상’ 집단보다 오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아동의 조음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낮으면 아동의 조음 오류는 높아지는 것이다.

3.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오류 원인 고찰

(1) 한국어, 중국어 파열음 대조 고찰

한국어 파열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대립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성문음을 제외한 나머지

조음 위치에서 파열음은 조음할 때의 성대 [긴장성] 유무와 [기식성] 유무에 따라 ‘평음-경음-격음’의 분명한 3항의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한국어는 파열음이 ‘평음-경음-격음’의 3항의 대립인 데 반해, 중국어는 ‘평음-격음’의 2항 대립으로 되어 있다. 무기음과 유기음의 2항 대립으로써 의미를 구분한다. 예를 들면, 중국어 ‘dǎ(打 때리다)’를 한국어로 [ta]로 읽든 [t’a]로 읽든 중국인의 귀에는 약간 이상하게 들릴 뿐이고, 의미 변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모두 같은 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한국어의 파열음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T : Voice Onset Time)은 한국어 파열음이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해 주는 중요한 음향적 특성이 된다.⁶⁾ 또한 평음이 경음, 격음과 구별되는 기준으로 후행 모음의 음높이 또는 기본 주파수(Pitch), 파열시 나오는 기류의 기(氣) 등을 들 수 있다.⁷⁾

어두 위치에서의 파열음은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T : Voice Onset Time),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가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해 주고, 어중 위치에서는 파열음의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T : Voice Onset time)과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가 격음과 평음·경음을 구별해 주고, 폐쇄 지속 시간(CD : Closure Duration)은 평음과 경음·격음을 구별해 준다.⁸⁾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파열음도 두 조음 기관을 접촉시켜 막음을 형성했다가 개방하면서 조음하는 소리다. 한국어의 파열음이 어두 초성, 어중 초성, 그리고 어말 종성에 나타날 수 있는데 중국어의 파열음은 어두 초성, 어중 초성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언어의 파열음은 어두 초성 위치와 어중 초성 위치만을 비교하고자 한다.

어두 초성에서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T : Voice Onset Time)와 후행 모음의 피치(Pitch)를 비교할 수 있다.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T : Voice Onset Time) 혹은 무성 기간은 파열음의 조음을 위한 막음이 개방된 시점에서부터 성대 진동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Kim(1970)에서 개방 후 무성 기간의 길이는 구강에서 막음이 시작되는 시점의 성문의 폭에 의해 결정됨으로 한국어의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T : Voice Onset Time) 구간은 경음 > 평음 > 격음의 순으로 길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ㅍ, ㅌ, ㅋ/의 경우 막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성문이 넓게 열리므로 다시 닫히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만, /ㅃ, ㅍ, ㄱ/의 경우 성문이 작게 열리기 때문에 닫히는 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또 신지영(2001), 박진원(2001), 그리고 레이 레이·김영주(2010)에서는 파열음 뒤에 오는 모음의 시작점과 기본 주파수 즉, 피치(Pitch) 혹은 기본 주파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2) 한국어 파열음 음향음성학적 분석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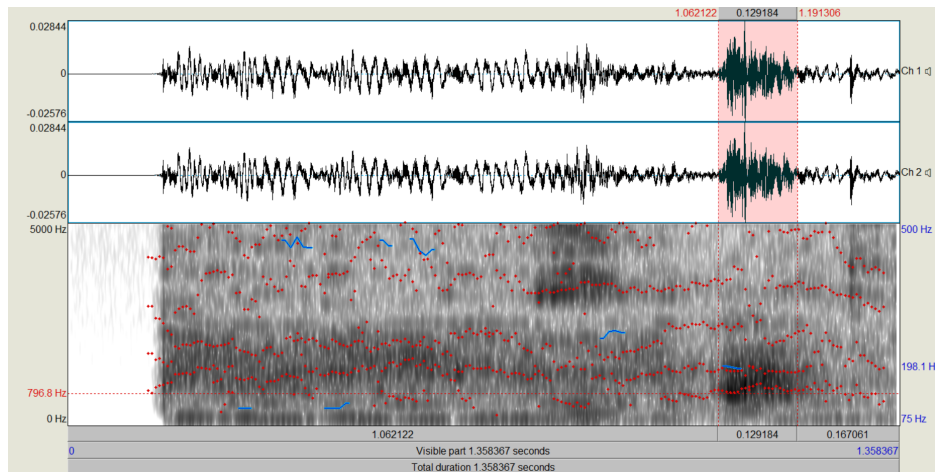
6) 참고로, Lisker & Abramson(1964)에서는 11개 언어를 대상으로 파열음의 조음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T : Voice onset Time)이 파열음의 구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7) Han & Weizman(1970)은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학적 특성으로 성대진동시작시간(VOT),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 폐쇄 지속 시간(Closure Duration : CD)을 측정하였는데, 성대진동시작시간(VOT)이 경음이 평음 및 격음과는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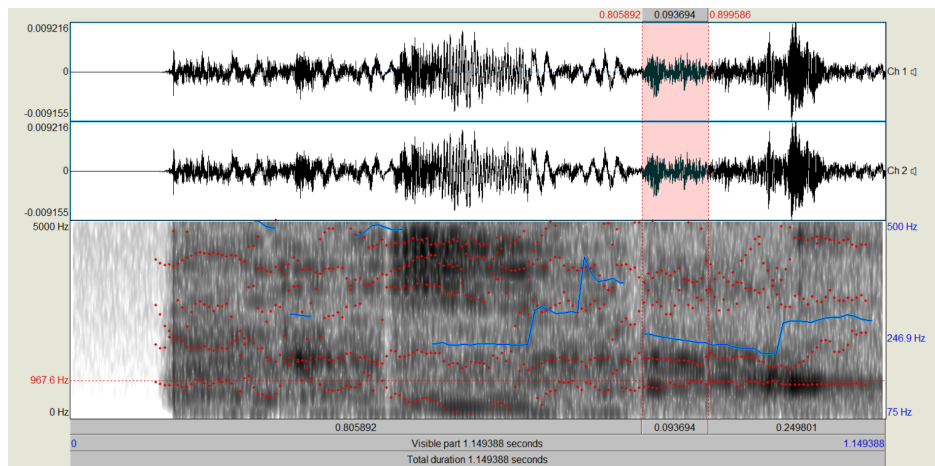
8) 이경희, 정명숙(2000)에서는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다. 어두 위치에서는 성대진동시작시간(VOT : Voice Onset Time),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와 강도(intensity)를 측정·비교하였고, 어중 위치에서는 성대진동시작시간(VOT : Voice Onset Time), 폐쇄 지속 시간(CD : Closure Duration),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와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은 실험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 그리고 중국인 어머니의 음향 음성학적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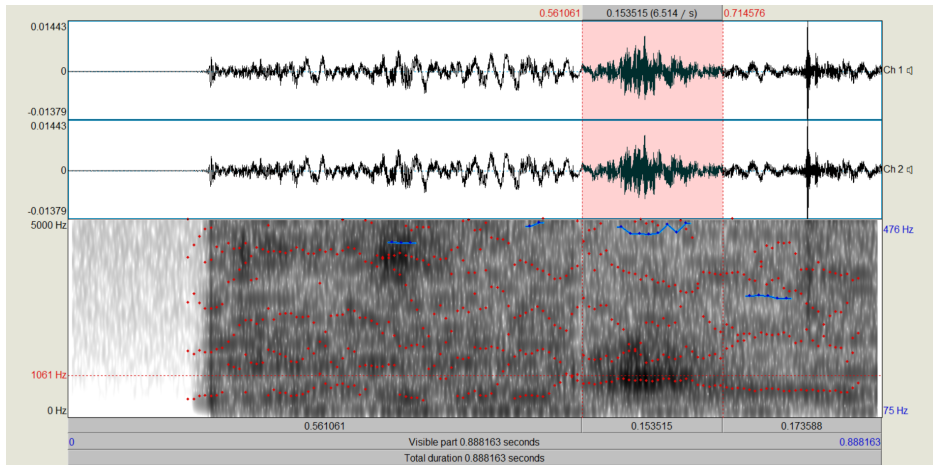
다음 [그림 1]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ip'al/ 스펙트로그램을 보인 것이다.



[그림 1] 다문화가정 아동 1의 /ip'al/ [ipal] 스펙트로그램



[그림 2] 다문화가정 아동 1의 어머니 /ip'al/ [ipal] 스펙트로그램



[그림 3] 일반 가정 아동 1의 /ip'al/ [ip'al] 스펙트로그램

위의 [그림 1~3]에서 살펴보듯이, 중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음은 어중 경음 /p'/의 '폐쇄 지속 시간(CD : Closure Duration)' 즉, 폐쇄 구간의 길이 차이가 비슷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가정 아동의 어중 경음 /p'/의 '폐쇄 지속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어중 경음 /p'/의 폐쇄 지속 시간(CD : Closure Duration)이 103.6ms인데, 중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65.3ms 정도에 불과하다. 어중 장애 음을 발음할 때 폐쇄 지속 시간(CD : Closure Duration)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구강 폐쇄 이후 파열 단계에서의 공기압이 약한 상태로 파열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만큼 긴장성이 약하게 발음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결론

한국어의 파열음은 조음할 때 기식성의 유무, 성대 긴장의 유무에 따라 '평음:경음:격음'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중국어의 파열음은 조음할 때 기식성의 유무에 따라 '유기음:무기음'으로만 구별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평음-경음] 쌍의 소리를 변별해서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기식이 '있다' 또는 '없다'의 이원적 범주에 노출되어 온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경음과 격음의 중간 정도의 기식성을 가진 평음을 발음할 때 그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하고, 중국어에 존재하는 이원적 범주 중 어느 하나에 범주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박창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통합과 공존의 조화」, 『이화어문논집』 34, 2014, 5~36.

2. 단행본

김수진, 신지영, 『조음음운장애』, 시그마프레스, 2007.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편, 『한·중 언어 비교 연구』, 서울 : 지식과 교양, 2012.

Hyman, L, *Phonolgy : Theory and Practic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75.

Jakobson, R, *Child Languge, Aphasia, and Phonological Universals*, (Transl. of Jakobson, 1941), Mouton, The Hague, 1968.

Ladefoged, *A course in phonetics(3rd ed)*, Harcourt Brace & Company, 2006.

「중국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분석」에 대한 토론문

권 성 미 (부경대)

뉴스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 분석

-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나타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

손 달 임 (한기대)

차례

1. 서론
2. 감염병과 미디어
3. 코로나 관련 뉴스 텍스트의 구조와 텍스트성
4. 코로나 관련 뉴스 텍스트의 내용적 프레임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뉴스의 보도 경향과 특징을 텍스트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보도 태도가 감염증에 대한 공포, 확진자 혹은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혐오를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누적 확진자가 500명을 넘고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2020년 7월 3일 00시 기준 국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969명이고 사망자수는 282명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WHO에서도 '팬데믹 선언'을 하였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는 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50만 명을 넘었다. 그야말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사태는 '단순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기'인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외에서 확산되면서 언론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뉴스의 헤드라인(제목), 리드(머리기사)를 비롯하여 보도문(기사문)에 사용된 표현이나 보도 내용을 보면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사실 보다는 사건의 발생(감염)을 문제 상황으로 부각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통계적 수치를 통해 강조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험 프레임과 공포 마케팅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해 위험 프레임과 공포 마케팅은 차별과 혐오와 같은 폭력적 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코로나 19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를 보면 오히려 언론이 차별에 편승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듯한 양상이 나타난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국내 첫 확진자가 중국 관광객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빠르게 번져 나갔는데, 이러한 시노포비아 현상을 심화시킨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애초에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으로 명명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임을 강조한 것이나, '중국인

입국 금지'를 둘러싼 논쟁을 다룬 기사들은 감염병의 원인과 책임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고 '타자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우한 교민 수용을 두고 격리시설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들이나, 개강 시즌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의 대거 입국으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을 우려하는 기사들 또한 우한 교민이나 중국 유학생을 '잠재적 보균자'로 낙인찍어 편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 감염과 해외 유입이 동시에 확산되고, 집단 감염, 연쇄 감염의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혐오의 대상은 점차 다양해졌고 비난의 강도 또한 심화되었다. 언론에서는 'OO發 확진자'라는 라벨링을 앞다퉀 사용하였고, 특정 종교(신천지, 개신교, 불교 등), 특정 지역(대구, 광주, 부천 등), 특정 직업군(콜센터, 쿠팡, 방판업체 등)을 비롯하여 성소수자로 책임 귀인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혐오와 편견,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과 이동 경로를 공개함으로써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생산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사를 주변부로 돌리고 또 다른 혐오와 비난을 이끌어낸다. 감염병 초기의 언론보도는 아예 '확진자=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열이 나는데 지하철을 탄 사람, 이 시국에 해외여행 간 사람, 이곳저곳 많이도 돌아다닌 사람'이라는 비난, 개인의 행적이나 행실과 관련된 도덕적 지탄과 혐오가 확진자들에게 씌워졌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보도문과 신문 기사문을 분석함으로써, 언론이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조장하고 확산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지상파/종편)의 코로나 관련 보도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⁹⁾.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뉴스 텍스트¹⁰⁾의 구조와 텍스트 구성요소에 따른 내용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언론이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위험 프레임과 혐오 프레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도 태도가 텍스트의 각 구성 요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감염병과 미디어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언론의 뉴스 보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언론은 감염병 위험을 경고하고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감염병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태도와 방식에 따라 수용자들이 감염병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은 막대하다. 사회 구성원들은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9)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였고 1차검색어로는 '코로나 19', '신종코로나', '우한폐렴' 등을 선정하였다. 중복되는 기사나 단순 행사 안내 및 광고성 기사 등을 제외해야 하겠지만 검색 결과 최초 수집된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전체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코로나' 관련 기사 209,671건, '우한' 관련 기사 51,508건). 이에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우한', '감염', '전파', '확진' 등으로 키워드를 다양화하고 해당 키워드가 제목에 명시된 보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0) 본고에서는 '뉴스 텍스트'라는 용어는 TV 뉴스의 보도문과 신문 기사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방송의 프로그램. 혹은 그러한 보도'를 의미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매체는 방송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뉴스'는 방송 뉴스나 신문 기사를 아우르는 용어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위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 재구성된 정보를 간접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위험을 인식한다(김용, 2015)는 점에서 미디어가 위험 이슈를 어떻게 정보화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다루는지는 뉴스 수용자들이 위험을 이해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즉 미디어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이자 수단(송해룡·조항민, 2016)이며, 감염병 위험의 경고자이자 주요 의제 설정자, 위험인식의 확산자, 국민 의견의 전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김태종, 2020).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의 연구들은 '감염병'이라는 위험 이슈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검토하거나 감염병 보도의 프레임에 집중해 왔다. 사스(2003년), 신종 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와 같이 국내에서 확산된 감염병을 비롯하여 에볼라바이러스(2013년)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언론의 보도 특성이나 뉴스 프레임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언론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국내 미디어가 감염병이라는 위험 이슈를 다룰 때 위험의 어떤 면을 강조하거나 배제하는지, 즉 어떤 프레임으로 위험 이슈를 구성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뉴스 수용자들의 위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였다.

주영기·유명순(2011)은 한국 신문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보도를 진단과 예후 프레임으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이 신종플루라는 위험 이슈와 그로 인한 사회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 예방법이나 대책 등의 '예후'프레임보다는 피해 확인 중심으로 건강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진단'프레임에 치중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용(2015)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보도했던 국내 언론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감염병 저널리즘의 과제를 살펴보고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가 과도한 정보 유통이나 선정성에 치중하여 과도한 공포심을 자극하는가 하면,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인이나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원에 대해 낙인화를 유도하여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거나 메르스 전파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을 양산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안은영(2016)에서도 메르스라는 위험 이슈를 보도하는 관점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염병 발생 초기에는 문제 원인 프레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메르스가 확산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책임 주체 프레임과 위험 프레임, 갈등적 프레임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송해룡·조항민(2016)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질병 관련 위험 보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 이슈(환자 발생, 전파)에 보도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강했고, 의학/과학적인 정보 전달보다 단면적이고 일면적인 사건 발생 보도에 보도량이 집중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에볼라 문제의 심각성, 통계 숫자 등을 통해 위험을 강조하는 '위험 프레임'이 언론 보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언론이 위험 보도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 즉 사망자의 숫자를 부각하는 등 통계적 수치를 통해 위험성을 강조하거나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극단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감염병을 다루는 미디어의 태도와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위험 요소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과 뉴스 수용자의 위험 인식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프레임은 수용자가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Goffman, 1974)이라는 관점에서 뉴스 언어에 의해 구성, 전달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전반적 해석, 문제성 정도, 원인 인식, 해결책 모색 등의 방향을 틀 짓는 패턴(송해룡·조항민, 2016), 즉 뉴스의 구성 방식이 수용자에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사스(2003년), 신종 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등의 감염병은 바이러스의 특성, 발생 시기, 감염병의 유입, 확산 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언론에서 이들 감염병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대로 미디어에서는 바이러스의 원인, 예방법, 증상, 진단/검사 방법을 전달하는 '정보성 프레임'보다는 사회적 재난 사실을 단순 전달하는 '사실 전달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재난의 위험성을 강조해 불안을 야기하는 내용의 '감정적 프레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나 재난의 책임 소재를 가려 비판하는 목소리, 재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책임 프레임'을 활용함으로써 위험 이슈를 강조하였다. 즉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언론은 문제 상황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언론에서 이를 반복 노출시킴으로써 감염병의 위험성을 극대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상황의 책임을 무능한 정부, 부실한 의료 대응, 첫 번째 감염자에게 돌리며 공포를 혐오로 이끌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공포 마케팅과 위험 프레임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감염병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관련 기관, 감염자에 대한 책임 공방 역시 그간 미디어에서 감염병을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우 국내에서 유행했던 여타 감염병과는 달리 공포와 위험의 정서가 혐오와 차별, 편견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애초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알려지면서 반중(反中) 정서에 기반한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이 매우 두드러졌다.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인종 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Kraut, 1995; Graddock, 2004; Keil and Ali, 2006; Monson, 2017), 감염병의 확산처럼 기생충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외부인은 감염원으로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인종혐오, 집단주의, 자민족 중심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Thornhill and Fincher, 2014)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감염병의 유행이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와 편견으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었다(김수경, 2020). 실제로 사스(2003년)와 메르스(2015) 때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와 해외 국가, 혹은 감염자와 의료 기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사스와 메르스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과 중동 지역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소위 '시노포비아' 현상이 감염병 초기 매우 두드러졌고, 이후 지역사회 감염, 집단 감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혐오의 대상과 책임 귀인도 종교 집단, 성소수자, 특정 지역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 심지어는 감염자와 접촉자 개인을 비롯하여, 확진자는 아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내 주변의 누군가(혹은 모두)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미디어의 보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언론은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거나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아직도 현재진행중인 코로나19를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소비하는지, 특정 인종, 종교, 집단, 소수자, 개인 대상의 혐오와 차별, 타자화가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미디어 담론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라는 질병의 확산이 국내의 이념적 갈등과 맞물려 어떻게 제노포비아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핀 김수경(2020)를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반중(反中) 정서는 혐중(嫌中)에 가까울 만큼 심각한데, 이러한 반중 정서의 부상은 단순히 코로나19의 감염원이 중국에서 유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친중(親中) 프레임과 이를 공격하는 정치적 의도

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 76건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핌으로써, 코로나19가 이념적으로 어떻게 정치화(politicize)되는지를 탐색하였다. 기존의 감염병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한 논문들과 달리 위험과 공포의 정서가 혐오의 정서로 이어지는 양상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가 비교적 감염병 발생 초기의 사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인종 차별', '중국인 혐오'라는 주제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김태종(2020)은 코로나19 관련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시행하여,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 의제가 무엇이며 이러한 의제가 시기별(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살핀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1기(관심 단계)에는 ①국제적 불안감 고조 ②중국 춘절 시기 확산 우려 ③국내 증상자 발생 우려 ④중국 폐렴 증상 감염병 발생 ⑤정부 초기 대응조치, 제2기에는 ①국내 확진자 발생 ②중국 전염병 확산 ③정부 대응조치 강화 ④신종 감염병 증상 및 예방법 ⑤세계 각국 확진자 발생, 제3기에는 ①중국 사망자 증가 ②크루즈선 집단감염 각국 대응현황 ③우한 교민 귀국 및 격리 ④대구·경북지역 확산 ⑤국내 경제 피해, 제4기에는 ①대구·경북지역 확진/사망자 증가 ②신천지 관련 논란 ③시민들의 피해 극복 노력 ④경제 피해 대책 마련 ⑤국제적 확산 상황 등의 토픽이 나타났다. 감염병 초기인 1기의 토픽을 보면 '불안', '공포', '우려' 등의 자극적 용어를 다수 사용함으로써 뉴스 수용자들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불확실한 공포감을 유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제1기부터 제4기에 도출된 토픽 중 15개가 국내외 코로나 발생 및 확산 상황을 단순 기술하는 스트레이트 중심 뉴스로 구성되어 있어 감염자 발생과 피해 상황, 사망자 수와 같은 사후 결과를 보도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감염병의 통제 방안, 정부 대응의 적절성 검증, 시민들의 실천방안 보도 등의 예방 저널리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도 문제로 언급되었다. 김태종(2020)은 코로나19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 최초의 논문으로 코로나19 관련 주요 의제를 종합적으로 살폈다는 점, 그리고 감염병의 확산 시기에 따라 의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핌으로써 사회적 이슈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커뮤니케이션 혹은 재난 보도의 관점에서 코로나19를 다루고 있을 뿐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언론이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산되면서 개인적 공포와 사회적 혐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포와 혐오의 정서를 강화하는 데 언론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간 감염병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방식이나 프레이밍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뉴스 보도문이라는 텍스트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뉴스 보도문이 갖는 텍스트 구조상의 특징과 구성 관계를 살피고 텍스트 내용이 전개되면서 초점화와 상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혐오와 차별적 정서를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코로나19 관련 뉴스 텍스트의 구조와 텍스트성

이 장에서는 코로나 관련 뉴스 텍스트의 구조의 특징적 양상을 살피고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의 측면에서 텍스트성을 분석하고자 한다¹¹⁾.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TV 뉴스 보도문은 '제목-앵커 도입 멘트-기자 리포트'로 구성되는데(장소원, 2003; 정희창, 2012), 기자 리포트는 다시 '기자의 도입 멘트 - 관련 인물 인터뷰 - 기자의 부연 설명 - 기자의 마무리 멘트'로 이루어진다. 관련 인터뷰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최소 1회는 나타나며 뉴스의 중요도에 따라 평균 2~3회 삽입된다(장소원, 2003). 신문 기사문은 '헤드라인-본문'으로 구성되는데, 헤드라인은 신문의 제목과 리드(lead, 前文)를 포함하고 본문은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다(장민정, 2012)¹²⁾.

뉴스 텍스트의 '제목'은 전체 보도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고, 더 나아가 해당 사건이나 에피소드에 대한 보도문 작성자 혹은 언론사의 의견 방향을 표현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제목은 전체 보도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당 텍스트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텍스트를 선택하고 읽게 하는 기능도 담당한다¹³⁾.

'리드(lead, 前文)'는 신문기사 전체를 요약, 압축하여 신문기사의 성격과 방향을 길지 않은 문장 속에 담은 것(한국편집기자회, 1990)으로 제목에 담지 못한 본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거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한두 문장(혹은 구)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V 뉴스 보도문의 경우 '앵커멘트'가 '리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차이라고 한다면 신문 기사문의 '리드'가 짧은 문장 혹은 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반해 TV 뉴스 보도문의 '앵커멘트'는 한 문장 이상의 완결문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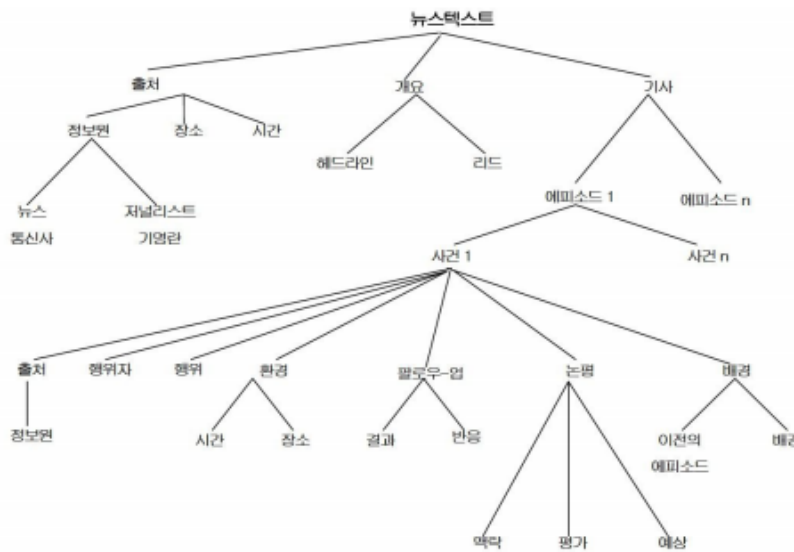
'기자 리포트'와 '본문'은 한 개 이상의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각각의 에피소드는 또 다시 한 개 이상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개별 에피소드와 사건을 이루는 주요 구성요소로는 '행위, 행위자, 배경, 논평, 팔로우업'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는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인데, 반드시 사람만이 행위자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데 주요한 역

11) 고영근(1999)에서는 텍스트다움의 언어적 조건을 '응결성(응결장치)'이라 하고, 텍스트다움을 확보하는 장치를 '응결성 장치'라고 하였다. 응결성 장치는 '자소, 음운, 형태, 통사론적 특징에 의해 텍스트를 형성하는 기제인 응결성장치(1)'와, '의미, 기능상의 절차에 따라 하나의 텍스트로 묶는 기제인 응결성장치(2)'로 크게 나뉜다(방영심, 손달임, 2013). 이 글에서는 뉴스 텍스트를 구성하는 하위 텍스트(subtext) 간의 상관관계를 살필 때, 즉 표제에서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텍스트 의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 언어 표현들이 반복, 재사용됨으로써 표층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지의 문제를 '응결성장치(2)'를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다.

12) 장민정(2012)에서는 기존의 신문기사에 대한 연구가 기사문의 언어표현영역인 헤드라인과 본문 연구에 집중되어 왔으나, 보도사진은 언어 기사문의 보조텍스트인 동시에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진 텍스트로 신문기사문 내에서 텍스트 사이의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므로 기사문의 구성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TV 뉴스가 방송 매체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막 역시 뉴스 보도문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방송 뉴스 자막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13) 헤드라인이 갖는 압축적 속성과 유혹적 속성에 대해 장민정(2012)에서는 "헤드라인이 독자에게 말 걸기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헤드라인은 독자가 전체 기사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기사문이 어떤 논조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독자는 헤드라인을 통해 신문 기사문을 읽을지를 취사·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민정(2012)에서는 신문 구독 습관이 변화하면서 '헤드라인 쇼퍼(headline shopper)' 혹은 '헤드라인 리더(headline reader)'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헤드라인을 중심의 기사 소비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현대사회에서 헤드라인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할을 하는 '무엇'이 곧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배경'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장소적(place), 시간적(time) 맥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현재의 행위에 앞서 발생한 이전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논평'은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와 관찰, 설명을 의미하고, '팔로우 업(후속 기사)'는 주요 행위에 따르는 후속 행위에 대한 보도를 말한다. 다음은 엘런 벨(1991)에 따라 뉴스 텍스트의 일반적 구성 요소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뉴스 텍스트의 구성 요소(유재홍, 2010에서 재인용)

이제 코로나19 관련 TV 뉴스 보도문과 신문 기사문을 텍스트 구조에 따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비교를 위해 동일한 이슈에 대한 뉴스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1) 1월 24일 KBS 뉴스 보도문의 텍스트 구조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두 번째 환자'50대 한국인'...㉡69명 접촉
앵커 멘트	S1: 설 연휴 첫날인 오늘(24일), <u>국내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u> S2: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던 <u>50대 한국 남성인데 내국인으로는 처음입니다.</u> S3: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이 남성이 귀국길에 <u>접촉한 사람, 예순 아홉 명으로 파악됐습니다.</u> S4: 김진화 기자입니다.
기사	[<u>자막</u>]'신종 코로나' 두 번째 확진환자 '55살 한국인 남성'

리포트	<p>S1: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나흘 만에 <u>두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u></p> <p>S2: <u>55살 남성으로, 한국인으로는 첫 확진 환자입니다.</u></p> <p>S3: 이 남성은 업무차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우한에 머물러 왔습니다. [자막]"<u>지난해 4월부터 업무차 우한에 체류</u>"</p> <p>S4: 보건당국 조사에서 이 환자는 지난 10일부터 목감기 증상이 있었고, 몸살 증상이 더해져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당시 열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p> <p>S5: 그제인 22일 우한을 떠나 상하이로 경유해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검역과정에서 인후통과 발열 증상이 포착됐습니다.</p> <p>S6: 하지만 기침 등의 증상은 없어 '<u>능동감시 대상자</u>'로 분류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막]"<u>능동감시대상자</u>' 분류... 보건소, 추적 감시</p> <p>[인터뷰]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p> <p>S7: "호흡기 증상은 없어 <u>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u>하고 환자에게는 증상 변화 시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를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p> <p>S8: 보건소의 추적감시 하루 만에 증상이 심해져 선별진료를 받았고 오늘(24일) 오전 <u>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u>을 받았습니다.</p> <p>S9: 보건당국은 일단, 사람 간 전파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막]"<u>사람 간 전파로 감염된 듯</u>"</p> <p>S10: 이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 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고, 현지에서 중국인 직장 동료가 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p> <p>S11: 이 환자가 이용한 비행편은 상하이 항공 FM 823편이었으며, 공항에서 집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엔 집에만 머무르다 보건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S12: 이 과정에서 <u>접촉한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69명</u>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막]"<u>두 번째 확진자, 69명 접촉 확인</u>"</p> <p>S13: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p>
-----	---

(2) 1월 24일 한겨레신문 기사 텍스트 구조

헤드라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국내 두 번째 환자와 접촉 69명 능동감시
리드	질병관리본부 오후 기자브리핑 항공기 승객·가족·택시 기사 등 보건소 통해 발열 등 증상 확인
	<p>S1: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접촉한 69명의 증상을 조사 중이며, 이들을 향후 14일간 능동감시할 예정이라고 24일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p> <p>S2: 앞서 이날 오전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에서 근무해온 55살의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했다.</p> <p>S3: 이날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 번째 확진 환자인 55살 한국인에 대한 동선을 파악한 결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뒤 접촉한 사람들은 항공기 내 인접 승객 등 56명, 김포공항 내 직원 4명,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택시를 운전한 기사 1명, 자택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 등 모두 69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p> <p>S4: 이어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접촉자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동안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살펴보는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S5: 현재 두 번째 확진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에 격리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p> <p>S6: 정은경 본부장은 "폐렴과의 관련성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임상 증상도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p> <p>S7: 2019년 4월부터 우한시에서 근무해 온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22일 우한을 떠나 상하이(상하이항공 FM823편)를 거쳐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입국 당시 검역 과정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됐다.</p> <p>S8: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과 검역조사 결과 37.8도의 열, 인후통이 있었으나 호흡기 증상은 관찰되지 않아 곧바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지는 대신, 관할 보건소를 통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p>

	<p>S9: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으며 23일 인후통이 심해지면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24일 오전 확진자로 확인된 것이다.</p> <p>S10: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가 우한에 머무는 도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요 감염 경로로 지목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같이 근무하는 동료(현지 중국인 직원) 가운데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인원 규모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p> <p>S11: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우한뿐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p> <p>S12: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들은 하루 3만2천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일대일 발열 감시는 어려운 상황이다.</p> <p>S13: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p> <p>S14: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각종 질병 증상을 체크하는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p> <p>S15: 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 관리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분류 기준도 이르면 내일부터 현재 수준보다 넓힐 계획이다.</p> <p>S16: 박혜경 과장은 "지금까지 우한에 다녀온 적이 있고 열도 있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로 (조사대상) 사례를 정의했다면, 앞으로 우한에 다녀온 사람이 열만 있어도, 혹은 호흡기 증상만 있어도 조사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	---

1월 24일 KBS 뉴스 보도문의 헤드라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두 번째 환자'50대 한국인'...69명 접촉"이다. '코로나19 감염'이라는 동일한 화제 범주에 속하는 두 개의 명제가 나란하게 병렬된 '나열 관계' 구조를 보여준다¹⁴⁾. 반면 같은 날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기사문의 제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국내 두 번째 환자와 접촉 69명 능동감시"으로, '두 번째 확진자 발생'이라는 사건보다 '접촉자에 대한 능동감시 예정'이라는 후속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단일 명제로 하나의 정보를 기술하는 단순서술 관계의 제목으로 분석된다.

14) 헤드라인(제목)의 구조는 인과 관계, 주제서술 관계, 나열 관계, 문제해결 관계, 단순서술 관계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장민정, 2012), 여기에서 '나열 관계'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명제가 동일한 자격으로 나열되는 것을 말하고 단순서술 관계는 단일 명제로 하나의 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제목/헤드라인과 앵커멘트/리드의 관계 구조를 살펴보면, (1)번 텍스트에서는 제목에서 제시된 핵심 정보를 앵커멘트에서 보완하여 설명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제목의 키워드에 대해 앵커멘트에서 모두 후술하고 있어 후속 명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미적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2)번 텍스트 역시 헤드라인의 핵심 정보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 리드에 제시되는 구조이다. 다만 (1)번 텍스트에서는 제목의 핵심 정보를 앵커멘트에서 단순 서술하는 방식으로 반복, 재수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2)번 텍스트에서는 헤드라인의 핵심 정보에 대한 구체적 서술과 내용 보완, 즉 '상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에서는 ㉠국내 두 번째 환자, ㉡50대 한국인이라는 명제에 대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던 50대 한국 남성인데라는 문장으로 재수용하고 있는데, (2)에서는 ㉠국내 두 번째 환자와 접촉 69명 능동감시라는 명제에 대한 추가 정보로 ㉡항공기 승객·가족·택시 기사 등 (접촉자에 대한 추가 정보) ㉢보건소 통해 발열 등 증상 확인(능동감시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서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1)에서는 동일한 표현을 반복, 재수용함으로써 표현적 응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은 없으나 헤드라인의 명제와 리드의 추가 정보가 내용적, 의미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텍스트 전체의 응집성을 확보하였다.

기자 리포트/본문 텍스트는 제목(헤드라인)에서 제시한 사건의 개요와 주제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시하거나 주요 정보를 상세화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뉴스 텍스트의 본문은 '도입부-본문-마무리'의 구성되는데 도입부에서는 주로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명시(주정보)하고 본문에서는 주제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 상세화하며(주정보의 상세화) 마무리에서는 인용 등을 사용하여 추가 정보를 첨가하게 된다. 기사의 도입부에서는 핵심 정보(주정보)가 제공되고 기사가 진행될수록 정보 가치가 적은 하위 정보나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양상을 보인다.

(1)번 텍스트에서 초점화한 주요 사건(주정보)는 '국내 두 번째 환자(50대 한국인) 발생'이다. 이에 도입부(S1~S2)에서는 주정보가 되는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본문에서 주정보를 상세화하거나 부가 정보를 제시한다. 즉 주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전 에피소드에 대한 정보(S3~S6), 정보원의 인터뷰를 활용한 후속 사건(S7), 주요 사건(코로나 확진 판정, 확진자 발생)의 배경 및 근거(S8~S10)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정보를 상세화한다. 또한 '확진자 발생'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나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마무리에서는 주요 사건과 관련된, 혹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부차적 정보로서 '69명의 접촉자 확인'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2)번 텍스트에서는 '69명의 접촉자에 대한 능동 감시 예정'이라는 주제를 주요 사건으로 초점화하고 있다. 역시 본문의 도입부에서는 주요 사건에 대한 핵심 정보를 명시하였다(S1). 그리고 (1)번 텍스트의 주정보였던 '국내 두 번째 환자 발생'이라는 주제는 이전 에피소드이자 주요 사건의 배경으로 제시되었다(S2). 본문에서는 도입부에서 제시한 주요 사건(S1)에 대한 2차 정보로서 접촉자에 대한 구체 정보(S3), 주요 사건에 대한 사후대책, 혹은 후속 조치 내용(S4)을 설명함으로써 정보를 상세화하고 있다. 도입부의 또 다른 주요

사건인 '두 번째 확진자 발생(S2)'에 대한 2차 정보, 추가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확진자의 현재 상태와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계획(S5~S6),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확진 판정의 절차와 과정, 감염 경로 추정 결과(S7~S10)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주요 사건의 세부적 사실 정보를 보충하고 있다. (2)번 텍스트의 마무리 부분은 부차적 정보원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추가 정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혹은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능동 감시 (예정)'이라는 주요 행위(S1~S2)에 뒤따르는 후속 행위(팔로우업)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제시되고 있다(S11~16). 마무리 단락 내에서도 주정보(S11)가 먼저 제시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요컨대 뉴스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제목/헤드라인에서 앵커멘트/리드, 기자리포트/본문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기자리포트(본문) 내에서도 도입부-본문-마무리로 이어지면서 핵심 정보(주정보, 주요 사건)에 대한 구체화, 상세화가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어휘적 반복과 재수용을 통해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코로나 관련 뉴스 텍스트의 내용적 프레임

4.1. 위험 프레임과 공포 마케팅

4.1.1. 불안감 조성

미디어가 감염병, 재난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소비해 왔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언론이 바이러스의 원인, 예방법, 증상, 진단 방법을 전달하는 '정보성 프레임'보다는 재난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사실 전달 프레임'을 주로 사용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난 보도의 선정성을 비판하며 그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불안을 야기하는 '감정적 프레임'에 치중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과장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는 국민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자협회 등에서는 지난 4월 감염병보도준칙을 발표하였다. 감염병 보도의 기본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행동 수칙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신종 감염병을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정보'를 '보건당국의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원을 명기'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사 제목에서 '패닉, 공포'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사 본문에서 자극적인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뉴스 텍스트의 제목과 본문을 보면 감염 규모,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 감염병의 발생률과 증가율, 전파력과 치명률 등의 수치를 강조하거나, 기존의 감염병 혹은 질병과 비교하여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1) 승객 39명 또 확진... '日 공포의 크루즈선' 국제문제 비화 조짐 (2월 12일, 세계일보)
 신종 플루보다 위험한 코로나19...장기전 대비 필요(2월 21일, 연합뉴스)
 "우한 폐렴 전파력, 메르스보다 높고 사스보다 낮아"(1월 22일, 한겨레)
 '우한 폐렴' 사스보다 빨리 확산...중국 감염자수 6000명 육박 (1월 29일, 조선일보)
 '사스'공포 부른 중 폐렴 집단 감염 주변국도 초비상(1월 4일, 조선일보)
 현재 확진 1146명... 하루 1000명 쏟아질 '대유행' 올 수도(2월 26일, 문화일보)

- (2) 2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1번 확진자 발생 이래로 37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선 데 대해 이제는 눈앞에 닥친 '3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략) 주춤했던 폭증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는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염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다음 주가 되면 하루에 1000명씩 폭증할 가능성도 있다"며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발병하는 게 이번 주말 지나면서 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에 따른 현재의 급증세를 '2차 유행'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신도들이 접촉한 시민들이 확진자로 등장하는 '3차 유행'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현재 추세보다도 확진자 급증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2월 26일, 문화일보, 현재 확진 1146명… 하루 1000명 쏟아질 '대유행'을 수도)

특히 (2)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이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도록 하는 보도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가 되면 하루에 1000명씩 폭증할 가능성"에 대한 반복과 재수용 과정에서 '3차 유행', '확진자 급증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사 본문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이를 주요 명제로 제목에 명시하면서 인용 부호를 생략함으로써, 뉴스 수용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개인의 의견이 아닌 검증된 사실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관련 보도를 보면 감염병 자체에 대한 공포 외에도 감염병이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 보도하여 안감을 자극하는 경우도 많다.

- (3) 코로나19 美 전역 잠식…비상사태 첫 주말 "일상이 거의 마비" (3월 15일, SBS)
- 이번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대란?… '500원 판매' 첫날 접속 폭주(6월 6일, 국민일보)
- 48시간 근무 마치고 간 마트 '텅'…"사재기 그만" 호소 (3월 25일, SBS)
- '코로나19'로 생활필수품 진열대 텅 비어 (3월 23일, 연합뉴스)
- 美 증시도 '코로나 패닉'… 다우, 블랙먼데이보다 낙폭 커(2월 28일, 문화일보)
- "등교 수업 어찌쇼"…안양 초등생 확진에 학부모들 불안(5월 31일, 연합뉴스)
- 무급휴가냐 퇴사냐… 코로나19발 갈바람(4월 2일, MBC)
- 항공·관광업종 코로나 한계상황 "환란 때보다 심각"(3월 13일, 한국일보)
- '청정 광주'에 코로나19 확산… 지역경제 '비명'(7월 3일, 한국일보)
- 문 닫고 텅 비고…대구 시민에 "외출 자제해달라" (2월 21일, MBC)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의 마비'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생활 용품과 방역 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마스크 대란', '생활필수품 사재기'로 표현하기도 한다. 코로나의 확산이 경제계 미치는 악영향을 '패닉, 갈바람, 한계, 비명, 환란, 심각' 등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문 닫은 상점, 텅 빈 거리'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피해의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극대화하고 이를 보다 시실적으로, 혹은 보다 과장되게 전달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4.1.2. 전쟁 은유

감염병이나 질병은 종종 전쟁이나 군사적 상황에 빗대어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곤 하였다. 한국어의 질병관을 은유 표현을 통해 살핀 전혜영(2016)에서도 '질병은 전쟁'이라는 은

유를 제시하였다. 코로나 관련 뉴스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전쟁 은유 표현을 사용하여 감염병이라는 위험 이슈가 전쟁에 준할 만큼 심각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침입자'로 묘사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되는 것을 '뚫렸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은 위험의 정도를 강조하는 효과와 함께 우리 사회가 감염병이라는 적군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 그 결과 방역 당국이나 정부의 무능함, 무책임함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불안감을 자극할 수도 있다.

- (4) '신종 코로나' 국내 첫 '3차 감염'... 방역 뚫렸다 (2월 1일, 경향신문)
1만→2만명, 中은 '무방비'(2월 4일, 채널A)
중증장애인 시설, 코로나 지역확산 시한폭탄으로(2월 25일,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 방어막 뚫렸다...중국 전역 확산 (YTN, 1월 22일)

- (5) 중국 우한에 전격 투입된 인민해방군 의료진들입니다. 군복에 마스크, 지금의 상황이 '전시'나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전쟁터를 빠져나오기 위한 대탈출,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중략) 공포의 도시가 된 우한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약 5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월 28일, KBS, '차이나 엑소더스' 본격 중국발 전염병 왜 많을까)

4.2. 질병의 타자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언론에서는 일제히 국내 첫 확진자에 대한 보도를 했고 제목과 본문 첫 문장에서 모두 '우한페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6) 국내에서 중국 '우한 페렴'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월 20일, MBC, 국내서 '우한 페렴' 확진자 1명 발생...19일 입국 중국인 여성)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페렴' 환자가 확인됐다.(1월 20일, 경향신문, 중국 '우한 페렴' 환자, 베이징서도 첫 확진)
국내에서도 중국발 '우한 페렴'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중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1월 20일, 한겨레, 중국발 '우한 페렴' 국내서도 첫 확진)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질병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타자화(otherize)'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감염병의 이름에 특정 지역이나 인종, 직업 등을 명시하게 되면 해당 집단에 대한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WHO에서는 2015년 질병을 명명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WHO에서도 코로나19를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페렴'으로 지칭하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용어를 거쳐 'COVID-19'라는 공식 명칭을 결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한글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정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우한페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한코로나'라는 대체 용어

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7) 우한폐렴 6번째 확진자 접촉한 딸, 34명 원생 어린이집 교사(1월 31일, 중앙일보)
우한 코로나 확진자 107명 늘어... 14일 현재 8086명(3월 14일, 조선일보)
中, 우한 코로나 상황 알린 시민기자 체포·구금 (6월 24일, 조선일보)

4.3. 감염자/감염원에 대한 혐오

질병의 원인을 '외부의 것'으로 타자화하는 양상은 '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진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우한'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이 정서가 확산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중국 교민, 중국 유학생을 비롯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으로까지 그 대상을 옮겨갔다. 언론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인/중국 유학생 밀집지역', '중국 동포 구직 타격',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와 같은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정서를 여과없이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국에 대한 혐오와 중국인 기피 현상을 고발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혐오적, 차별적 표현을 반복, 재생산함으로써 편견을 강화하기도 한다.

- (8) '우한폐렴' 공포에...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원 50만 '흠뻑'(1월 28일, 동아일보)
"중국인 밀집지 배달 NO" 배달 노동자 요청 논란(1월 29일, SBS)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티셔츠 논란 (4월 8일, MBC)
"중국말 들리면 손님 가버려" 신종코로나에 중국동포 구직 타격'(2월 11일, 연합뉴스)
40번째 확진자에 중국인 유학생 밀집지역 초긴장...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2월 19일, 국민일보)
- (9)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구에서도 회사원이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거주 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금천구에서도 중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금천구 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월 25일, JTBC)
-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40번째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성동구 사근동은 중국인 유학생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확산 초기부터 주민들의 감염 우려가 높았던 곳이다. 이 지역에서 해외여행도 다녀오지 않고, 접촉자라도 잡히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국인 유학생이 밀집한 동네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중략) 중국인 손님을 주로 받는다는 한 식당 관계자는 "확진자 소식이 들리자 근처 식당들이 거의 영업을 종료했다. 우리도 문 닫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남모(57)씨는 "집을 구하러 온 사람이 중국인 같으면 일단 방 없다고 한다"며 "집 주인들도 건물 전체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3199명으로 국내 대학 중 세 번째로 많은 중앙대 인근 동작구 흑석동 일대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중략) 대학이 밀집한 신촌 일대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인 유학생 기피 현상이 여전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지나가다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만 봐도 움찔하게 된다"며 "한양대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온 걸 보면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19일, 국민일보)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인 밀집 지역', '중국인 유학생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와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인 혹은 중국 유학생을 잠재적 감염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심지어 (10)에서 40번째 확진자는 '해외여행도 다녀오

지 않았고 접촉자로도 잡히지 않은' 경우임에도 중국인 유학생과의 관련성을 암시하거나 함축하고 있다. 식당 관계자와 공인중개사의 말을 인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과 편견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인이나 중국 유학생들이 감염병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편견과 그들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염병 대국, 바이러스 온상(2월 4일, 서울경제)', '미세먼지에 이제 코로나까지 수출하는 중국(1월 27일, SBS페이스북)'이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을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양상도 보인다¹⁵⁾. 그런가 하면 "우한시장 뱀고기, 바이러스 인체감염 주범일수도(1월 24일, 동아일보)", "'숙주' 박쥐도 식용 거래…中 확산 골머리(1월 25일, 채널A)'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자극적 기사를 쏟아내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후진적이고 야만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11) 야생동물 식용문화에 관료주의·의료 부실까지…바이러스 온상 된 中(2월 4일, 서울경제)

중국은 왜 '전염병 대국'이 됐나
 시장서 박쥐 등 판매…불결한 환경 탓 '人獸공통 전염병' 많고
 약재 터지면 '쉬쉬' 면피 급급한 관료주의는 효율적 대응 막아
 독감철 진료 받으려면 밤새 줄서야…후진적 의료체계도 한몫

(12) '차이나 엑소더스' 본격 중국발 전염병 왜 많을까(1월 28일, KBS)

중국에 유독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야생 동물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식문화를 꼽기도 합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육류·생선을 파는 서구식 대형 마트가 중국에선 이상하리만치 인기가 없습니다. "오래된 걸 눈속임한 건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중년 이상 중국인에게 신선한 고기란 '산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폐렴의 발원지 화난 수산 시장서도 확인됐지만, 도시 외곽 재래시장만 가도 눈을 뜬 닭·오리는 기본이고 산 뱀과 개구리가 손님을 기다립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 다양해집니다. 특히 홍콩과 접한 광둥성 "책상 빼고 다리 네 개짜리는 다 먹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만큼 별 희한한 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박쥐와 오소리가 한약재로 쓰입니다. 이런 생활 문화인데 광둥 지역은 겨울에도 20도를 웃돌고 비마져 잣습니다. 인구는 1억이 넘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엉키고 고온·다습한 데다 인구 밀도까지 높다보니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되고 다시 사람끼리 번지는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1968년 세계적으로 75만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2003년 774명이 희생된 사스 2010년대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둥 일대에서 발생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게 여러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양쯔강 중류의 우한도 광둥처럼 습하고 따뜻합니다. 인구가 1100만쯤 되는데 이 곳 주민들도 "박쥐를 약재로 안다"고 합니다. 사람과 물자가 사통팔달로 오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중국 곁에 산다는 것만으로 겪어야 하는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바이러스는 치명적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공항 검역관에게 전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의 움직임이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15) 코로나19가 발병, 확산되는 과정에서 반중(反中) 정서와 혐오적 인식이 촉발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반중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1월 31일과 2월 12일 각각 "As Coronavirus Spreads, So Does Anti-Chinese Sentiment", "Chinese Students Abroad: How Are You Affected by the Coronavirus Outbreak?"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독일의 대표언론인 슈피겔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표현(CORONA-VIRUS Made in China)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2월 19일 대구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언론에서는 대구를 위험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온라인상에서 '대구 코로나, 대구 폐렴, TK 코로나'라는 자극적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이러한 표현을 무분별하게 재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심지어 채널A에서는 '서초구에 상륙한 TK코로나'라는 자막을 방송에 내보내는 등 지역 혐오의 정서가 언론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의 지역 확산을 야기한 슈퍼전파자가 신천지 교도이고, 대구 지역 확진자의 대다수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언론에서는 신천지의 예배 방식, 포교 활동을 파헤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중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의 책임을 66번 확진자를 비롯한 신천지 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신천지와 신천지 교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퍼져나갔다.

(13) '슈퍼전파자' 된 신천지 (3월 2일, MBC)

코로나 속주 신천지, 신도 명단 조건없이 공개하라 (2월 26일, 국민일보)

신천지교회 예배 방식 보니... "밀집·접촉 잦아" (2월 20일, JTBC)

신천지 교회 동시 예배자만 1000명, 31번 환자 동선 따라 코로나 공포 확산(2월 20일, 한국일보)

(14) SNS에 신자 입단속 공지 떠돌아... 신천지교회 은폐 의혹 (2월 19일, 한국일보)

[신천지의 포교 수법] "나는 이렇게 신천지 노예가 됐다" (4월 23일, 국민일보)

(15) '교회 집회소' '공부방'... 신천지 시설 찾으러 가보니 (2월 29일, 한국일보)

"신천지 60%가 20대"...청년들은 왜 신천지에 끌릴까 (2월 28일, 중앙일보)

"남편이 신천지 반대 땀 폭행 유도·신고" 신도 매뉴얼 있었다 (3월 28일, 한국일보)

신천지 색출법... 이 그림을 가르쳤다면 100% 신천지(3월 31일, 국민일보)

(16) "교회가서 코로나 퍼뜨려라" 지령 부인한 신천지 24일 기자회견(2월 22일, 국민일보)

'예배 안갔다 해라' 폐쇄적인 신천지..."본부 있는 과천 걱정"(2월 20일, 중앙일보)

물론 '대구'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감염자 중 대다수가 '신천지 교인'이며 주요 감염 경로가 '신천지 교회'라는 것은 사실 정보이지만, 언론에서는 감염의 규모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감염인, 감염지, 감염 경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천지의 집단 예배 방식과 다단계식 잠입성 포교 활동, 신천지의 교리를 파헤치거나 신천지 교인 개개인의 인적 사항, 개인 정보, 사생활을 들추어내는 기사도 쏟아져 나왔다. 이와 더불어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지령이 주어졌다거나 하는 등의 추측성 보도도 많았다.

(17) [단독] 이태원 게이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5월7일, 국민일보)¹⁶⁾

용인 확진자 방문 이태원 게이클럽에 500여명 있었다(5월7일, MBN)

게이클럽 다녀간 뒤 확진... 제2의 신천지 우려(5월7일, MBN)

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19 확진... 동성애자들의 생각은? (5월 8일, 국민일보)

여기 웬일이니, 불금에도 불 꺼진 이태원 클럽(5월 9일, 조선일보)

16) 해당 기사의 제목은 현재 '이태원 유명 클럽에 코로나19 환자 다녀갔다'로 수정되어 있다.

(18) 6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게이클럽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한 게이클럽은 이날 밤 11시 30분쯤 인스타그램에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렸습니다. (5월 7일, MBN)

킹클럽 일대는 언덕 지형인 데다 성(性) 소수자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클럽과 주점이 많아 '게이 힐(Gay Hill)', '게이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5월 9일, 조선일보)

(19)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 - 블랙 출입한 게이도 200명은 될 듯 (5월9일, 국민일보)¹⁷⁾

'블랙수면방' 다녀간 이태원발 확진자... 5일간 방역 '구멍' (5월 10일, MBN)

동성애자 찜방 말고 '방역 구멍' 또 있었다(5월 10일, 국민일보)

(20) 블랙수면방은 동성애자들이 익명의 상대와 성행위를 하는 찜방이다. (5월9일, 국민일보)

"꽤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만 다니는, 주로 젊은 남자들만 다니더라고요." 이름은 수면방이지만, 이 곳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방문자 간 밀접 접촉이 오가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는 공용 샤워실, 탈의실과 함께 칸막이가 설치된 비좁은 방들로 이뤄져 있어 방역을 위한 거리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5월 10일, MBN)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2014)'에 따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말아야 하고 성매매 등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지어서도 안 된다. 또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동성애', '게이', '동성애자'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17) 코로나 확진자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한다(18). 또한 성적소수자를 성매매 등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지어 선정적으로 보도(19, 20)함으로써 이들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적 뉘앙스를 담아낸다. 문제는 이러한 보도 태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칸막이가 설치된 비좁은 방들로 이뤄져 있어 방역을 위한 거리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논평은, 뉴스 수용자들에게 '이태원 黻' 집단 감염의 원인이 성소수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의 정서가 확대될수록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려 할 수 있다. 즉 성소수자들에 대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주어지게 되면 해당 시설을 방문한 했다는 사람들은 코로나 진단 혹은 코로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과적으로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감염과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의 매개가 된 종교 집단이나 시설, 회사 및 단체에 대한 혐오 표현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강남 '타워팰리스'도 코로나에 뚫렸다(3월 29일, 조선일보)'에서처럼 코로나19의 감염이 빈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감염병 초기에는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많이 노출되면서 개인의 도덕성이나 사생활에 초점을 둔 기사가 주를 이

17)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되어 포털에서 검색이 불가능하다.

루었고, 최근에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확진자 개인과 확진자의 주변 환경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사가 많아지면서 코로나 감염자 개개인을 향한 혐오와 배척의 정서도 심화되고 있다.

5. 결론

참고문헌

- 고영근, 『단어, 문장, 텍스트』, 1999, 한국문화사.
- 김나영, 「신종감염병에 대한 언론보도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저이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제14집 1호, 2020, 22-40.
- 김용,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의료커뮤니케이션』 제11권 제1호, 2016, 39-50.
- 김태종,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30 No.5, 2020, 457-466.
- 방영심.손달임, 「경찰청 보도자료의 구조와 텍스트성」, 『한중인문학연구』 40집, 2013, 93-127.
- 송해룡.조항민, 「국내언론의 질병 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11권 6호, 2015, 45-68.
- 안은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위험보도 프레임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유재홍, 「텔레비전 뉴스 보도문의 텍스트 구조 분석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장민정, 「신문기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대조분석: 한국, 미국, 일본의 재난뉴스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장소원, 「TV 뉴스 보도문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15권, 2003, 341-462.
- 정희창, 「TV뉴스텍스트의 국어교육적 분석」, 『한민족문화연구』 42권, 2013, 141-165.
- 주영기.유명순,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5호, 2011, 30-54.
- 최민음.정희수, 「국가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보도 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18 No.7, 2018, 22-40.

「뉴스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 분석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나타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방 영 심 (이화여대)

덕촌 양득중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

- <사직소(辭職疏)>와 <등대연화(登對筵話)>를 중심으로 -

최 윤 정 (용인대)

차례

1. 서론
2. 덕촌의 정치적 생애와 관련 작품
 - 2.1. 덕촌의 정치적 생애
 - 2.2. <사직소>, <등대연화> 개관
3. <사직소>와 <등대연화>를 통해 본 덕촌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
 - 3.1. 朋黨과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인식
 - 3.2. 蕩平과 實事求是의 추구
4.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덕촌 양득중(1665년(현종6)-1742년(영조18))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덕촌은 명재 윤증의 무실적(務實的) 학문 경향을 계승한 제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동안 학계에서의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은 『德村集』에 수록된 <사직소(辭職疏)>와 <등대연화(登對筵話)>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상소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말과 대책(對策)과 문(文)을 통틀어 하는 소통의 언로이다. 상소문은 당대 사회를 치밀하게 관찰하고,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저열한 사회를 고발하고 바로잡으려는 사실주의 또는 리얼리즘적 주제의식과 형상의식을 함의하고 있다.¹⁸⁾

특히, <사직소(辭職疏)>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관직을 사양하면서 관례적으로 서술했던 장르의 글로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이 정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시대상과 문제점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덕촌의 사직소를 통해 당대 기득권층의 전횡과 허위 의식을 고발하고 있는 그의 시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등대연화(登對筵話)>는 1729년(영조5) 1월과 1731년(영조7) 10월 임금과 덕촌이 연석(筵席)에서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당대 조정의 시책에 대한 덕촌의 견해를 살필 수 있으며, 최고 위정자인 왕 앞에서도 곳곳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친 그의 담대함을 확인할 수 있다.

18) 신두환, 「약천 남구만의 상소문에 나타난 선비 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60집, 열상고전학회, 2017, 80쪽.

덕촌 양득중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사상적 특징이나 스승 윤증과의 관련성이 논의된 정도이며, 아직까지는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영성한 편이다. 덕촌 사상에 대한 초기 연구는 1970년대 유명중에 의해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으나,¹⁹⁾ 후속 연구는 3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²⁰⁾ 초기 연구에서 덕촌의 사상은 “실사구시·이용후생·開物成務가 인간의 眞性を 드러내는 수단이요 誠이며 良知의 발현이 곧 실학이라 한 바가 독특하며, 實事求是를 양명학에 의거하여 논리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²¹⁾ 후속 연구에서는 윤증의 문인 가운데 양득중은 正直을 治亂의 기틀로 여겼는데, 양득중이 스승 윤증의 ‘진실의 공부’로 영조 임금을 直諫한 것”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²²⁾ 또한, 양득중의 학문을 ‘양명학적 실심에 기반한 실학’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의 학문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파악한 연구도 있었다.²³⁾

또한 최근에는 구체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양득중의 조포 고사 인식과 그 당대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²⁴⁾ 그리고, 『德村集』에 수록된 論說類 작품의 특징과 양상을 살펴본 논의도 진행되었다.²⁵⁾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덕촌의 <사직소(辭職疏)>와 <등대연화(登對筵話)>를 중심으로 그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당대 노론 세력이 득세하고 그들이 정치·경제·사상·문학 분야 등을 장악하면서 이에 반하는 세력들은 가차 없이 이단으로 내몰리고, 모든 분야에서 적대시되었다. 덕촌은 말년까지 왕의 천거를 지속적으로 받아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60대 이후에는 연속적으로 사직소를 제출하면서 당대 기득권층의 허위 의식과 폭력에 항거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취체제(收取體制)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실사구시의 실학(實學)을 역설하여 학문풍토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탕평책(蕩平策)의 시행으로 당대 고질적인 당파싸움을 없애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당대 소론계 문인들의 상소문 연구는 약천 남구만과 명곡 최석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도이며, 아직까지 다양한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²⁶⁾ 기존 연구는 상소문의 구성 방식이나 문예 미학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덕촌의 <사직소>와 <등대연화>에 나타난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덕촌 양득중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

19) 유명중, 「덕촌 양득중의 실학 사상-양명학과 실사구시의 절충」, 『한국학보』6, 일지사, 1977.
 20) 이상성, 「명재 윤증과 덕촌 양득중의 학문 교유고」, 『한국사상과 문화』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21) 유명중, 앞의 논문, 188쪽.
 22) 이형성, 「明齋 尹拯에 대한 後代 評價와 追崇」, 『유학연구』20집, 충남대학교유학연구소, 2009, 146-147쪽.
 23) 한정길, 「德村 梁得中 학문의 양명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陽明學』34호, 한국양명학회, 2013, 87-88쪽.
 24) 이미진, 「덕촌 양득중의 조포 고사 인식과 그 의미」, 『어문연구』1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303쪽.
 25) 최윤정, 「덕촌 양득중의 論說類 작품 연구」, 『동양고전연구』78집, 동양고전학회, 2020.
 26) 성당제, 「약천 상소문의 문예미와 현실대응」, 『인문과학』36집, 인문과학연구소, 2005.
 신두환, 「약천 남구만의 상소문에 나타난 선비 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60집, 열상고전학회, 2017.
 윤재환, 「약천 남구만의 상소문의 구성 원리와 전개 양상」, 『한민족어문학』74집, 2016.
 윤재환, 「명곡 최석정 상소문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27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8.

며, 기득권층의 정치사상적인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인물의 특징과 의의를 살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2. 덕촌의 정치적 생애와 관련 작품

2.1. 덕촌의 정치적 생애

덕촌은 뛰어난 학행과 인품으로 박세채와 남구만에게 천거를 받아, 33세인 1697년(숙종23) 정월에 효릉참봉과 사재감(司宰監) 주부(主簿)에 제수되었지만, 사은숙배하러 떠난 길에 병이 나서 다시 돌아왔다. 이 때 덕촌의 안타까운 심경은 신익상(申翼相)에게 보낸 답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이 점점 남의 입에 퍼트려져 잘못 은명(恩命)을 입게 되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몸을 이끌고 나아가 분의(分義)를 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용렬하고 허황하여 진실이 없음을 알게 하여 이 몸의 큰 후회와 허물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백리도 못가서 천질(賤疾)이 더 겹쳐 비록 힘써 나아가고자 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²⁷⁾

같은 해 8월에는 공조 좌랑(工曹佐郎)에 제수되었는데, 모친의 병환 때문에 부임하지 못했다. 일찍이 덕촌은 선생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출처관(出處觀)을 밝힌 바 있다.

“근래에 천목(薦目:관리를 천거하는 데 필요한 명목)으로 말미암아 벼슬을 받은 사람들이 오래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을 고상한 행동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지목하는 것에는 상조(常調: 관리로 선용됨)와 비상조(非常調)의 구별이 있다. 이에 안으로는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이 있고, 밖으로는 본심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음을 면치 못하니, 이것이 바로 내가 평일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안타깝게 여기는 바다. 이 때문에 반드시 분수에 따라 힘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초에 이미 신병(身病)을 지니고 있어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면하지 못하였다. 지금 또 모친의 병환으로 왕명(王命)에 나아가지 못하니 구구한 본심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고 근래의 상투적인 예로 함께 귀결되고 말았으니 한탄스럽다.”라고 하였다.²⁸⁾

덕촌은 무조건 관직을 사양하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풍토는 오히려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하였다. 본인의 분수에 맞게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건강 문제와 모친의 병환 때문에 두 번이나 놓친 안타까움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덕촌 양득중은 38세(1702년)에 부인 박씨와 사별하고, 이듬해 연안 이씨와 재혼을 하면서 공주의 덕촌으로 이사하게 된다. 이때부터 만 10년 정도 명재 윤증의 문하생으로 수학하였다.²⁹⁾ 덕촌은 42세(1706년) 7월에 회인 현감 제수되고 8월에 부임하여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관직 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44세(1706년:숙종34) 5월

27) 『德村集』年譜, 丁丑年, 正月條, “(前略)無實之名 漸播人口 誤被恩命 不知措躬 遂欲扶曳前進 以申分義 使人人知其爲庸虛無實 使此身得免於大悔尤矣 行未百里 賤疾層加 雖欲勉強自進 不可得云(後略).”

28) 『德村集』年譜, 丁丑年, 八月條, “(前略)近來由薦目而除官者 例以不仕爲高致 人之目之也 有常調非常調之別 於是不免內有自欺之心 外有違心之行 乃余平日之爲人代悶者 故必欲爲隨分陳力之計 而初既以身病 不免既發而復還 今又以親病不獲赴命 區區本心 無以自見而同歸於近來例套 可歎(後略).”

29) 이상성, 앞의 논문, 173-176쪽. ; 『德村集』, 『明齋遺稿』年譜 참조.

에 다시 사직소를 제출하게 된다. 덕촌은 이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벼슬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았다. 선생은 소장을 올려 해임을 청하였는데, 무릇 여섯 번이나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방백(方伯)의 노여움을 샀다. 이 때문에 방백이 심문할 것을 임금에게 아뢰니, 대신들이 국가에서 유신을 대우함이 문서화된 법령으로만 종사(從事)할 수 없음을 아뢰고 방송(放送)할 것을 청하였다.³⁰⁾

덕촌의 관직 생활은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여러 사건으로 정국이 수차례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1722년(경종2) 노론 4대신이 처단된 임인옥사가 일어났던 시기에, 덕촌은 58세에 세자익위사익찬을 거쳐 사어·익위 등을 역임하였고, 이후 사헌부지평, 김제 군수까지 역임하였다. 하지만, 경종 사후 1725년에 영조가 즉위하고 을사환국을 통해 노론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덕촌은 곧바로 파직하였다.³¹⁾

덕촌은 반대파인 노론으로부터는 명재 윤증의 제자라는 이유로 배척당하지만, 영조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망 속에 계속 관직을 제수받았다. 1728년(영조4)부터 1741년(영조17)까지 덕촌이 제수받은 주요 관직명과 특별 유지[別諭]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²⁾

[표1] 주요 관직명 목록

시기(나이)	관직명	내용
1728년(영조4)11월 (64세)	사헌부장령 (司憲府掌 令)	11월에 제수됨. 12월에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불허하여 드디어 경행(京行) 길을 나섬.
1729년(영조5) 1월 (65세)		사은숙배하던 날 대간의 상소를 만나 물러남. 동월에 상소하고 체직함.
同年 2월	광흥창 수 (廣興倉守)	사은숙배하고 소대(召對)에 참여함.
	종부시정 겸 춘추관 편수관(宗簿 寺正兼春秋 館編修官)	사은숙배하고 주강에 참여함.
同年 7월	사헌부장령 (司憲府掌 令)	사직소를 올렸으나 불허함. (2월~6월: 체직 상소를 올림.)
同年 윤7월	사복시정 (司僕寺正)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기한이 차서 체직함.
1733년(영조6)12월 (69세)	장령(掌令)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불허함.
1734년(영조7)3월 (70세)	사헌부 집의(司憲府執 義)	이듬해 1월에 사직 상소를 올림.
	통정대부 승정원동부	사직 상소를 올리고 4월에 체직됨.

30) 『德村集』年譜, 戊子年, 五月條.

31) 『德村集』年譜 및 『영조실록』 참조.

32) 『德村集』年譜 참조. (<사직소>, <등대연화>와 연관된 시기 관직 목록)

	승지 겸 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	
1737년(영조13)9월 73세	특별 유지 [別諭]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불허함.
1740년(영조16) 12월 (76세)	특별 유지 [別諭]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불허함.
1741년(영조17) 1,2월 (77세)	특별 유지 [別諭]	명을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고 또 소회를 덧붙여 아뢰.

영조대에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관직을 제수받고, 특별 유지를 받았지만, 덕촌은 그때마다 사직소를 올리며 자신이 出仕할 시기가 아님을 피력하였다. 『덕촌집』에 남아 있는 총20편의 <사직소>와 임금과 덕촌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등대연화>를 살펴보면, 당대 험난했던 정치적 상황과 덕촌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2.2 <사직소>, <등대연화> 개관

『덕촌집』 권1-2에는 1728년-1729년, 1730년-1741년까지 각 10편씩 총 20편의 사직소가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사직을 청하거나 소명(召命)을 사양하고, 향리로 돌아가기를 고한 것이다. 자신의 출처(出處)에 대한 명분을 밝히고, 조정과 당대 시류를 비판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총 20편의 <사직소> 가운데 주요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사직소(辭職疏)> 주요 작품 목록

권수 (작품 순서)	작품명 (저술시기)	주요 내용
권1 (1)	「辭掌令疏 戊申十二月」 (1728년 12월: 64세)	사헌부 장령으로 삼는다는 하교 사양 (경의군의 사망, 이인좌 난으로 인해 소론 세력이 대거 축출된 상황)
권1 (2)	「被彈後辭招牌疏 己酉正月」 (1729년 정월: 65세)	반대파에 내몰린 상태에서 王命에만 따라 관직에 나아갈 수 없음.
권1 (6)	「辭掌令疏 己酉」 (1729년 정월: 65세)	당대 허위의 폐단 제시
권1 (7)	「辭召旨疏 己酉」 (1729년: 65세)	당대 師生之義를 강조하는 斯文의 풍조 비판 문승(文勝)의 폐단

권2 (1)	「辭召旨疏 庚戌」 (1730년: 66세)	경순왕대비(敬純王大妃:1705~1730) 사망. 당대 유자들의 허위 풍조 비판 (1715:숙종41) 12월, 윤선거의 『가례원류』 사건 언급
권2 (5)	「辭執義疏 甲寅」 (1734년: 70세)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 조장(助長)의 비유
권2 (8)	「別諭召命疏[又辭疏] 丁巳」 (1737년: 73세)	세도의 허위 비판
권2 (10)	「又辭疏 辛酉」 (1741년: 77세)	백성들의 피폐한 현실 고발. 임금과 대신들에게 유형원의 『반계수록』 읽기를 강조함.

『덕촌집』에 남아 있는 사직소 중에 제일 첫 번째 글은 1728년 12월 「辭掌令疏 戊申十二月」은 경의군이 사망하고, 이인좌 난으로 인해 소론 세력이 대거 축출된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헌부 직책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난세에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를 강조하며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사양하였다.³³⁾

1729년(영조5)에 덕촌은 7번이나 관직을 제수받지만, 사직소를 내고 모두 사양하였다. 먼저 정월에 작성한 「被彈後辭召牌疏 己酉正月」에서는 반대파에게 내몰린 상태에서 王命에만 따라 관직에 나아갈 수 없음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辭掌令疏 己酉」에서는 당대 허위의 폐단을 제시하고 있다. 연말에 제출한 상소문에서는 당대 師生之義를 강조하는 斯文의 풍조를 비판하였다.

1730년에 제출한 「辭召旨疏 庚戌」에서는 경순왕대비(敬純王大妃, 1705-1730) 사망을 언급하였고, 당대 유자들의 허위 풍조를 비판하였다. 특히 1715년(숙종41) 12월에 일어났던 윤선거의 『가례원류(家禮源流)』 사건을 언급하였다. 이 사건은 유계와 윤선거가 같이 편찬한 책을 유계의 후손들이 유계가 단독으로 편술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 시기에 마침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분당되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주요한 분쟁요인의 하나가 되었다.³⁴⁾

덕촌이 73세인 1737년(영조13)에 제출한 <소명을 사양하는 상소>에서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당대 허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전략) 신 같은 사람이 이로부터 벼슬길을 따를 사람으로 천거되어 다행히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오직 분수를 따라 힘을 다 펼칠 것을 생각하여 외람되이 유신의 이름에 참여하여 허위 중의 한 물건의 수를 채웠습니다. 매양 뽑아 올리는 형세에 조력함을 면하지 못하여 항상 몸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슬퍼하나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이른바 마음과 자취가 모순된다고 했던 것이며 이른바 허위에 가로막힌다고 한 것입니다. 아, 옛날을 둘러보아도 일찍이 이런 세계가 있었습니까. 가탁하는 것은 성현의 의리요, 빙자하는 것은 군주의 총령(寵靈)이며, 소모하는 것은 일세의 물력이나 이것을 가지고 허위의 장으로 치달려가 하나도 허위요, 둘도 허위입니다. 해가 뜨면 나가 하는 일이 한 가지 일도 허위가 아님이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서로 이끌어 각자 문호를 경영하여 세우고 각자 그 사욕을 채워서 오직 우리 전하께서만은 얻으신 바가 전혀 없습

33) 『德村集』 권1, 「辭掌令疏 戊申十二月」 (이하 동일 문집 권수만 표기, 본고에서 인용한 원문과 번역본 텍스트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를 활용하였음.)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니다.(후략)³⁵⁾

덕촌이 자신의 관직 생활을 회고하면서 본인이 운 좋게 추천을 받아 일정 기간 정계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의 ‘허위’를 보태었을 뿐이라고 성찰하였다. 이 시기까지도 정쟁은 지속되었고, 권력자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성현의 의리’와 ‘군주의 총애’ 등은 모두 허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각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동안에 임금은 정작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직언(直言)을 하고 있다.

덕촌은 사망하기 직전인 1741년(영조17)까지도 영조의 소명을 받았다. 문집에 남아 있는 마지막 상소문에서 덕촌은 경연(經筵)에서 『주자어류(朱子語類)』보다는 유형원의 『반계수록』 읽기를 강조하여 실질을 지향했던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다음 글에서 그의 사상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전략) 경연에서 바야흐로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진강하려 한다는데 소원한 처지에서 전해들은 말이라 믿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과연 이와 같다면 또한 오늘날 급선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개 이 책은 그 문인들이 사사로이 그 가르치는 말을 들은 바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터득한 수준의 고하에 따라 말에 얽고 깊음이 있고 간간이 그 본뜻을 도리어 잃은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을 뜨이게 할 만한 곳도 모두 경전의 소주(小註)에다가 뺏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골의 한미한 선비가 이에 대하여 여사(餘事)로 섭렵하여 때때로 일깨움이 있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이 어찌 제왕이 오로지 강독할 책이겠습니까. (중략)

또 『맹자』에서 말한 “흉년과 기근이 든 해에 군주의 백성 중 노약자들이 구렁에 덩굴며 장성한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간 사람들이 수천 명이다.(凶年饑歲 君之民老弱轉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라는 한 단락과 같이, 신이 삼가 보건대 새봄 이후 바가지질 들고 유리걸식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아서 거의 없는 날이 없었고, 혹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고 온 집안이 무리를 이루었으니 신이 노년에 궁벽한 골짜기에 칩거하면서 본 것이 오히려 이와 같습니다. 이른바 안상문(安上門)에서 본 것은 백에 하나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후략)³⁶⁾

덕촌은 『주자어류』를 ‘시골의 한미한 선비가 이에 대하여 여사(餘事)로 섭렵하여 때때로 일깨움을 주는’ 정도로 평가하였고, 제왕이 강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맹자』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당대 덕촌이 목도한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였다. 본인이 칩거하면서 백성들의 피폐한 삶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인용문의 마지막 문구에서는 안상문(安上門)의 감문관을 지냈던 송(宋)나라 정협(鄭俠:1041-1119)의 고사를 인용하여³⁷⁾ 당대 조선의 현실이 유민도(流民圖)

35) 권2, 「別諭召命疏[又辭疏]丁巳」 “至如臣者 自是被薦從宦之人 幸而遭逢明時 惟思隨分陳力 而猥忝儒臣之名 得備虛偽中一物之數 每不免與有助於摠之勢 居常撫躬自悼 無處告訴 此臣所謂心跡矛盾者也 所謂魔障於虛偽者也 噫 歷觀前古 亦嘗有如許世界耶 所假者聖賢之義理 所憑者吾君之寵靈 所耗者一世之物力 而之以馳騫於虛偽之場 一則虛偽 二則虛偽 日出而作 無一事不虛偽 大小相挺 各自營立門戶 各自充其所欲 而惟我殿下無所得.”

36) 권2, 「又辭疏 辛酉」, “(前略)經筵方以朱子語類進講 疎遠傳聞 未知信否 若果如此 則亦恐非今日之急務也 蓋是書 乃其門人 私自記其所聞誨語 隨其人之所得之高下而語有淺深 間有轉失其本意者 其中之開眼處 亦皆抄入於經傳中小註 是以韋布之士於此 不過餘事涉獵時有警發而已 是豈帝王專事講讀之書耶 (中略)又如孟子所謂凶年饑歲 君之民 老弱轉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一段 臣伏見開春以後 持瓢而流丐者 絡繹不絕 殆無虛日 而或有扶老携幼 闔家成羣 以臣之老鰥窮谷 而目見猶如此 所謂安上門所見 百不及一者也(後略).”

37) 『宋史』 卷321 <鄭俠列傳> (작품 해제 재인용)

에 그려진 송나라 때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함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덕촌의 상소문은 의례적인 투식 문구보다는 본인이 관찰하고자 하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다. 당대 기득권층의 전횡이나 정계(政界)와 정책의 문제점 등과 같은 논의가 많은 점도 이러한 특징에 기인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나 비유, 고사(故事)의 인용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서술하는 수법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특히, 임금을 직접 만나 논의를 한 <등대연화>의 내용이 상소문과 연결되어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대연화>는 『덕촌집』 권3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1729년(영조5) 1월과 1731년(영조7) 10월 연석(筵席)에서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덕촌은 <등대연화>에서도 당대 조정의 실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통해 조정의 폐단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등대연화>에는 영조와 덕촌의 대화 내용이 현장감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내용은 1729년(영조5) 1월 14일에 덕촌이 광흥창 수(廣興倉守)가 되어 인견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덕촌은 “춘궁 저하(春宮邸下)의 발인 때를 기다려 곡반(哭班:국상(國喪) 때 궁중(宮中)에 모여 우는 관리(官吏)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고 돌아가려 하였는데, 뜻밖에도 갑자기 또한 벼슬을 내리셨기 때문에 감히 숙배하고, 이어서 소대(召對)할 때에 함께 들어오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외람되이 들어왔습니다.”³⁸⁾라고 밝히고 있다. 이때 덕촌은 연석에서 탕평과 양역(良役), 화폐 개혁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임금과 논의를 하였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펼쳤다.

같은 해 2월 5일에 종부 정(宗簿正) 겸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으로 이배(移拜)되었다. 2월 7일에는 옥당 윤동형(尹東衡)·윤광익(尹光益)과 아울러 춘추관 신몽필(辛夢弼)·허집(許集) 등이 입시하였는데, 윤동형이 임금께 유신(儒臣)에게 명을 내려서 문장의 뜻을 강설하도록 청하였다. 이에 덕촌은 옥당(玉堂)의 인재들이 곧 유신(儒臣)이라고 하며, 자신이 옥당을 대신해 강의를 할 수는 없다고 사양하였다. 또한, 맹자의 조장설(助長說) 언급하면서 임금께 탕평에서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勿正勿助長’ 문구를 강조하여 인용하기도 하였다.

<등대연화>에서 덕촌은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법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 다음은 ‘허위의 풍조’에 대한 예시문이다.

이른바 허위의 풍조라는 것을 신은 그 실상을 들어 실증해 보이겠습니다. 신이 시골에 있을 때 몸을 전야(田野)에서 감추었는데, 본읍(本邑)의 태수와 감사가 교체되어 오고 갈 때에 모두 그들의 성명이 아무개가 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어느 태수와 어느 감사의 때인지 알 수 없지만, 대강 계사년(1713, 숙종39)·갑오년(1714)·을미년(1715)·병신년(1716)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감사가 선정을 하여 이름을 얻고, 또한 학교를 일으키려는 일을 하고자 절목(節目)을 장지(壯紙) 몇 장에 열거하여 민간에 반포하고, 이어서 한 면(面)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훈장(訓長)으로 삼아 면의 배우려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신이 거처한 면에서는 최주극(崔柱極)을 훈장으로 정했는데, 이른바 최주극은 동네에서 편지를 쓸 만한 사람으로 겨우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약간의 학식이 있다 해도 한 면(面) 수십 마을의 배우려는 아이들이 친히 가

38) 권3, <登對筵話>, “春宮邸下遠日迫近 竊欲低徊郊外 以待發朝時參哭班而歸矣 忽於千萬意外 又有除命 故敢爲肅拜 而繼而有召對時同入之命 故敢此冒昧入來矣.”

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한 그를 집으로 초청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었으니 이것을 장차 어찌해야 합니까. 다만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유생(儒生)의 옷을 입고서 군(郡)으로 들어간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여 2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방백의 선정은 '근래에 드문 것으로 그중에서 학교를 흥기한 한 조목은 더욱 보기 드문 일이다.'라고 말을 하니,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허위의 일이 있겠습니까.(후략)³⁹⁾

이 일화에서는 어느 지방관이 자격 없는 최주극 같은 이를 훈장으로 선발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게 한 일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오히려 학교를 흥기시킨 방백(方伯)의 선정(善政)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리 거창하거나 중요해보이지 않은 일일수도 있지만, 허위의 풍조가 사소한 일에서도 만연해 있음을 시사해준다.

<등대연화>의 두 번째 내용은 1731년(영조7) 임금의 명에 따라 입시(入侍)했을 때의 일이다. 이때 덕촌은 자신에게 계속 벼슬을 내리는 임금에게 더이상 천거하지 말도록 간곡하게 청하였다. 그리고, 스승인 명재 윤증이 사직한 이유를 인용하며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였다. 명재 윤증은 81세 때인 1709년(숙종35) 봄에 우의정을 제수받았는데, 이때 자신이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이유를 제자인 덕촌에게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나의 출처(出處)는 일찍이 그대에게 말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내가 당초에 벼슬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정축년(1697, 숙종23)에 나의 어머니가 강화도(江華島)에서 죽은 이후에 나는 지극한 고통을 떨 곳이 없어서 오직 죽을 때까지 산림에서 세상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소한 도의(道義)를 약간 붙일 뿐이었다. 내가 기유년(1669, 현종10) 봄 사직 상소하다가 나의 본 뜻을 다 말했으니, 드러내지 못한 뜻이 다시는 없었다. 나는 이때 이미 40세를 지나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나 성상과 조정이 어찌 미천한 신하의 본뜻이 따로 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불러들이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어찌 민박(閔迫:애를 태워 매우 답답함.)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음을 그치지 아니하여 제목(除目 관원의 인사 기록 문서)을 욕되게 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사직 상소를 올리지는 않은 해가 없었다. 소사(疏辭)는 한 가지 견해만 취하여 중언부언(重言復言)했으나 관작(官爵)은 해마다 제수되고 해마다 옮겨짐이 점점 더 심해져 문득 치사(致仕)하려는 해에 이르자 엄연히 재상의 높은 지위까지 오르니,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장차 40세의 직분에 따라 진력해야 하는 날에도 상당직(相當職)의 명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치사(致仕)할 기한이 넘어 벼슬이 높은 지위에 이른 다음에 비로소 곧바로 일어나 몸을 드러내어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이며,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치이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 분명히 아는 바인데, 조정에서는 늘 불러들일 의향으로 상전(上前)에 아뢰고, 유생(儒生)이라면 한층 더한 돈유(敦諭 임금 유학자에게 권면하는 말)로 기필코 불러들이고야 말겠다는 뜻의 봉장(封章)을 분분히 하니,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허위의 일이 있겠는가.(후략)⁴⁰⁾

39) 권3, <登對筵話>, “(前略)所謂虛偽之風 臣請舉其事以實之 臣之居鄉 埋身田野之中 本邑太守及監司之交遞來往者 皆未知其姓名之爲某 臣未知何太守何監司之時 而大抵是癸巳甲午乙未丙申年間事也 其時監司以善治得名 而又欲爲興學校之舉 列書節目於壯紙數張 頒布民間 因就一面中擇定一人爲訓長 以教其面學子 臣之所居之面 以崔柱極定爲訓長 所謂崔柱極 洞內書尺 廬能通情之人也 假使稍有學識 而一面數十村學子. 不可親往教之. 亦不可招來其家而教之. 其將如之何哉. 只是朔望則被章甫之服而入郡 飲一杯酒而歸矣 如此如此 以過二年 而人皆言此方伯之善治 近世所罕 而其中興學校一款 尤是鮮觀之事云 人世豈有如許虛偽之事乎(前略).”

40) 권3, <登對筵話>, “吾之出處 不曾向君說 到今當爲君言之 吾之當初不仕 非有他也 丁丑年 吾母死於

명재 윤증은 부친 윤선거의 ‘강도지사(江都之事)’와 어머니의 ‘순절’ 문제로 평생 출사하지 않았다. 명재의 부친과 관련된 일은 정치사적으로는 노소분기(老少分岐)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명재는 계속 사직소를 제출했지만, 40대부터 제수받은 관직은 점차 더 높은 직위로 80대까지 이어져 명이 내려왔다. 명재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허위’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스승인 명재 사후(死後)에 덕촌이 당대에 직면한 상황도 이와 유사하였다. 벼슬을 그만두어야 하는 나이인 65세 때(1729년)에 왕의 명에 응하여 등대(登對)하고 돌아온 때로부터 계속 소명(召命)이 잇달았고, 별유(別諭)가 자주 내려다. 덕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였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 왕을 뵈기를 청한 것이었다. 직명(職名)도 없이 상경한 자신의 본의를 의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전략) 이것은 참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일찍이 함장(函丈 윤증)과 회천(懷川 송시열)의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니, 본직과 겸직을 사직한 바 아울러 체직을 허락하면서 소지(召旨)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두 신하를 대우함이 예의상 어찌했는데, 그 즐겨 맹랑한 일로 시행했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임시방편의 마땅함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할 뿐이지 나머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단정(斷定)하고서 상경했습니다. 상경한 다음에 여삼(汝三) 임석헌(林錫憲)을 만나보고는 지금 조정이 예의로 못 사람들을 부른 것은 원래 유자(儒者)를 높이는 의례적 형식이지 그 의도는 본래 반드시 올 것을 기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중(自重)의 도리가 있거늘 지름길로 먼저 상경하니,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나는 당시의 새로운 의리를 알지 못하고, 소명이 실사(實事) 때문이라 생각하여 본의를 펴려고 상경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정(世情)을 알지 못한 소치에 불과하지 조정의 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유년 봄 등대 때로부터 발단이 된 다음 지금에 이르도록 장소(章疏)의 사이에서 간절히 한 것은 다만 허위의 견해이니 나의 지금 행동도 이러한 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와서 모순되게도 마침 스스로 허위의 소굴에 빠져서 도리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허위의 폐단이 궁극에 말한 것을 발명한 것으로 인하여 거의 성심(聖心)을 격려 진발(振發)하는 단서가 있고, 조정 사람들도 혹시 한두 사람의 깨우침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후략)⁴¹⁾

江都之後 吾之至痛 無處可伸 惟其沒齒丘壑 與世不相干涉 爲可以少寓咫尺之義耳 吾之己酉春辭疏 說盡吾之本情 更無餘蘊矣 吾於此時 已過強仕之年 而士生於世 不仕無義 聖上與朝廷 豈不諒微臣本情之有在 而一向收召不已 豈不悶迫乎 如此不已 無歲不忝除目 無歲不上辭疏 疏辭則但將一說 重言復言 官爵則年除歲遷 漸漸層加 奄及致仕之年 而儼然於卿宰之崇班 世豈有如此之事乎 方當強仕之季 隨分陳力之日 一不應命於相當之職 年過致仕之限 官至崇班之後 始乃起而爲出身事主之人 古今天下 寧有是理 寧有是事 此乃必無之理 必無之事 人人之所共明知 而朝廷則每以收召之意 白于上前 章甫則以益加教諭 必致乃已之意 封章紛紜 世豈有如此虛僞之事乎.”

41) 권3, <登對筵話>.(前略)此則誠然矣 但曾見函丈及懷川辭疏之批 則所辭本兼之職 并許遞免 而召旨則不收 當時朝廷之待兩臣 禮意爲如何 而其肯以孟浪之事而施之耶 此必有臨時之宜耳 吾則爲吾所當爲之事而已 餘非吾所知也 如此斷定于心 因上來 上來後逢見林汝三 錫憲 則以爲卽今朝廷之禮召諸人 自是崇儒之例規 而其意本不期其必來也 況在被召者自重之道 徑先上來 豈不重大乎 (중략) 乃吾不知當世之新義理 而以召命爲實事 故欲伸分義而上來 此不過吾之不識世情之致 非朝廷之過也 然而吾之自己酉春登對時發端之後 迄今惓惓於章疏之間者 只是虛僞之說 吾之今行 亦欲陳此一說而已 而吾之今來撞著適自陷於虛僞窠窟 轉動不得 正宜因此發明虛僞之弊至於此極 則庶幾聖心有所激勵振發之端 而朝廷之

덕촌에게 계속 별유와 소장을 내린 임금의 명령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면, 덕촌은 그 소명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상경하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본인의 이러한 행동이 반대파 이들에게 오히려 비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용감하게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3. <사직소>와 <등대연화>를 통해 본 덕촌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

3.1. 朋黨과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인식

주지한 바와 같이 덕촌의 관직 생활은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여러 사건으로 정국이 수차례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1725년에 영조가 즉위하고 을사환국을 통해 노론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덕촌은 곧바로 파직하였다. 이 일에는 정언 한덕전(韓德全)이 덕촌이 관직에 있을 때 청렴하지 않았다고 상소하여 무함(誣陷)한 일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영조는 이미 덕촌의 성품이 꾸밈없이 질실(質實)한 것을 알고 있었고, 덕촌이 윤증의 문하생이었던 것이 빌미가 되어 갑자기 탐장(貪贓:벼슬아치가 재물을 탐하는 행위나 불법적으로 모은 재물을 지칭함)의 죄를 입었다고 파악하였다.⁴²⁾

반대파인 노론으로부터 배척당하는 덕촌을 영조는 끊임없이 신뢰하며 관직을 제수하였지만, 덕촌은 자신이 나아갈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속 사직을 청하였다. 특히 덕촌이 65세 때인 1729년(영조5)에 그는 7번이나 관직을 제수받지만, 사직소를 내고 모두 사양하였다.

이때에 사간 이세진(李世璉)이 “집의 박필주(朴弼周)와 장령 양득중(梁得中)은 동궁의 상변(喪變)을 당하여 제수된 지 여러 달이 지나도 한결같이 물러나 있으니 청컨대 그 직임을 체차하시어 깨우치고 질책하는 뜻을 보이시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영조는 덕촌을 체차하지 않고, 오히려 당일에 이세진을 삭탈관직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당대 정치가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략) 유자의 풍모가 세진 때문에 추락하였다. 사람을 욕되게 하고 유자를 모욕함이 지극하니 더욱 놀랍고 한탄스럽다. 아침에 숙배단자를 살펴보니 헌신이 상경함을 알고서 마음이 심히 기뻐다. 근래에 남대(南臺)에서 승명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뜻을 바꾸어 상경하였다. 처음의 사직 소에 곧바로 대간의 이름을 썼으니 유신으로 자처하지 않고 질실(質實)에 힘쓰는 너무 가상하다. 그리고 끝내 상경하였으니 속태(俗態)에 초연한 자이다. 특별히 소대(召對)를 명하고 또 인견하고자 하노라. 세진의 상소에 하는 말을 보건대 나도 모르게 놀랍고도 통탄스럽다. 대간의 직임(職任)을 모면하고자 가히 놀랄 말을 극히 하여 상경하는 유신을 맞받아 친 것이다. 말습을 책려하며 대각을 진작하는 도리에 있어서 체차에 그칠 수만은 없다. 전 사간 이세진을 삭탈관직하라.” 고 하였다.⁴³⁾

영조는 덕촌의 질실한 인품을 익히 알고 있었고, 승명한 신하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덕촌이 자신의 뜻을 바꾸어 상경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남대(南臺)는 조선 시대에 학식과

人 亦或有一二開悟之望矣(後略).“

42) 『德村集』年譜, 乙巳年, 四月條.

43) 『德村集』年譜, 己酉年, 正月條, “(前略)儒者之風. 緣世璉而墜矣 其辱士林侮儒者極矣 尤可駭歎 朝觀肅拜單子 知憲臣上來 心甚喜焉 近來南臺無一承命者 而幡然上來 初觀辭疏 直書臺名 已嘉不自處以儒臣 務乎質實 而未乃上來 超乎俗態者矣 特命召對 方欲引見 觀世璉疏語 不覺愕然駭歎 欲避諫職 以極可駭之言 迎擊上來之儒臣 其在勵末習振臺閣之道 不可遞差而止 前司諫李世璉削奪官爵.”.

덕행이 있어서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사헌부의 장령이나 지평에 추천된 사람을 일컫는다. 진실한 유신(儒臣)을 폄하하는 이세진을 체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삭탈관직을 한 것은 당대 정치가들에게 경계하여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 일로 덕촌은 자신의 허물을 탓하는 상소를 다음과 같이 올렸다.

(전략) 신은 세 조정을 거친 퇴물로 망극하게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서 다만 비천한 정성을 간절히 할 따름입니다. 혹시나 이로 인하여 마음속의 회포를 다 쏟아내어 비루한 말이 채택되기를 바라오니,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구구한 정성이 조금이라도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마음의 간절함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간신(諫臣)들이 신의 죄를 논하여 전하께 상달(上達)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신이 병 때문에 지체하여 간신들이 실상을 체량(體諒)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죄는 실로 신에게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전하께서는 도리어 노여움을 간신에게 가하시어 지나친 처분이 내리시기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신의 죄는 여기에 이르러 더더욱 용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략) 신은 이미 공의(公議)에 논척(論斥) 받았으면서도 분별없이 명에 응한다면 실로 이는 의리로나 분수로나 절대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바입니다. 원래 신이 올라온 본뜻은 다만 전하의 용안을 한 번 우러러보고 미천한 충심을 우러러 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직명(職名)에 몸이 매인 까닭에 전하께 나아갈 길이 막혀 부득불 상소를 올리고 황급히 물러갑니다.(후략)⁴⁴⁾

덕촌은 임금에게 자신을 체차하도록 상소한 신하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이 옳은 말을 하였고, 자신이 처신을 잘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자신의 일 때문에 이세진을 삭탈관직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공식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관직에 나아가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비답(批答)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본의를 밝히고 있다.

(전략) 이제 이세진을 처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도 역시 그 벌과 죄명이 과중한 줄은 알고 있다. 공자 같은 성인으로도 문제자에게 그 유폐(流弊:전해 내려오는 폐단이나 사회에 널리 유행하는 나쁜 풍속)를 염려하여 책하시기를 매우 엄하게 하였으니 성인의 뜻을 대강 알 수 있다. 아, 국가가 산림지사(山林之士)를 대하는 도리가 곧 형식만 갖추어 당습(黨習) 이래로 피차를 따져 가르며 기상이 아름답지 못하여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세진의 이 말은 비록 무식에 가까우나, 그 유폐에 이르러서는 혹 '산림의 선비도 역시 신자(臣子)이거늘 어찌 감히 이 같이 나오지 않고 버틸 수 있으리오.'라고 한다. 뒷자리에 있는 자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고 뒷사람도 그 말을 믿고 받아들여 경시하는 뜻을 낸다면 암혈의 선비가 그 누가 즐겨 조정에 달려오려 하겠는가. 이는 현자가 오는 문을 막는 것이니 그 유폐를 어찌 다 말하리오. 내가 이세진을 심히 다스린 이유는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요, 후일 소인들이 현인을 참조하는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다. 처분한 후에 우선 그대의 직책을 체차하고 진신(進身)의 길을 편안히 하여 위로하고 타이름을 보이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그대의 상소를 보니 더욱 놀랍구나. 이미 생각하고서 미처 하교치 못하여 그대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였으니 이도 역시 나의 성의가 열음이라. 세진의 상소의 말은 그 사람의 허물도 아니다. 참으로 내가 이와 같이 정성이 열기 때문이라 개탄해 마지않는다.(후략)⁴⁵⁾

44) 『德村集』, 권1, 「被彈後辭召牌疏 己酉正月」“(前略)臣以三朝舊物 受恩罔極 未有圖報之階 徒切獻芹之忱 儻或因此罄盡肝膈之懷 以祈芻蕘之擇 則區區願忠之誠 庶可以少伸矣 愚心耿耿 實在於此 今者諫臣論臣之罪 上達天聽 此實由於臣之疾病淹滯 以致諫臣之不諒實狀 罪實在臣 彼則何辜 而殿下反加威怒於諫臣 至有過當之處分 臣罪至此 尤萬萬難贖矣 (中略) 臣既見斥於公議而冒沒應命 實是義分之萬萬所不敢出也 原臣上來本意 只欲一望天顏 仰達微衷 而只緣職名在身 天陛路阻 不得不陳疏徑退(後略).”

45) 『德村集』 年譜, 己酉年, 正月(同月)條,“(前略)今茲處分李世璉者無他 予亦知其罰名之過重 而以孔子

이 일은 당대 정치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림의 인재를 왕이 등용하려 하여도 반대파의 비방과 알력으로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조는 ‘소인들이 현인을 참조하는 폐단’이 심했던 당대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계를 하고자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덕촌은 당대 정치 현실의 가장 큰 문제로 ‘허위의 풍조’를 지적하였고, 그의 많은 작품에서 이를 직접 거론하였다. 1729년(영조5) 2월 <등대연화>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난다.

(전략) “신은 선비의 직분에 대한 견해를 아뢰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비는 농민과 구별되지 않으니 이른바 선비는 농민에 포함됩니다. 선비의 직분은 밭이랑 사이에서 복종하고 섬겨서 육체 노동을 제공하고, 경전을 송독(誦讀)하여 수기치인의 도를 강론함으로 그 행신(行身) 절도(節度)가 출(出)과 처(處) 두 길뿐입니다. ‘궁하면 그 몸을 홀로 선히 하고, 영달하면 천하를 겸하여 선하게 하는 것이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고 한 것이 곧, 행신절도입니다. 오늘날의 선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고, 가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며, 또한 독서와 강학의 일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오랜 시간 다른 일에 분주합니다. 신이 시골에 머무를 때 일찍이 문밖을 나간 적이 없다가 때때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되면, 그들이 마주보고 지껄이는 이야기는 사문(師門)의 일과 봉소(封疏)의 일 아닌 것이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당론(黨論) 속 다른 사람의 집을 험담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의리를 말하고 문자를 논의하는 이야기를 일체 듣지 못하였으니 신이 평소 눈으로 본 것은 실로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무릇 말하고 침묵하는 예절에서 비록 동등한 관계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도 감히 억양이 있거나 실상에 지나친 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지금 임금에게 의견을 말씀드림에 감히 억양의 몸가짐을 짓겠습니까. 이것은 대체로 참다운 지경을 본떠서 한 부분도 실상에 지나친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이와 같은지라 상하가 선동하여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버려둔 채 다른 일에 분주합니다. 허위의 풍조는 오래된 습관으로 편안해져 구르고 또 굴러 명리(名利)의 터가 되어서 성상을 속이고 사리(私利)를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 이르지 않은 곳이 없되 괴이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평소 분개했던 것이나 어느 곳에서도 입을 열 수가 없었으니, 지금 성상의 앞에서 아니한다면 어디에서 입을 열겠습니까.”(후략)⁴⁶⁾

덕촌은 임금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당대의 풍조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선비의 원래 직분인 ‘행신절도(行身節度)’에는 ‘출(出)과 처(處)’ 두 길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당

之聖 於門弟子 慮其流弊也 責之甚嚴 聖人之意 槩可見矣 噫 國家待山林之道 便成文具 而自夫黨習以來 曰彼曰此 氣象不佳 心竊痛之者 世璣此言 雖近無識 其流弊也 而或曰山林之士亦臣子也 豈敢若是惑在上之心 而在上者信聽其言 生其輕視之意 則巖穴之士 誰肯赴朝 是杜賢者之來門也 其流弊可勝言哉 予之所以深治李世璣者 非爲爾也 防後日小人譖賢人之弊矣 處分之後 姑遞爾職 安爾進身之路 而欲見慰諭 今觀爾疏 尤切愕然 既思而未及下教 使爾先往 此亦予誠淺矣 世璣疏語 非渠過也 良因予若是誠淺故也 慨歎不已(後略).”

46) 권3, <登對筵話>, “(前略)臣請白士之職業之說 我國土與農無別 所謂士藏於農也 士之職業 則服事畝畝 以供力役 誦讀經傳 講修己治人之道 而其行身節度 則出與處二途而已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乃其行身節度也 今世之所謂士者 不知有其身有其家 又不知有讀書講學之事 而長時奔走於他人之事 臣之居鄉 未嘗出門外 而時或因事出往人家 則其偶語巷談 無非師門事封疏事 不然則黨論中人家釁咎事而已 一不聞說義理論文字說話 臣之平日目見 實所痛心 凡語默之節 雖於敵以下 亦不敢有所抑揚而爲過實之語 況今進言於君父 而敢爲抑揚之態乎 此蓋摸寫真境 無一分過實之語也 惟其如是 故上下煽動 棄其業次 舍自己身心而奔走於外事 虛僞之風 積習恬安 輒轉作名利塗場 以至於誣上行私 無所不至而莫之爲怪 此臣之居常慨然 而無處可以開口 今不於聖上之前而何處開口乎(後略).”

대 선비를 자칭하는 이들은 독서와 강학에 몰두하지 않고, 사문(師門)과 당론(黨論)의 일로만 분주하였다. 허위의 풍조가 오래도록 답습되고 ‘명리(名利)의 터’가 되어서 임금을 속이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덕촌은 당대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개인 문집에만 남긴 것이 아니라, 임금 앞에서 직접 언급하는 강개함을 지닌 선비였다.

이 문제는 <사직소>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사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략) 허위(虛僞)의 풍조에 대한 설(說)로 말하자면, 이른바 허위와 문승(文勝)은 다름이 있습니다. 문승이라는 것은 문이 바탕을 지나쳐서 문채와 바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위라 하는 것은 문이 그 바탕을 멀하여 그 문과 더불어 허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동(大同)의 풍속을 보면 입에는 의리의 담론이 끊이지 않으나 의리가 껌껌하게 딱 막힘이 이때만 적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반드시 염우(廉隅:염치)를 일컬으나 염치의 도리가 상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명호(名號)를 칭탁하면서, 현란하고 장황하게 하여 뒷사람을 속이고 사욕을 자행하는 일이 이르지 않음이 없습니다. (중략)

그러나 풍속을 말하자면 수십 년 전을 미루어 헤아려 보건대 과거 시험장에서 대신 답안을 작성해주고 대신 활을 쏘아 주는 행위가 전혀 없거나 극히 적었고 또한 모두 깊이 숨기고 굳이 꺼리어 오직 남들이 알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밤낮으로 먹고 숨 쉬듯하면서 혹 힘써 스스로 과장하기도 하여 사대부의 풍도(風度)로 여깁니다. 벼슬길에 나선 시초부터 이미 스스로 이러하니 그 후의 몸을 행함은 따라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우(祠宇)와 서원(書院)이 첩첩이 쌓임에 설립한 연조(年條)가 바뀌고 원생(院生)과 보노(保奴)가 이름을 바꾸어 유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면 서 오히려 군주를 속이는 것을 일삼으니 그 나머지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몇 가지 일로써 보면 지금 세상에 대동의 풍속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후략)⁴⁷⁾

<2> (전략) 오륜(五倫)에는 사생(師生)의 항목이 없습니다. 사생은 본래 붕우(朋友)의 윤리에 있었는데 지금 세상에는 붕우는 없고 사생은 있습니다. 이미 사생을 정한 후에 동문의 의를 강구하여 이를 가리켜 동지(同志)라 하고 이를 칭하여 붕우라 합니다. 그 소위 제자 운운하는 것도 선릉효자(宣陵孝子)의 부류와 견줄만한 것이 많습니다. 만일 식면(識面)의 분수가 있어서 사생(師生)이라 이름 하면 참으로 불가할 것이 없겠지만,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에 이르러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사문(斯文: 유학, 유학자) 두 글자로 포섭하니, 이것이 무리를 규합하는 기틀입니다. 이미 이 기틀로 무리를 규합하고 또 사우와 서원을 지어 연수(淵藪:여러 사물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를 삼습니다. 연수가 있는 곳에 도망친 자들이 모여드는데 국가에서는 또한 이를 관대하게 대해주고 남달리 총애하여 그 세력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명호를 무릅쓰고 우리 유자의 의리를 빌리며, 전하의 은총을 빙자하고 전하의 재물을 훔쳐 현란하고 장황하게 뒷사람을 속이고 사욕을 자행하여 각자 문호를 경영하여 세웁니다. 전하의 나라가 깎이고 약해짐은 불이 기름을 태워 없애는 것과 같아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후략).⁴⁸⁾

47) 권1, 「辭召旨疏 己酉」, “(前略)則所謂虛僞與文勝有異 文勝云者 文勝於質而不能彬彬也 虛僞云者 文滅其質 而并與其文而歸於虛僞也 目今大同之俗 口不絕義理之談 而義理晦塞 莫此時若 言必稱廉隅 而廉恥道喪 未有甚於今日 虛冒名號 眩曜張皇 誣上行私 無所不至(中略)而以言乎風俗 則退計數十年前 科場之代作代舛 絕無而僅有 而亦皆深秘固諱 惟恐人知 今則有若食息於日夜 至或務自誇張 以爲士夫之風度 發跡之初 已自如此 其後行身 從可知矣 至於祠宇書院之豐設年條移易 院生保奴換名 以儒林矜式之地 而猶以欺君爲事 則其他尙何言哉 以此數事而觀之 則今世大同之俗 亦可想矣(後略).”

48) 권1, 「辭召旨疏 己酉」, “(前略)五倫無師生之目 師生本在朋友之倫 而今世無朋友而有師生 既定師生之後 因講同門之義 指之謂同志 稱之以朋友 而其所謂弟子云者 類多宣陵孝子之比 苟有識面之分 則名之曰師生 固無所不可 而至於面不相識 無可柰何 此所以必以斯文二字而包之 此乃糾合儔黨之機括也

두 편의 사직소는 모두 1729년(영조5)에 덕촌이 작성한 것이다. <1>에서는 ‘문승(文勝)’과 ‘허위(虛僞)’의 개념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당대의 풍조가 단순한 ‘문승(文勝)’의 상태가 아니라 바탕과 본질을 잃은 ‘허위(虛僞)’의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큰 세력이 규합하여 ‘대동(大同)’과 의리를 강조하지만, 결국 명목만을 내세운 담론임을 비판하였다. ‘사우(祠宇)와 서원(書院)’을 중심으로 동일 세력끼리 규합하면서 군주를 기만하는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2>에서는 당대의 붕당(朋黨)이 오륜(五倫)에도 없는 ‘사생(師生)의 의리’를 위주로 형성되었음을 개탄하였다. 사생(師生)은 본래 붕우(朋友)의 윤리에 있었는데, 당대에는 진정한 붕우는 없고 사생 관계만을 따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사문(斯文:유학, 유학자)’을 절대화된 이념으로 삼아 무리를 규합하는 기틀로 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파당을 지어 알력을 빚어내는 흠을 가하여 점차 서로 숭상하고 점차로 서로 격려하면서, 강구하는 바는 사생(師生)의 의리요, 일삼는 바는 변무(辨誣)”라고 비판하였다. 덕촌이 이러한 논리를 펼 것은 당대 노론과 소론이라는 양극단으로 분리된 정치 세력이 끊임없는 갈등 상황을 조장하고, 정국이 수차례 뒤바뀌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통탄한 것이다.

덕촌은 다음 사직소에서 ‘老/少’ 갈등이 심화된 계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전략) 지난 을미(1715, 숙종41)·병신(1716, 숙종42) 연간에 소위 사문의 일로 진신(摺紳:벼슬아치)·장포(章浦:유생이나 선비)들의 분파(奔波)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서로 모방하여 그 본분을 버렸으나, 전하께서 임어(臨御:임금이 그 자리에 임함)하신 후 마땅히 미루어 조정에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한 말씀으로 하교하시니 일시에 안정이 되어 모두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시에 이르기를, “나는 밝은 덕의 소리와 색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의 과화존신(過化存神:군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변화가 일어남의 신묘함이 여기에서 더욱 징험되니 세도(世道)를 만회하는 기틀이 진실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⁴⁹⁾

이는 1730년(영조6)년에 제출한 소지를 사양하는 상소이다. 유계와 윤선거가 같이 저술한 『가례원류(家禮源流)』는 윤선거의 아들인 윤증이 죽은 이듬해인 1715년 다시 한번 조정에 회니시비(懷尼是非)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윤증이 유봉정사에서 죽은 지 2년 뒤인 1716년(숙종42) 숙종은 노론의 손을 들어주는 이른바 병신처분(丙申處分)을 내리서 윤선거 문집의 목판을 깨버리고 윤증 부자의 관작을 삭탈하게 하였다. 윤증 부자의 관작은 소론 정권이 일어서는 1722년(경종2)에서야 다시 회복되었다.⁵⁰⁾

덕촌 양득중은 윤증의 제자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로 평가되며, 윤증의 務實的 학문 경향을 제대로 계승하였다고 파악된다.⁵¹⁾ 그가 반대파의 공격을 받았던 이유도 이러한

既以此機括糾合儔黨 而又有祠宇書院爲之淵藪 淵藪之所在 通逃之所萃 而國家方且假借之寵異之 以助成其勢 於是冒吾道之名號 假吾儒之義理 憑殿下之寵靈 盜殿下之錢財 眩曜張皇 誣上行私 各自營立門戶 而殿下之國之削弱 如火銷膏而人不見也 可勝嘆哉(後略).”

49) 권2, 「辭召旨疏 庚戌」, “(前略)向者乙未丙申年間 以所謂斯文事 摺紳章浦之奔波極矣 轉相倣效 棄其業次 而殿下臨御之後 以不當推而上之朝廷之上 一語下教 則一時妥帖 都無事矣 詩云予懷明德 不大聲以色 聖人過化存神之妙 於斯益驗 而世道挽回之機 豈不在他矣(後略).”

50)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176-193쪽(고영진, 「명제 사상의 형성 과정과 한국사상사적 위치」, 『무실과 실심의 유학자 명제 윤증』, 청계, 재인용, 2001, 29쪽)

51) 이상성, 「명제 윤증과 덕촌 양득중의 학문 교류고」, 『한국사상과 문화』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173-176쪽.; 이형성, 「明齋 尹拯에 대한 後代 評價와 追崇」, 『유학연구』, 20집, 충남대학교

사승(師承) 관계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한 개인으로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당파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의 제자인지가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당대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덕촌이 본인이 정계에 나아가야 할 때에 기꺼이 출사(出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식을 지녔으면서도, 막상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3.2. 蕩平과 實事求是의 추구

정치적 알력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덕촌은 반대파를 무조건 비방하거나, 자신의 당파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蕩平’과 ‘實事求是’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당대의 부조리에 맞서나갔다. 이 두 가지는 덕촌이 임금을 직접 만났을 때 기록인 <등대연화>에서도 강조한 사안이었고, 사직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다음 사직소를 통해 당대 정치계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략) 몸이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인하여 마침내 침묵하고 말이 없는 것은 끝내 신의 마음이 감히 안주할 바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고설(瞽說)을 아뢰오니 오직 성명(聖明)께서 마음을 두고 재량(裁量)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삼가 성교(聖敎)를 읽어보니 말씀하시기를, “내 신감(辛甘)을 조제(調劑)하여 붕당의 고질적인 폐단을 깨뜨려 없애고자하나 조정에는 아직 인협(寅協)의 기대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하늘은 사사롭게 덮어주지 않고 땅은 사사롭게 실어주지 않고, 해와 달은 사사롭게 비춤이 없습니다. 우리 성상(聖上)의 지공무사(至公無私)한 마음을 못 신하들 중 누가 천지처럼 덮고 실어주며 일일처럼 비추어줌과 같이 여겨 우리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오늘의 탕평(蕩平) 두 글자로 곧 목전의 표방(標榜)을 삼고, 또 장차 이 표방에 반하여 다시 별도로 한 색목(色目)을 지어내었으나, 전석(前席)에서는 가(可)만 있고 부(否)는 없었으며, 조정에서는 뇌동(雷同)은 있고 가부(可否)의 쟁론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거의 장주(莊周)의 제물(齊物)에 가깝게 되어 곁에서 보는 자들에게서 조정(調停)한다는 비난이 있고 식자들이 깊이 우려하기에 이르러서 대개 끝내 어디에 머물게 될 지 모르니 어찌 탄식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후략)⁵²⁾

이 글은 앞서 살펴본 1730년(영조6)년에 제출한 <소지를 사양하는 상소>의 전반부의 내용이다. 덕촌이 인용한 영조의 교지(教旨)에서는 『서경』의 문구를 인용하며 당대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신감(辛甘)을 조제(調劑)’ 한다는 것은 『서경』 <군석(君奭)>편 집전(集傳)에서 “대신의 지위는 온갖 책망이 모이니 진감(震撼)하고 격당(擊撞)함을 진정시켜야 하고 맵고 달고 건조하고 습함은 조화하여야 한다.”⁵³⁾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하였다. ‘조제’는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협(寅協)’은 『서경』 <고요모(臯陶謨)>편에 나오는 용어로 공경하고 화합한다는 뜻이다.

유학연구소, 2009, 146-147쪽.

52) 권2, 「辭召旨疏 庚戌」, “(前略)然而以身不能進 而因遂泯默無言 終非臣心之所敢安也 是以敢昧死 冒進其瞽說 惟聖明之留神財幸焉 臣伏讀聖教 有曰予欲調劑辛甘 破去朋黨之痼弊 而朝廷之上 未有寅協之期云云 噫 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 我聖上至公無私之心 羣下孰不仰之如天地之覆載日月之照臨耶 只緣今日蕩平二字 便爲目前標榜 又將反此標榜 更作別一色目 前席有都兪而無吁咈 朝廷有雷同而無可否之爭 舉一世而幾於莊周之齊物 傍觀者至有調停之譏 而有識者之隱憂深慮 盖不知末梢之稅駕何地也 可勝歎哉(後略).”

53) 『書經』 <君奭>, “大臣之位 百責所萃 震撼擊撞 欲其鎮定 辛甘燥濕 欲其調齊.”

겉으로는 ‘탕평(蕩平)’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색목(色目)’과 ‘당파’를 강조하는 현실을 덕촌은 비판하였다. 영조의 탕평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당파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덕촌은 명분만으로 내세우는 ‘탕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음 <등대연화> 1729년(영조5) 1월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전략) 신이 우러러 아뢰고자 한 것은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탕평(蕩平)의 견해이고, 또 하나는 양역(良役)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잠깐 사이에 모든 설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신은 우선 하나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당쟁의 고질적인 폐단을 깊이 아셔서 탕평의 교화를 시행하고자 하십니다. 대개 “하늘은 사정(私情)으로 덮어 줌이 없고, 땅은 사정으로 실어 줌이 없으며, 일월은 사정으로 비추어 줌이 없다.(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라고 했으니, 우리 전하께서는 천지 일월의 지극히 공평하여 사심(私心)이 없는 성스런 마음을 지니셨으니 그 누가 공경하여 우러러 보고자 하지 않으며, 그 누가 뜻을 받들어 잇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옆드려 생각하옵건대, 탕평의 교화를 시행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꼭 ‘탕평’ 두 글자를 가져다가 표방하지 않고, 다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의리의 귀착되는 취지를 강론할 뿐입니다. 무슨 일이 면전에 닥쳤을 때 마땅히 대소 신료들을 전하의 앞에 모두 모이게 하여 각자 그들의 의견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가령, 문인이 글로써 벗을 모으는 것처럼 글의 뜻을 강론하여 서로 더불어 가부(可否)하고 시비(是非)하여 왈가왈부(曰可曰否)하고, 왈시왈비(曰是曰非)함으로써 각자 그 의견의 지극함을 다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한 가문 안의 일일 것입니다. 한 가문 안의 일로써 시비를 공평히 하여 전하의 앞에서 논란한다면, 비록 혹여 평소애 조금 의심하고 막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찌 차마 이때에 개의(介意)함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고 전하께서 위에서 보신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중략) 오늘 한 가지 일을 행하고, 내일 한 가지 일을 행하여 일마다 이와 같이 해서 원근대소(遠近大小)들로 하여금 모두 마음으로 기뻐하여 진심 복종하도록 하신다면, 탕평을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탕평의 구역에 다다를 것입니다.”하였다.(후략)⁵⁴⁾

덕촌은 임금에게 명분만으로 ‘탕평’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임금 앞에서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장(場)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승관계를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하고,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언론을 형성하고 좌우했던 당대 상황을 감안해보면, 덕촌의 이러한 요구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즉, 당파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언로(言路)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덕촌은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 항목에 언급되는 ‘조장설(助長說)’을 제시하면서 ‘겉으로는 비록 탕평의 조짐이 있는 듯하지만, 한없는 병폐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경계하였다. 이것을 ‘비단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친다.[非徒無益而又害之]’라고

54) 권3, <登對筵話>, “(前略)臣之所欲仰白者 有兩件事 一則蕩平之說 一則良役之說 而造次之間 難於罄盡諸說 臣請先陳一說 殿下深知黨比之痼弊 欲施蕩平之化 蓋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 我殿下天地日月至公無私之聖心 孰不欲欽仰 孰不欲奉承 而第伏念欲施蕩平之化 不須預將蕩平二字 作為標榜 但於遇事之時 講論義理之歸趣而已 事到面前 宜令大小臣僚齊會於殿下之前 使之各陳其意見. 如文人之以文會友. 講論文義. 相與可否. 相與是非. 曰可曰否. 曰是曰非. 各盡其意見之所極 則此乃一門內事也 以一門內事而公是非 論難於殿下之前 雖或平日有些疑阻 情志不通者 而豈忍於此時 有所介懷耶 如是而殿下在上觀之 豈不樂乎 (中略) 今日行一事 明日行一事 事事如此 使遠近大小 舉皆心悅而誠服 則不期於蕩平而自底蕩平之域矣(後略).”

하는 것이요, ‘벼 싹을 뽑아서 벼 싹을 말린다.[掘苗而苗枯]’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또한, 다음 사직소에는 덕촌이 추구했던 ‘實事求是’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전략) 대개 군주는 백성을 다스리고 스승은 백성을 가르쳐, 군주와 스승의 직책이 실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맹자는 제 선왕과 양 혜왕에게,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고 반드시 이어서 상서(庠序)와 학교를 세워 백성을 가르친다는 말로 이미 고하였습니다. 지금의 국학(國學)과 향교(鄉校)는 가르침을 베푸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실사(實事)를 가르치는 일은 전무 하니 이것이 이미 크나큰 흠전(欠典)이고 다만 송유중도(崇儒重道)의 구호만 있어 금일 일시적으로 숭상하는 바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비 되는 자는 곧 학교를 가지고 다만 선성(先聖)을 존송하는 터전을 삼고 자기 학문의 업차(業次:생업(生業)을 위(爲)하여 있어야 할 곳)는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실사구시의 뜻에 어찌합니까. 그러나 이는 선비들의 죄가 아닙니다. 오직 이미 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 없으면 곧 농사를 할 따름입니다. (중략)

이른바 실사(實事)란 그 사람의 그 직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른바 구시(求是)란 주자(朱子)가 말한, “오직 그 일마다 그 옳음을 살펴 구하고 그 그름을 결연히 버리는 것이니, 오래 습관이 쌓이면 자연히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되어, 발하는 바가 모두 사곡(私曲:사사롭고 마음이 바르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성인이 만사에 응하고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것은 직(直)일 따름이다.”라고 한 것이니 그 뜻을 곡진히 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후략)⁵⁵⁾

이는 덕촌이 67세 때인 1731년(영조7)에 올린 <소지를 사양하는 상소>이다.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는 국학(國學)과 향교(鄉校)에서 정작 ‘실사(實事)’를 가르치지 않고, ‘송유중도(崇儒重道)’의 구호만이 남아 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덕촌이 생각한 ‘실사(實事)’는 그 사람의 그 직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구시(求是)’는 오직 그 일마다 그 옳음을 살펴 구하는 것이었다.

덕촌은 명분만을 내세우는 ‘실사구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등대연화>와 <사직소>에서 그는 양역 제도와 화폐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양역의 폐단과 관련하여 덕촌이 제시한 견해이다.

(전략) 인족침징(鄰族侵徵)의 폐단에 이르러서는 조정이 반드시 일제히 충정(充定)하고자 함이 이 폐단을 제거하고자 한 데서 전적으로 나왔으니 이는 실로 백성을 사랑하는 본심(本心)입니다. 그러나 도고지적(逃故之籍)을 없애지 아니하고 먼저 충정(充定)을 일삼으면 국가의 본의(本意)가 밝지 아니하고 목전의 소요가 바야흐로 다급해져서 혹 도리어 경동(驚動)함에 이르러 다른 우환과 해가 생겨날까 염려됩니다. 이 쌓인 습관이 타성이 되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큰 변란을 새로 겪어 인심이 어지럽게 요동치는 때를 당하면 과려(過慮)의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반드시 선정신(先正臣) 이이의 <동호문답(東湖問答)>의 일설로 아뢰는 까닭입니다. 이른바 “유망(流亡)한 신세가 되어 없어진 가호는 곧 그 호적을 삭제하여 일족과 이웃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국가의 손실은 다만 이미 도망간 백성에 대해서만 있을 것이고 아직 흠어지지 않은

55) 권2, 「辭召旨疏 辛亥」, “(前略)盖君以治之 師以教之 君師之職 實事如此 是以孟子之於齊宣梁惠 既告之以制民之產 而必繼之以設爲庠序學校以教之 今之國學鄉校 非所以爲設教之所耶 顧其教之之實事 則全無 此已爲一大欠典 而但有崇儒重道之號 爲今日一時之所尙 故爲士者便將學校 只作尊崇先聖之地 而不知其爲自己學問之業次 此於實事求是之義 何如也 然而此則非士之罪也 惟是既不能業次於學校 則即是農而已矣 (中略) 所謂實事者 其人其職 所當爲之事也 所謂求是者 朱子所謂惟事事 審求其是 決去其非 積習久之 自然心與理一 所發皆無私曲 聖人應萬事 天地生萬物 直而已矣云者 可謂曲盡其旨矣 (後略).”

백성은 편안히 모여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잘 길러주고 생식(生息)하여 호구가 번성하면 충당되지 못한 군액(軍額)도 얼마 안 가서 충당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실로 바꿀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운운한 것 또한 조리가 밝게 있어 가히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이를 우활(迂闊)하다 여기지 마시고 깊이 유념하시고 밝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⁵⁶⁾

당대 양역의 문제점으로 ‘인족침징(隣族侵徵)’과 ‘도고지적(逃故之籍)’을 제시하였다. 지방의 백성이 공금(公金)과 관곡(官穀)을 갚지 못하거나 군정(軍丁)이 도망하거나 사망하여 군포세(軍布稅)를 내지 못할 때 이를 이웃사람이나 일족(一族)에게 대신 징수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도망친 자와 죽은 자의 호적을 없애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이(李珣)의 <동호문답(東湖問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덕촌은 임금과 조정 대신들에게 유형원의 『반계수록』 읽기를 권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근세에 호남의 유생 유형원(柳馨遠)이 능히 이를 위하여 법제를 강구하여 찬연히 구비하였습니다. 전제(田制)로부터 시작하여 설교(設教)·선거(選舉)·임관(任官)·직관(職官)·녹제(祿制)·병제(兵制)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모두 갖춰 터럭만큼도 남겨둬 없습니다. 책을 이미 완성하고 이름붙이기를 《수록(隨錄)》이라 하였는데 모두 13권입니다. 신이 일찍이 신의 망사(亡師) 신(臣) 윤拯(尹拯)의 집에서 이를 보았는데, 스승이 일찍이 신에게 말하기를, “이 책은 곧 옛 성왕의 유법(遺法)을 따라 수윤(修潤)하여 그 본 뜻을 잃지 않았다. 나라에서 왕정을 행하고자 한다면 오직 이를 적용함에 달렸을 따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는 두문불출 독학하면서 명성이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아서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오직 저의 스승이 알아주었을 뿐입니다. 신 또한 일찍이 그 책을 얻어 혼자 자세히 궁구해보니 천리(天理) 자연(自然)의 공변됨을 갖추고 인위적으로 안배하는 사심이 없이 절절정연하게 조리가 있어서 어지럽지 않고 환연(煥然)히 문채가 있어서 싫증이 나지 않았습니다.(후략)⁵⁷⁾

덕촌은 토지는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토지 제도가 바로 서야 그 마땅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계수록』은 유형원이 겪은 농촌생활을 바탕으로 농촌경제의 개혁안을 제시한 저서로 알려져 있다. 유형원이 주장한 국가 통치제도 개혁론의 근본정신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⁵⁸⁾ 덕촌은 이 책에서 제시한 개혁 방

56) 권1, 「辭召旨疏 己酉」, “(前略)至於鄰族侵徵之弊 朝家之必欲一齊充定 專出於欲除此弊 此實愛民之本心也 然而不削其逃故之籍 而先以充定爲事 則國家之本意未明 而目前之騷擾方急 或恐反致驚動 別生患害 當此積習狃安 綱紀懈弛 新經大難 人心波蕩之時 不能無過慮之憂 此臣之所以必以先正臣李珣東湖問答一說仰達者也 其所謂苟有流亡絕戶 輒削其籍 不侵一族切鄰 則國家所失 只在於已逃之民 而未散之民則庶幾安輯矣 休養生息 戶口繁盛 則未充之軍額 亦指日而可充矣云云 實是不可易之論 而其下云云 亦皆明有條理 可據而行 伏望殿下勿以爲迂闊而深留睿思(後略).”

57) 권2, 「又辭疏 辛酉」, “(前略)近世有湖南儒生柳馨遠者 乃能爲之講究法制 粲然備具 始自田制 以至於設教選舉任官職官祿制兵制 纖微畢舉 毫髮無遺 書既成而名之曰隨錄 凡十三卷 臣嘗見之於臣之亡師臣尹拯之家 臣之亡師嘗爲臣言 此書乃古聖王遺法而修潤之 不失其本意 國家若欲行王政 則惟在舉而措之而已 蓋其人杜門獨學 不求聞知 故世無知者 而獨幸見知於亡師耳 臣亦嘗得其書而私自細繹 則有天理自然之公 無人爲安排之私 秩然有條而不亂 煥然有文而不厭(後略).”

58)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학문세계와 그 영향」, 『한국실학연구』34집, 한국실학학회, 2017, 40쪽.

안을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덕촌은 <사직소>와 <등대연화>에서 당대 현안(懸案)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피력하였다. 그는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정책을 고수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사직소>와 <등대연화>를 통해 덕촌 양득중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직소(辭職疏)>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관직을 사양하면서 관례적으로 서술했던 장르의 글로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이 정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시대상과 문제점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사직을 청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당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덕촌은 33세 때에 박세채와 남구만에게 천거를 받아 관직을 제수받았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개인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순탄하지 못 했다. 덕촌의 관직 생활은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여러 사건으로 정국이 수차례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대 노론 세력이 득세하고 그들이 정치·경제·사상·문학 분야 등을 장악하면서 이에 반하는 세력들은 가차 없이 이단으로 내몰리고, 모든 분야에서 적대시되었다. 덕촌은 반대파인 노론으로부터는 명재 윤증의 제자라는 이유로 배척당하지만, 영조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망 속에 계속 관직을 제수받았다. 덕촌은 말년까지 왕의 천거를 지속적으로 받아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60대 이후에는 연속적으로 사직소를 제출하면서 당대 기득권층의 허위 의식과 폭력에 항거하였다. 또한, 최고 권력자인 임금과 직접 대면하여 논의를 펼친 <등대연화>에서도 덕촌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개함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알력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덕촌은 반대파를 무조건 비방하거나, 자신의 당파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蕩平’과 ‘實事求是’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당대의 부조리에 대응해나갔다. 이 두 가지는 <사직소>와 <등대연화>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덕촌의 상소문은 의례적인 투식 문구보다는 본인이 관철하고자 하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다. 당대 기득권층의 전횡이나 정계(政界)와 정책의 문제점 등과 같은 논의가 많은 점도 이러한 특징에 기인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나 비유, 고사(故事)의 인용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서술하는 수법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당대의 허위의식과 문제점을 故事를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비평하는 식으로 글을 저술한 덕촌의 논설류(論說類) 작품의 특징과 유사한 점이 있다.⁵⁹⁾

어느 시대나 절대화된 권력이나 사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으로 작용하며 재생산된다. 그리고, 그 범위에 포섭되지 않거나 이탈한 이들은 이단자나 부적응자로 취급받기도 한다. 덕촌 양득중은 당대의 ‘朋黨 정치’와 ‘허위의식’이라는 폭력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단순히 개인의 희생만이 아닌 전체 민생을 파탄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조선후기에 ‘蕩平’과 ‘實事求是’를 강조했던 덕촌의 실질적인 대응 양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21C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59) 최윤정, 앞의 논문, 307쪽.

참고문헌

양득중, 『德村集』,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德村集』, 한국고전번역원, 2015.

_____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윤증, 『明齋遺稿』,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明齋遺稿』, 한국고전번역원, 2006.

_____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영조실록』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성당제, 「약천 상소문의 문예미와 현실대응」, 『인문과학』36집, 인문과학연구소, 2005.

신두환, 「약천 남구만의 상소문에 나타난 선비 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60집,

열상고전학회, 2017.

유명종, 「덕촌 양득중의 실학 사상-양명학과 실사구시의 절충」, 『한국학보』6, 일지사, 1977.

윤재환, 「약천 남구만의 상소문의 구성 원리와 전개 양상」, 『한민족어문학』74집, 2016.

윤재환, 「명곡 최석정 상소문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27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8.

이상성, 「명재 윤증과 덕촌 양득중의 학문 교유고」, 『한국사상과 문화』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이미진, 「덕촌 양득중의 조포 고사 인식과 그 의미」, 『어문연구』1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이형성, 「明齋 尹拯에 대한 後代 評價와 追崇」, 『유학연구』.20집, 충남대학교유학연구소, 2009.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학문세계와 그 영향」, 『한국실학연구』34집, 한국실학학회, 2017.

최윤정, 「덕촌 양득중의 論說類 작품 연구」, 『동양고전연구』.78집, 동양고전학회, 2020.

김길락 외, 『명재 윤증의 생애와 사상』, 이화, 2001.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충남대 유학연구소, 『務心과 實心の 유학자 명재 윤증』, 청계출판사, 2001.

충남대 유학연구소, 『명재 윤증의 학문연원과 가학』, 예문서원, 2006.

한정길, 「德村 梁得中 학문의 양명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陽明學』34호, 한국양명학회, 2013.

최윤정 선생님의 “덕촌 양득중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 -<사직소(辭職疏)>와
<등대연화(登對筵話)>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 연 순 (홍익대)

최윤정 선생님의 위 논문은 명재 윤증의 제자인 덕촌 양득중의 문집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작품을 대상으로 그 특징적인 국면과 의의를 밝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획 주제와 닿아 있는 작품들을 연구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상소문이라는 한문 산문의 양식과 조선 후기 문단의 경향에 문외한으로서, 선생님의 논문을 읽어가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논지에 크게 이견은 없으나,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2장 “덕촌의 정치적 생애와 관련 작품”에서는 덕촌의 생애 가운데 벼슬길에 오르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기까지, 곧 ‘사환기’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다루며 그와 관련한 작품으로 사직소와 등대연화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기에 해당하는 덕촌의 생애로 수학기 등은 다루지 않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이해할 부분이 적어서 생략하신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재의 문하에서 수학하게 되는 시기도 사환기와 맞물려 있어, 사실상 덕촌의 수학기는 몇 단계로 구분되는 듯한데, 그 이전 시기와의 연관성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장에서는 덕촌이 남긴 20여 편의 사직상소문과 영조와 직접 대화를 나눈 등대연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여기서 주로 허위의 풍조와 파당의 폐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다고 밝혀, 덕촌이 사직하게 된 이유로 당시 허위의식과 봉당의 문제가 심각하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는 조선 후기 사직소의 주된 내용 특질이라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봉당의 문제는 특히 봉당이 생성되기 전, 곧 16세기 중반까지 찬술된 많은 사직소들과 비교하여 부각할 만한 부분이기에, 그러한 점은 좀 더 드러내 의의로서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노론 세력이 정치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이에 반하는 세력은 이단으로 내몰던” 것은 흔히 조선 후기의 세태로 지적되는데, 그 이전에 봉당을 가르치 않고 순수하게 사상으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며 논쟁하던 시기와 비교할 때, 그 사이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에 와서 그렇게 심하게 왜곡되었는지를 덕촌의 스승인 명재에서부터 덕촌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명재에 대해서는 덕촌이 겪은 일과 비슷한 경우에 대해, 곧 허위와 파당과 관련한 문제에서 조금씩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촌이 정치적인 문제로 사직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 실제 하였던 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소나 등대연화 등에서 지적한 대로 덕촌이 “선비로서” 해야 한다고 한 일들에 스스로 힘써 그 사이 남긴 업적이나 저작들이 있는지, 문집이나 연보 등에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덕촌이 사직소를 통해 자신이 관직을 맡아 벼슬살이를 한 것도 허위를 보탤 뿐이라며 반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겸사일 뿐인지, 실제로 덕촌이 관직생활을 할 때 어떠한 언행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함께 다루었을 때 덕촌이 찬술한 글들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오리라 여겨집니다.

종차별의 타자, 동물의 문학적 재현

김 경 미 (이화여대)

차례

1. 동물로의 전환
2. 18~19세기 동물에 대한 기록의 증가
3. 재현의 양상 - 동물전을 중심으로
4. 동물의 발견, 타자의 위치에서 교감하는 존재들

1.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

18세기 서울의 풍경을 담은 성시전도(城市全圖)를 보고 읊은 성시전도시는 인구증가와 상공업의 발달로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던 서울의 사람과 거리, 건축물, 나무 등을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면서 동물의 모습도 놓치지 않았다. 박제가가 쓴 성시전도시에는 저자 거리의 닭과 소, 돼지와 말, 연희 벌어진 곳의 작은 원숭이, 죽은 소나무 가지 위의 백로, 화려한 새장, 한가롭게 모이를 쪼는 오리와 거위 등 동물의 모습이 등장하고,⁶⁰⁾ 가상의 성시(城市)를 그린 필자 미상의 <태평성시도>에는 중국풍의 인물과 건축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 특히 상공업에 관한 것들이 풍부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2,170명의 사람과 300여 마리의 동물이 등장한다.⁶¹⁾

인간은 문명화 과정에서 맹수를 몰아내고 인간의 영역을 구축하는 한편 동물을 가축화해서 이용해 왔다. 동물은 인간을 둘러싼 첫 번째 집단으로 인간은 의식주와 교통을 동물에 의존해 왔다. 이처럼 인간의 공간에는 동물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나 언제부턴가 동물은 인간의 영역에서 비가시화되었다. 위에 언급한 그림이나 시는 도시 공간에 존재하는 인간과 동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인간과 동물의 위상이 같지는 않다. 오늘날 기계가 수행하는 일, 노동과 운송을 동물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물은 이처럼 인간과 가까이 있었으며 인간 문명의 일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멀어졌으며 역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⁶²⁾

동물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초창기부터 있었다. 문학작품을 비롯한 회화작품에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나 동물 상징이 풍부하게 발견되고, 박물지를 비롯한 백과전서적 저술에는 동물에 대한 항목이 빠지지 않았다. 서구 학계의 경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제기

60) 박제가, 「성시전도응령(城市全圖應 令)」, 『정유각집』 3집, “或試其重舉一鷄, 或壓其嘶負雙豕, 或買牛柴自牽轡, 或相馬齒旁插篋 …… 別有傀儡登場手, 勅使東來掌一抵, 小猴真堪嚇婦孺, 受人意旨工拜跪 …… 雕籠彩斂風旖旎, 舒雁舒鴨恣呶嘍 …… 白鷺飛踏松枝死, 指點林端射採明 …….”.

61) 김희경, 「조선후기 성시풍속도의 유형별 특징 연구」, 『은지논총』 16, 2007, 309~310쪽.

62) 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 박범수 옮김, 동문선, 2000, 이 책에 실린 「왜 동물들을 구경하는가」에서 산업화를 전후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달라졌으며, 일상생활에서 동물이 제거되고 식용고기 생산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되면서 동물권, 동물해방이 거론된 것이 1970년대이고⁶³⁾, 동물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가 본격화된 것도 1970년대였다.⁶⁴⁾ 그러나 최근 동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동물로의 전환 혹은 선회(animal turn)’⁶⁵⁾를 실감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동물실험과 공장식 식용 동물 사육,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이성을 척도로 하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깔려 있다. 인간이 동물을 도구화, 타자화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한 결과 일어난 전지구적 곤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삶의 형식을 전환해야할 시점이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인간-동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 중심의 역사를 해체하고 인간과 동물의 역사를 복원하여 공동-역사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간중심의 사회문화와 인간과 별개의 원시적 동물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서로 적응하면서 공진화해 온 공동-역사 이야기를 상상한 해러웨이의 관점은 참조할 만하다.⁶⁶⁾

문학사의 초기부터 동물은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졌고, 한국 고전문학 작품 중에는 동물을 소재로 한 한시, 우화소설, 가전(假傳), 산문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연구도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⁶⁷⁾ 동물을 부각시켜 다룬 연구는 최근에 본격화되었다.⁶⁸⁾ 이 발표는 그 가운데서 18~19세기 동물에 대한 전을 중심으로 그 문학적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동물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전에 비해 동물을 주제로 한 전(傳)이 많이 창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 18~19세기 동물에 대한 기록의 증가

동물을 소재로 서사기록으로 동물가전(動物假傳)⁶⁹⁾과 동물을 서사의 중심에 놓은 동물전(動物傳), 우화소설이 있다.⁷⁰⁾ 전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 출발한 장르로 인간의 삶을 기록한 것이라면, 가전은 인간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해서 인간의 삶처럼 기록한 것이다. 가전이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사물에 대한 관심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물가전으로는 이규보(1168~1241) <청강사자현부전>, 권필(1569~1612) <곽삭전(郭索傳)>, 정두경

63) 피터 싱어가 『동물해방』에서 동물권을 주장한 것이 1975년이다.

64) 송충기, 「역사학에서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짐승의 사회문화사에서 포스트휴머니즘 역사로-」, 『서양사론』 139, 2018, 215쪽.

65)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은 Harriet Ritvo가 *on the animal turn, Doedalus* vol.136, 2007, 118~122쪽에서 사용한 용어로 지난 수십 년 간 동물과 인간-비인간 동물과의 관계가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을 말한다.

66) 도나 해러웨이, 「반려종 선언-개, 사람, 그리고 소중한 타자성」,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

67) 윤승준, 「조선시대 동물우연의 전통과 우화소설」,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65쪽, 안영훈, 「한국 동물가전의 양상과 특징」, 『국학연구논총』 18, 175~197쪽.

68) 『동방한문학』 61호~63호에 걸쳐 <중세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라는 기획주제로 불교, 유선문학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이규보, 정약용, 윤키 등 문학 작품에 나타난 동물 형상과 인식을 비롯해서 한문소설, 전, 연행록, 한시 등에 나타난 호랑이, 말, 소, 고래, 개, 해동청, 뱀, 이 등의 재현 양상과 인식을 다룬 논문들이 실렸다.

69) 동물가전에 대해 안영훈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입전한 전기문학으로 보았다. 안영훈, 위의 글, 176쪽.

70) 동물전은 윤승준이 사용한 용어로 윤승준은 “특정 동물의 특이한 행동을 전(傳) 양식을 빌어 형상화한 일련의 작품”을 동물전이라 명명했다. 윤승준, 「동물전 연구 서설」, 『한문학논집』 14, 1996, 354쪽.

(1597~1673), <산군전(山君傳)>, 최효건(1608~1671) <산군전(山君傳)>, 조구명(1693~1737) <오원자전(烏圓子傳)>, 유본학 <오원전(烏圓傳)>, 남유용(1698~1773) <굴승전>, 황현(1855~1910) <금의공자전> 등이 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고려말부터 조선말까지 꾸준히 창작되었다. 동물가전의 경우 동물의 생태에 대한 서술을 통해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엿볼 수 있지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에 관한 것이다.

동물전은 이유흥(1566~1619)의 <의구전(義狗傳)>, 이익(1681~1763)의 <우계전(友鷄傳)>, <할계전(瞎鷄傳)>, 유언호(1730~1796)의 <의구전(義狗傳)>, 김약련(1730~1802)의 <충구전(忠狗傳)>, <의구전(義狗傳)>, <열계전(烈鷄傳)>, 홍우건(1811~?)의 <의록전(義鹿傳)>, 최남복(1759~1814)의 <둔마전(鈍馬傳)>, 이옥(1760~1812) <소기마전(所騎馬傳)>, 황오(1816~?) <연자전(燕子傳)> 등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유흥의 <의구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18~19세기 작품이다. 대상 동물은 개, 닭, 사슴, 말, 피꼬리, 제비 등인데 개에 대해 기록한 것이 가장 많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들 동물은 의(義), 충(忠), 열(烈)과 같은 유교 이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물가전, 동물전과 달리 동물에 대한 견해를 담은 논설류의 글은 동물가전이나 동물전에 비해 많이 남아 있는데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었다.⁷¹⁾ 고려말 이규보의 <문조물(問造物)>, <슬견설(蝨犬說)>을 비롯해서 성현(1439~1504)의 <흑우설(黑牛說)>, 홍우원(1605~1687)의 <노마설(老馬說)>, 조찬한 (1572~1631)의 <권돈설(圈豚說)>, 강시환(1761~1813)의 <화묘설(化猫說)>, 기우만(1846~1916)의 <구유설(狗乳說)>, 최연(1503~1549)의 <묘포서설(猫捕鼠說)>, <안노설(雁奴說)>, 이덕무(1741~1793)의 <괘호설(饋虎說)> 등이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동물은 지식의 대상이 되어 백과전서적 저술의 일종인 유설의 한 항목을 이루었다.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의 금충(禽蟲) 항목, 이익의 『성호사설』 만물문에 수록된 동물 관련 기록, 이옥의 『백운필』의 새, 물고기, 짐승, 벌레 항목, 위백규(1727~1798)의 『존재집』 중 「격물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만물편」 조(鳥)·수(獸)·충(蟲)·어(魚) 항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기록은 동물의 구조를 관찰한 해부학적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로 기존의 문헌 기록에 의거해서 기록하고, 여기에 자신이 관찰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동물이 관찰 대상으로 중요한 항목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비둘기, 앵무새에 관한 지식을 정리한 유득공(1748~1807)의 <발합경>, 이서구(1754~1825)의 <녹앵무경> 등은 이제 특정 동물에 대한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록이 나오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3. 재현의 양상 - 동물전을 중심으로

동물가전이 동물을 인간의 일생에 비유해서 기록한 데 비해 동물전은 특정 동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견문한 것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의 내용은 주인공의 생애 기록과 그에 대한 작가의 평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의 평가는 주로 유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동물전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서 동물전 제목에서 보았듯이 이미 의(義), 충(忠), 열(烈) 같은 유교 이념이 가치의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전은

71) 윤승준, 「조선후기 ‘동물설’에 대한 일고찰-조선전기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15, 1997, 228~229쪽에 의하면 『雜著記說類記事索引』에 수록된 동물설은 총 187편으로, 그 중 17편이 조선 전기에 해당한다.

유교 이념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동물에 대한 당대의 통념, 특정 동물과 인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 인간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보여준 존재

이유홍의 <의구전>은 의로운 개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 등장하는 개 네 마리는 사냥을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주인을 위해 앞뒤에서 막고 공격해서 주인을 구했다. <의구전>에서 이유홍은 “개는 여섯 가축 가운데 개가 가장 천하다. 똥을 먹고 몹시 더럽게 길러지니 제사상에 오르지 못하고 그 쓰임이 매우 비루하다. 어린아이라도 개에게 절하라고 하면 발끈 화를 내고 천한 사람이라도 개와 비교하면 맞는 것보다 아프게 여기니 어찌 그 길러짐이 몹시 더럽고 쓰임이 매우 비루하지 않은가?”⁷²⁾라는 말로 당시 개를 천하게 여긴 통념을 전하고 이 네 마리의 개는 “개 중의 사람[狗中人]”⁷³⁾이라고 했다. <의구전>은 개의 인간에 대한 의리와 충성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보여준다.

영남의 문인이었던 김약련이 쓴 <의구전>은 어느 날 관아로 뛰어든 개가 과부의 살해를 알리고 범인을 찾아내 처벌하게 한 뒤 따라 죽은 이야기다. 과부는 양반으로 어려서 과부가 되고 친척도 없이 살다가 사내아이의 폭행에 맞서다가 죽었다. 김약련은 이 일에 대해 쓴 뒤 “주인의 평소 행동이 개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했다. <충구전>은 충성스런 개에 대한 세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송생의 아내 김씨가 친정에서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시집간 뒤 친정에 가면 개가 따라 나와 반 정도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친정에 올 무렵이면 반 정도 나가서 맞이할 정도로 따랐다. 김씨가 병이 들자 개가 문 밖을 떠나지 않고 마치 사람의 기색을 살피는 듯하더니 병이 위독해지자 며칠간 먹지 않았다. 김씨가 죽자 사람을 따라 슬프게 곡을 했는데 장례 뒤 따라 죽었다. 선산의 충견은 여종이 기르던 개로 여종이 죽자 낮에는 그 무덤을 지키고 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의구전>과 <충구전>은 모두 주인을 따라 죽은 개에 대한 것인데 주인이 의지할 데 없는 과부거나 여종 또는 부인인 것이 주목된다.

2) 함께 천리를 부여받은 존재

이익은 우애가 있는 닭에 대해 기록한 <우계전>, 한쪽 눈이 먼 외눈 닭에 대해 기록한 <할계전>을 남겼다. <우계전>은 자신이 기르던 어미 닭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뒤 다른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길러주었는데, 그 암탉이 또다시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뒤 그 잔해를 모아 관을 만들고 산에 장사지내 준 이익 자신의 경험을 쓴 것이고, <할계전>은 외눈 닭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아리들을 잘 기른 것을 보고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우애라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미루어 형제에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서도 찾기 어렵다. 하물며 미물에게서야! …… 내가 듣기로 나면서부터 아는 자는 성인이라는데 그렇다면 이 닭은 사물 가운데 성자인가? 타고난 대로 행하는 자가 성인인데 짐승이면서 사람의 행실을 하니 이는 기질에 구애받지 않은 것인가?⁷⁴⁾

72) 이유홍, <의구전>, 위의 책, 31쪽, “六畜之中, 狗最賤. 食以糞養至穢, 不燈俎用至陋也. 尺童使之拜則 艱然怒, 下賤與之比則痛於篋, 豈非養至穢用至陋也.”

73) 이유홍, <의구전>, 『간정집』 권 3, 31쪽.

74) 이익, <우계전>, 『성호선생전집』 권 68, 29~30쪽, “友也者, 推父母及于兄弟, 人而或鮮, 況于物乎.”

이익은 자신이 기르던 닭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닭의 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을 구분한 이론에 의하면 타고난 성은 다름이 없지만 기질의 치우침에 따라 사람과 사물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했다. 그런데 이익은 이 닭의 행동이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사람의 행동을 가치의 척도로 두고 있지만 비인간 동물에게서 사람과 다름없는 점을 발견하고 인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언호의 <의구전>(1757)은 유언호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전이다. 남원의 양응환의 처 홍씨는 홍재의 딸인데 시집가기 전 개 한 마리를 길렀다. 개는 “긴 허리, 짧은 다리에 두 귀는 쫘긋했으며”⁷⁵⁾ 다른 개들과 달리 고기를 던져줘도 먹지 않았다. 홍씨가 시집간 뒤 몇 년이 지나 식구들이 그 개를 홍씨에게 보냈는데 한밤중에 부녀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가운데 홍씨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뛰어올랐으며 그 뒤로 그 방 앞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개가 암탉을 채 가기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때 홍씨가 병이 들었는데 암탉 국물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잡아간 것이었다. 암탉을 고아 먹고 홍씨의 병이 나았으나 몇 년 뒤 홍씨가 죽었다. 개는 먹지도 않고 구슬프게 짖고, 염하고 입관할 때 문지방에 턱을 받치고 조용히 끝까지 지켜보았다. 장례를 끝나자 개가 머리를 부딪치며 울부짖기를 종일 하다가 그쳤는데 곧 기진해서 죽었다. 이어서 작가는 홍씨가 처음 시집가서 제사를 지낼 때 새끼 뱀 가축을 이웃집에 피하게 하고 젓을 먹여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겼다는 홍씨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리고 개가 주인을 따라 죽은 것도 홍씨의 평소 맑은 덕에 감동한 결과라고 보았다. 유언호는 이 개를 보고 “천성의 선함은 사람이나 동물이거나 한 근원이며 동물에게 오류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⁷⁶⁾고 했다. 유언호는 글의 시작에서 사람과 사물은 천지간에 함께 길러지는데 기(氣)의 바름과 치우침, 통함과 막힘이 있고 이(理)가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사물이 인간의 맑음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사람과 사물의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간혹 사물 가운데도 치우치고 막힌 가운데 한 점 밝은 데가 있어서 왕왕 기이한 자취가 드러난다⁷⁷⁾고 하면서 홍씨와 개의 각별한 관계를 인상적으로 재현했다.

3) 기술을 가진 존재

이익의 <할계전>은 닭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관찰 태도를 보여주는 한편 이익의 동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드러낸다.

눈으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품고 있고 행동을 천천히 하며 자주자주 안아주고 덮어주었지 애쓰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병아리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고 자랐다. 무릇 새끼를 기르는 것은 작은 생선 삶듯이 조심해야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저 닭이 지혜가 거기에 미치지 않았지만 방법이 적중했다. 끝내 모두 온전하게 된 것은 여기에 있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을 기르는 것은 먹이를 챙겨주는 사랑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느리는 기

…… 吾聞生知爲聖，是其物之聖者歟，踐形爲聖，禽而人行，是不囿於質者歟。功成而身陷，不見報施，其理之既通而值數之局者歟？”

75) 유언호, <의구전>, 『연석』 13책, “長腰短股，雙耳竦尖。”

76) 유언호, 위의 글, “於斯益可見性之善，人物一原，而謂物之不與乎五常者，吾不之信也。”

77) 유언호, 위의 글, “人與物並育天地間，得氣有正偏通塞，理亦隨之，故物不能如人之粹然，然其偏且塞之中，自有一點明處，往往著奇異之蹟。”

술이 있어서 각각 그 생명을 이루어준 것이니 그 요령은 잘 거느려 잊지 않는 데 있을 뿐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이에 닭을 기르다가 사람 기르는 방도를 얻었다.⁷⁸⁾

이익은 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닭이 병아리를 기르는 것을 보고 사람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배웠다고 했다. 이익은 닭에게 먹이를 챙기는 사랑뿐만 아니라 “거느리는 기술이 있다[帥之有術]”고 했다. 술(術)은 기술, 방법을 의미한다. 이익이 닭에게서 생명을 길러내는 기술을 발견했을 때, 닭은 막연한 자연의 일종 또는 동물의 일종이 아니라 기술, 기예를 가진 구체적인 존재로 재현된다. 따라서 닭으로부터 사람을 기르는 방도, 방법을 얻게 되었는데 말도 구체성을 갖는다.

4) 감정을 나누는 존재

이옥은 호랑이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깝게 접하는 소와 말, 닭 등 가축에 대한 글도 다수 남겼다. 동물전으로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말과 노새에 대해 <소기마전(所騎馬傳)>, <노군전(盧君傳)>을 남겼는데 현재 <노군전>은 전하지 않는다. <소기마전>은 1791년 타고 다니던 말이 죽은 뒤에 애도하여 쓴 것이다. <소기마전>은 말의 모습과 성격, 태어난 곳, 생애, 죽음, 말에 대한 애도, 자신이 이를 기록하게 된 이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은 수컷으로 검붉은 색이다. 걸음을 잘 걸어 하루에 이백 리를 갈 수 있고, 키는 마부의 어깨를 넘으며, 아는 말을 보면 반드시 발굽으로 땅을 차고 높이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매우 맑고 짹짹하였다. 그런데 성질은 잘 길들여져 유순하였다. 서로 전하기를 제주산이라 하는데 태어난 지 오년 만에 우리 집에 왔고 십이 년 동안 우리 집에서 길러졌으니, 말 나이로 셈하면 모두 삼십삼 수초였다.⁷⁹⁾

1791년 5월 말이 병들어 먹지 못했다. 이옥이 수의사를 불러 진찰하게 하니 열이 콩팥에 까지 미쳐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침과 약으로 말을 치료하게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해 7월 말이 죽었다. 이옥은 말이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하면서 시를 지어 애도하며 “말을 애석해함이 아니라 그 준결함을 애석해한 것이고, 내 집에서 오래 있었음을 어여삐 여긴 것”이라고 했다. 말이 아니라 말의 준결함을 애석해하고 집에 오래 같이 있었음을 어여삐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말 일반이 아니라 이옥 자신이 함께 했던 말, 직접 체험한 말이 의미 있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소기마전>은 이옥과 말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은지라
내 눈물 술잔을 가득 채우네.
하물며 차마 듣지 못할 것
마을 사람들 밤중에 몰래 살을 베어갔다네.

78) 이익, <할계전>, 『성호선생전집』 권 68, 28쪽, “目不能察, 故常懷畏懼, 動息徐徐, 抱覆頻頻, 不見用力之迹, 雖自啄拾而成矣. 夫養雞若烹小鮮, 惟忌攪亂. 彼非智有以及之, 而適中方便, 畢竟萬全者, 在此不在彼. 始知物之養成, 不但在於哺穀之恩, 即帥之有術, 而各遂其生, 其要在善御而不忘而已也. 余於是因養雞而得養人之道.”

79) 이옥, <타고 다니던 말[所騎馬傳]>, 『이옥전집』 2권, 383쪽.

수레 빌고 노새 빌려
 지금부터 내 걸음 구차하네.
 원컨대 너는 빨리 윤회에 들어
 사람으로 태어나 많은 복 받으라.
 다른 날 빈 마구간 지나치게 되면
 눈에 닿는 것, 나의 회포 일으키리라.⁸⁰⁾

이옥은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사람과 짐승이 같다고 보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죽은 말의 살을 베어갔다고 하면서 이를 비난하지는 않고 차마 듣지 못할 일이라 할 뿐이다. 이제 자신은 수레 빌고 노새 빌려 구차하게 다녀야 하겠지만 말에게 빨리 윤회에 들어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축수한다.

4. 동물의 발견, 타자의 위치에서 교감하는 존재들

조선후기의 동물전은 동물을 의인화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의 생태와 속성을 그리거나 인간과의 관계를 그렸다. 이 점은 전대의 서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면모이다. 어쩌면 이것은 동물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동물전에서 다른 동물들은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다. 이 무렵에 와서 전으로 서사화된 것은 그 역사문화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익을 비롯한 유언호 등의 언급에 비추어 볼 때 조선후기 학계의 쟁점이었던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⁸¹⁾ 이익은 금수일로(禽獸一路), 즉 금수에 게도 한 가닥 이치를 아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여기서 천리(天理)의 진면목을 본다고 했다.⁸²⁾ 유언호 역시 인성과 물성의 차이를 부인하지 않지만 간혹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보았다. 동물전은 추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인물성론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으로 옮겨 놓았다. 구체적인 한 동물, 작가 혹은 작가의 지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한 동물을 구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동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속에 특정 동물을 가두지 않았다. 이 경험은 타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충, 의, 열이라는 것은 유가의 이념이 가치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인간중심의 가치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전 가운데 <우계전>, <할계전>, <열계전>은 동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나머지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동물의 행동을 부각해서 서술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개, 사슴 등은 의리와 충성을 다해 주인을 구하거나 주인이 죽은 뒤에 따라죽는다. 동물과 맺은 직접적인 관계를 표현한 <소기마전>은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개와 인간의 관계를 다룬 작품들 대부분이 개와 여자의 관계로 재현된다는 점이다. 김약련의 <의구전>에 보이는 개와 과부, <충구전>의 개와 김씨, 개와 여종, 유언호의 <의구전>에 재현된 개와 흥씨 부인에서 보듯이 개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과부, 시집에서 병든

80) 이옥, 위의 글, 『이옥전집』 2권, 386쪽.

81) 윤승준, 앞의 글, 1996, 370쪽. 윤승준은 동물전이 표면적으로는 동물의 행적을 통해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는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철학적 영향을 받아 금수와 구별되는 인간의 도덕적 존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이면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동물전이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거나 인간의 도덕적 존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동물의 본성을 발견하고 인간과 동물이 교감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것으로 본다.

82) 이익, <금수일로>, 『성호사설』 권 5, 「만물문」, “禽獸或通一路, 雖不常有是, 卽無所爲而爲之者也, 於此可見天理之眞面目, 尤令人感歎.”

주인을 위해 범인을 고발하고, 닭을 잡고, 따라 죽는다.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개가 이들을 보호하고 구한다. 유언호의 <의구전>에 개 주인으로 나오는 흥씨가 병이 들자 개가 암탉을 잡아 치료하게 했다. 이 말은 흥씨를 위해 암탉을 먹이려 한 것은 친정에서 따라온 개뿐이었다는 뜻이다. 개는 암탉의 국물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닭에게 달려들었다. 시집 식구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말이다. 타자의 위치에 있는 두 존재는 서로 교감했다고 작가는 쓰고 있다. 개와 여자의 관계가 가까운 것으로 재현된 것은 여자가 개에게 밥을 먹였던 생활 세계의 논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차별의 타자, 동물의 문학적 재현>에 대한 토론문

김 기 림 (조선대)

이 글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공동 역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 중심적 바라보기’에서 비껴서 ‘인간과 동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18-19세기 동물전에서 동물을 재현한 양상을 분석하셨습니다. 이른 바 포스트 휴머니즘이 등장하여 인간 중심적 사유 체계에서 벗어나 ‘공생적 삶’을 지향하는 이 시기에 적절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의 시도, 사유의 방향, 내용 등은 시기적,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의 책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인간 중심적 바라보기’에서 벗어난 관점을 강조하면서 동물의 다면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이에 ‘함께 천리를 받은 존재’ ‘기술을 가진 존재’ ‘감정을 나누는 존재’ 등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충성과 의리를 보여준 존재’는 인간 중심적 바라보기는 아닌지, 선생님께서 기존의 해석과 ‘인간 중심적 바라보기’에서 비껴서 바라보기’에 의한 해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과 동물의 상호 교감’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의구전 계열 작품들은 유가 윤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넘어서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감’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요. 총견 관점보다는 인간과 ‘더불어-공존’하는 존재로서의 ‘개’로 해석한다면, 인간과 동물의 공생 역사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특히 개와 여성 관련 전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여성은 ‘밥 주는 존재’로 나타나며 개의 삶을 지탱해 준 존재이기도 한데 ‘밥’을 통한 교감의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유가적 윤리 강조’라는 표면 아래 감춰진 것들은 아닌지, 그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없는지요. 또 이옥의 <소기마전>에서는 ‘삶을 함께 한’-동반적 관계를 깨닫는 것, 이는 전혀 다른 인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19세기 동물에 대한 주목의 증가 추세를 ‘동물성동이론’의 영향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물 등장의 글들을 보면, 대체로 (표면적으로) 유가 윤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대체로 윤리 강조는 윤리 해이 상황과 결부되기도 합니다. 동물을 통한 인간 윤리 강조는 당시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혹 글을 오독하여 질문한 것이 있다면 너그러이 봐 주십시오.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고 실천해야할지 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대 여공들의 스트라이크와 기숙사의 지정학(地政學)

- 1920~30년대 공장소설을 중심으로 -

황 지 영 (이화여대)

차례

1. 농촌 소녀가 도시 여공이 된 사연
2. 공장 속 젠더규율과 이중착취의 일상화
3. 배수진이 된 기숙사와 숙련 여공들의 임금 투쟁
4. 기숙사에 잠입한 여공 전위들의 교란 작전
5. 여공들의 밤과 기숙사의 철망 넘기
6. 여공 기숙사, 죽음을 넘어선 집합적 주체의 양성소

1. 농촌 소녀가 도시 여공이 된 사연

1920~30년대의 여성들에게 ‘이동’은 프롤레타리아트화와 연관된 일이며, 지금까지 살던 친밀한 장소에서 벗어남을 의미했다. 일부 여성들은 노동을 하기 위해 같은 지역 내에서 근거리 이동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동’하는 여성들은 공장에 일을 하러 가거나 부유한 집에 가사 노동을 하러 가는 등 낯선 노동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삶과 분리되었다.⁸³⁾

주로 농촌의 집안에서 생활하던 어린 여성들은 ‘이동’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생산공간인 공장으로 진입하였고, 집의 대체재인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과 더불어 나타난 변화였다. 이곳에서도 근대화는 공간-시간-인간을 구체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자 지속적으로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때 생산양식의 변화와 지리적 역학에서 기인하는 근대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졌다.⁸⁴⁾

공장소설⁸⁵⁾ 속에는 다양한 사연을 지닌 여성들이 여공이 되는 서사가 담겨 있다. 대부분

83)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한울아카데미, 2010, 22-23쪽.

84) 에드워드 소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외 역, 시각과 언어, 1997, 41쪽.

85) 1920~30년대에 창작된 공장소설 중에서 여공이 등장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강경애, 『인간문제』, 『동아일보』, 1934.8.1.~12.22.

김남천, 「문예구락부」, 『조선중앙일보』, 1934.1.25.~2.2.

박영준, 「소녀공」, 『전선』, 1932.5.

박화성, 「추석전야」, 『조선문단』, 1925.1.

송계월, 「공장소식」, 『신여성』, 1931.12.

송영, 「오수향」, 『조선일보』, 1931.3.1.~3.26.

유진오, 「여직공」, 『조선일보』, 1931.3.1.~3.24.

윤기정, 「양회굴뚝」, 『조선지광』, 1930.6.

이기영, 「민머느리(금순의 소년)」, 『조선지광』, 1927.6.

이복명, 「여공」, 『신계단』, 1933.3

농촌의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하던 어린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공이 되었지만,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공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송영의 「오수향」은 주인공이 기생이었다가 여공이 된 경우이고, 이기영의 「민며느리」에 나오는 ‘금순’은 남편과 이혼한 후 여공이 된다. 또한 한설야의 『황혼』에 등장하는 ‘여순’처럼 사장의 비서에서 여공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1930년대가 되면 고단한 공장 생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여공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졌지만, 1920년대에는 보통학교를 졸업해야 여공이 될 수 있었고 여공의 수입은 가족들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여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은 편이었다. 그래서 이기영의 『고향』의 인순과 한인택의 「적은 여공」의 금섬처럼 여공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직 운동을 하는 여성들도 소설 속에 등장한다. 여공이 된 여성들은 자유로운 삶의 터전이었던 농촌에서 공장이 있는 도시로 건너와서 새로운 삶을 맞이한다.

하지만 농촌에서 살던 소녀들이 들어간 공장에서의 삶은 녹록한 것이 아니었다. 공장에서 중요시되었던 공간배치의 원리, 즉 구획과 분할 그리고 이동의 제한은 작업장 안팎에서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곳에서 여공들의 동선은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여공들이 하루 온종일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공장과 기숙사 그리고 식당이 전부였고, 이곳들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기숙사는 공장 안에 있었지만 담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이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공장 쪽을 활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⁸⁶⁾ 이처럼 통제와 감금이 일상화된 공간 속에서 여공들은 공장의 규율을 익히면서 점점 근대적 주체가 되어 갔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적 주체는 학교, 감옥, 군대, 병원, 수용소, 공장 등 다양한 규율 공간과 제도를 경험한 후 완성되었다. 특히 근대성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현하는 공장 안에서는 노동자들의 신체를 길들이기 위해 각종 규칙과 폭력이 사용되었다. 공장에서 노동을 매개로 근대 주체가 된다는 것은 참을성 있고 시간을 잘 지키는 표준화된 인력이 된다는 것을 뜻했다.⁸⁷⁾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첫 “근대적 인간”⁸⁸⁾이었던 여공들은 새로 진입한 규율공간에 적합한 상태로 자신의 몸을 개조하고 감시자의 시선을 내면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저항의 크기는 주체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공들의 공간 안에서 억압과 저항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였다. 한편으로 식민지 시기의 여공들이 접했던 공장과 그에 딸린 기숙사는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근대화가 인간에게 가하는 규율화, 사물화, 소외, 착취가 만연한 공간이었다. 동시에 이곳은 근대적 여성 주체로서 각성되고 해방되는 측면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⁸⁹⁾

작가들이 이러한 여공들의 내면세계에 처음으로 관심을 기울인 시기는 여공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투고하기 시작한 1920~30년대였다.⁹⁰⁾ 그래서 이 시기에 창작된 공장소설들에는

이적효, 「총동원」, 『비판』, 1931.8.

한인택, 「적은 여공(女工)」, 『비판』, 1932.4.

함대훈, 「호반」, 『조광』, 1937.1.

86) 강이수, 「공장체제와 노동규율」,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학과학사, 1997, 149-150쪽.

87) 강이수(1997), 위의 글, 118-119쪽.

88)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문학: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김원·노지승 역, 후마니타스, 2017, 55쪽.

89)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여성주의 문화론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4, 429쪽.

90) 루스 배러클러프(2017), 앞의 책, 19쪽.

남성 노동자뿐 아니라 여공들 역시 새로운 노동 주체로 그려진다. 작가들은 소설 속에서 여공들의 비중이 높은 방직공장이나 고무공장의 현실과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다층적 차별,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연대하는 모습들을 재현하였다.

그런데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일본의 제국주의와 인간보다 상품을 우위에 두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여공이 당하는 차별이나 그로 인한 고통을 남성 직공이 처한 상황과 구별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소설의 남성 중심적 성격은 기존 연구 대부분이 여공들을 근대적 노동 환경에 뒤늦게 합류한 민족적, 성적, 계급적 타자로 분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⁹¹⁾

그래서 본고에서는 여공들의 문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보다 정치하게 다루고 이들의 긍정성과 역동성에 주목하기⁹²⁾ 위해 젠더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연결하여 사유하고자 한다. 남성적/공적/바깥/직장/일/생산/독립/권력과 대비되는 여성적/사적/안/가정/여가/소비/의존/권력 부재의 구도⁹³⁾처럼 공간과 관련해서도 젠더화된 이분법은 작동한다. 린다 맥도웰은 각각의 장소에서 통용되는 공간의 규칙이 성적 차별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여성’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⁹⁴⁾ 본고에서는 공장과 여공 기숙사 안에서 작동했던 젠더화된 규율과 그것을 넘어서는 여공들의 투쟁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갈 것이다.

2. 공장 속 젠더규율과 이중착취의 일상화

1920~30년대에 등장한 방직공장은 남성 관리자들이 주로 머무는 사무소와 여공들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여공들이 남성 관리자의 공간인 사무소에 불려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여공들 사이의 일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스파이’ 역할을 제안 받거나, 불온한 여공으로 찍혀서 구타와 욕설을 당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관리자에게 성적으로 착취를 당할 때 이 공간으로 불려갔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경우든 여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 이것은 공장 안에서 작동하는 성별 구분이 곧 공간에 기반을 둔 위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여공들은 사무소뿐 아니라 자신들의 공간인 작업장 안에서도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특히 대부분의 여공들이 방직공업에 종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공들은 손이 부풀어 오르는 무좀에 걸리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폐병, 그 외에도 햇빛을 보지 못해 생기는 각기병 등의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하루 12시간의 노동과

91) 박산향, 「일제강점기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에 대한 폭력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6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Vol.58, 민족문학사연구학회, 2015.

서영인, 「프로문학의 자기반성과 여성의 타자화」, 『민족문학사연구』 Vol.45, 민족문학사연구학회, 2011.

서지영, 「여공의 눈으로 본 식민지 도시 풍경」, 『역사문제연구』 No.22, 역사문제연구학회, 2009.

하상일, 「식민지 여성의 현실과 사회주의 여성서사」, 『비평문학』 22, 한국비평문학회, 2006.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 문학 : 섹슈얼리티, 폭력, 재현의 문제』, 김원·노지승 역, 후마니타스, 2017.

92) 황지영, 「기술의 역학과 여공의 정동-1930년대 공장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93) 린다 맥도웰(2010), 앞의 책, 39쪽.

94) 린다 맥도웰(2010), 위의 책, 8쪽.

부족한 휴식 시간으로 인해 공장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공들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간봄에 여공 하나가 머리카락이 열레에 끼여서 마침내는 기계에 말려들어 무참하게도 죽었던 것이다. 공장에서는 이것을 극비밀에 붙이고 거게 대한 이야기도 못하게 하나, 곁에서 이 참경을 본 몇몇의 여공들이 있었으므로 아는 듯 모르는 듯 그 말이 전 공장 안에 짝 퍼졌던 것이다. 그 후로 이 공장에서는 여공들에게 이런 작업복과 수건을 쓰라고 엄명하였다. 물론 공장에서 내준 것이 아니고 여공들 스스로 해 입게 하였던 것이다.⁹⁵⁾

게다가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여공들도 있었다. 강경애의 『인간문제』에는 머리카락이 열레에 끼여서 사고사를 당하는 여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사고가 난 후 공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여공들이 자비로 수건을 구매해서 머리카락을 동여매게 만든다. 공장 안에서는 여공들의 노동뿐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며, 여공들은 공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지게 된다.

이처럼 여공들의 공간인 공장 및 기숙사를 르페브르의 공간 개념과 연결해 보면 새롭게 생각할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자 일상생활을 재코드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분석하면 공간 생산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공간적 실천의 문제를 자본과 연관되는 공간의 정치경제라고 파악하였다.⁹⁶⁾

특히 젠더화된 규율공간으로서의 여공 기숙사는 단순히 노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젊은 여공들의 순결과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와 연동하면서 등장한 것이었다.⁹⁷⁾ 하지만 여공들의 순결을 지켜준다는 것은 허울뿐이었고 공장의 남성 감독들은 여공들이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무시로 들어왔고, 기숙사 복도에서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하는 여공들도 적지 않았다.⁹⁸⁾ 그러므로 여공 기숙사는 공간 속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장 안에 개입해⁹⁹⁾ 젠더화된 서열을 만들고 그 서열에 따른 권력적 효과를 낳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규율공간인 여공 기숙사는 여공을 확보하고 규칙적인 작업 시간에 노동자를 적응시키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다. 그래서 기숙사는 휴식과 숙소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의 모든 생활을 완전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숙사에서의 감시와 통제는 시간적, 물리적 통제뿐 아니라 정신적 통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¹⁰⁰⁾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면서 여공들은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95) 강경애, 『인간문제』,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404쪽.

96) 태혜숙(2004), 앞의 논문, 42쪽.

97) 문영희, 「공간의 재배치와 식민지 근대 체험」,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293쪽.

98) 송계월, 「공장소식」, 『신여성』, 1931.12.; 안승현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2 : 일제 강점기(1930-1932)』, 보고서, 1995, 275쪽.

99) 미셸 푸코, 「공간, 지식, 권력- 폴 래비나우와의 인터뷰」,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 지성사, 2014, 88쪽.

100) 문영희(2004), 앞의 글, 287-288쪽.

3. 배수진이 된 기숙사와 숙련 여공들의 임금 투쟁

공장소설의 여공들은 대부분 방직공장이나 고무공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래서 이곳들에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 그 주체는 단연 여공이었다. 방직공장의 여공들은 노동 과정에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만큼 단결력과 조직력을 발휘하기에도 용이한 상태였다. 1930년대 신문들은 여공들이 스트라이크를 시작하면 이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여공들의 주체성을 폄하하려고 했지만 실상은 기사와 달랐다. 방직공장에서의 스트라이크는 기숙사에 있는 여공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외부 조직과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2장에서 살펴본 병이 들 정도로 지속되는 고강도의 노동 이외에 열악한 기숙사 환경과 반복되는 임금 삭감 등도 포함되었다. 이 시기 여공 기숙사의 식비는 본인 부담으로 대개 일일 18~20전이였다. 하지만 이 식사는 몹시 조악한 수준이었다. 풀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석유 냄새가 나는 찐 밥과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도 없는 새우젓이 유일한 반찬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사로 인해 여공들은 영양실조나 소화불량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심한 경우에는 상한 반찬을 먹은 수백여 명의 여공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였다.¹⁰¹⁾

그들이 식당까지 왔을 때는 몇백 명의 여공들이 가득 들어앉았다. 식당은 기숙사의 맨 하층 지하실이었다. 장방형으로 된 방안에 밥 김이 어리어 훈훈하였다. 길단 나무판자를 네 줄로 이편 끝에서부터 저편 끝까지 이어냈으며, 그 위에는 통이며 공기가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은 밥을 보자 식욕이 버쩍 당겼다. 술을 들고 한참이나 퍼먹다가 보니 쌀밥은 틀림없는 쌀밥인데 식은 밥 찌놓은 것같이 밥에 풀기가 없고 석유내 같은 그런 내가 후끈후끈 끼쳤다. (중략) 그나마 반찬이나 맛이 있으면 먹겠지만 반찬 역시 금방 절인 듯한 소금덩이가 와그르르한 새우젓인데 비린내가 나서 영 먹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식욕이 일어나지 않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만 났다.¹⁰²⁾

공장 측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고 편안히 잠잘 자리를 주고 하루 몇 시간씩 글을 가르”친다고 선전한 것과 판이한 기숙사의 부실함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불경기로 인해서 공장주들이 여공들의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은 삭감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임금 삭감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깎는 일이 지속되면 여공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준비하였다.

스트라이크가 시작되면 회사 측은 1차적으로 통근 여공과 기숙사 여공을 분리하였다. 기숙사 여공이 스트라이크를 주도할 때는 통근 여공의 출근을 저지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고, 통근 여공이 스트라이크를 주도할 때는 기숙사 여공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¹⁰³⁾ 이때 기숙사 제도는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때 기숙사에 여공을 감금해 스트라이크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기구로도 활용되었다.¹⁰⁴⁾ 때때로 공장 측은 스트라이크 시기

101) 「삼백 여공 중독」, 『조선중앙일보』, 1934.8.15.; 「고등어 반찬 먹고 삼백 여공이 중독」, 『매일신보』, 1934.8.15.

102) 강경애, 『인간문제』,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356쪽.

103) 이정옥, 「일제강점기 제사 여공과 고무 여공의 삶과 저항을 통해 본 공업 노동에서의 민족차별과 성차별」,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편, 『경계의 여성들: 한국 근대 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13, 136-137쪽.

에 여공들을 기숙사에 가두고 음식, 전기, 물 등을 끊어서 항복을 받아내려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유진오의 「밤중에 거니는 자」에는 “기숙사 없는 것이 여직공 단합에는 제일 유리” 하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하지만 윤기정의 「양회굴뚝」에 나오는 여공들의 모습은 이러한 공장 측의 의도를 넘어선다. 공장 측은 “집에서 다니는 여공들이 일을 더 하고 샅전을 적게 받겠다고 하더라도 공장에서는 일을 시키지 않기로 작정”하며 통근 여공과 기숙사 여공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였다. 하지만 통근 여공들은 끝까지 기숙사 여공들을 믿었고 기숙사 여공들도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기숙사 여공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숙사에 배수진을 친 채 항전하였다. 이때 스트라이크의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었던 것은 불량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는 숙련 여공들이었다. 이들이 스트라이크에 동참하게 되면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공장 측은 여공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스트라이크에 참여한 여공 “삼백 명 중에 이백오십 명 이상이 숙련직공”이었기 때문에 여공들의 뜻은 보다 쉽게 관철된다. 통근 여공과 기숙사 여공 사이의 신뢰와 파업에 참여한 인원 중 80% 이상이 숙련 여공이라는 사실이 스트라이크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숙사는 공장주가 여공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공들 사이의 단결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숙사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진행되는 여공들의 스트라이크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¹⁰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적효의 「총동원」에 찌라시의 형태로 제시된 것처럼 여공들이 스트라이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식사 개선, 벌금제 폐지, 기숙사생 외출의 자유, 최저임금 보장, 감독(공장장) 해고, 구타 금지, 부당해고 철회 등이었다. 그 외에도 간헐적으로 점등 자유나 산전산후(産前産後) 휴양 및 생활비 지급, 수유시간의 자유 등에 대한 요구도 등장하였다.¹⁰⁶⁾ 여공들은 만성화된 착취와 폭력 속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였다.

4. 기숙사에 잠입한 여공 전위들의 교란 작전

푸코에게 공간은 모든 형태의 공동체적 삶에서 그리고 모든 권력의 행사에서 근본적인 것이었지만¹⁰⁷⁾, 그는 근대적 규율공간을 분석하면서 ‘공간’은 죽은 것, 고정된 것, 비변증법적인 것,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였다.¹⁰⁸⁾ 하지만 권력과 규율이 작동하는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들을 창출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힘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특정 공간의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들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장에서 다룬 것처럼 기숙사를 배수진 삼아 투쟁을 할 때 숙련 여공들이 합류하여 스트라이크를 승리로 이끄는 일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숙사에 사는 여공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스트라이크를 준비한 점과 기숙사를 물리적 공간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

104) 이정옥(2013), 위의 글, 131-132쪽.

105) 아일린 R.미핸·엘렌 리오던 편, 『섹스와 돈: 페미니즘과 정치경제학, 그리고 미디어』, 김선남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4쪽.

106)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01, 46-49쪽.

107) 미셸 푸코, 「공간, 지식, 권력- 폴 라비나우와의 인터뷰」,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 지성사, 2014, 87쪽.

108) 에드워드 소자(1997), 앞의 책, 13쪽.

계가 있다. 외부와의 교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930년대가 되면 공장 스트라이크에 대한 지식을 지닌 조직들 사이에서 선진적인 스트라이크 전략이 공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기숙사의 물질성을 넘어서서 여공들의 정신까지 변화시켜서 투쟁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기숙사가 진정한 저항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여공들을 조직하여 이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역할은 기숙사 안에 있는 여공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공장 밖 조직에서 전위들을 공장에 위장 취업시켜 이들이 여공 전위가 되는 일들도 있었다. 잠입한 전위들의 주된 역할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감독의 감시를 피하면서 외부의 조직과 소통하고 기숙사 안의 여공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공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감시와 통제가 자심한 곳이었다. 기숙사 중에는 한 방에 열 명씩이 기거하는 곳도 있었고, 수위가 교대로 여공들을 감시하여 극도로 자유를 제한당하는 곳도 있었다. 그래서 여공 전위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장 안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오수향」에 등장하는 여공 전위들은 공장 ‘뒷간의 벽’에 “‘우리는 조합을 조직하자. 우리들의 힘은 조합이다.’” “‘동맹파업을 하자.’”¹⁰⁹⁾ 등의 내용을 낙서 형태로 적어 다른 여공들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인간문제』의 간난이는 노동자 계급 여성으로서 식민지 근대성을 체현한 후 공장의 폭력적인 문화에 가장 잘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자, 사고하고 행동하는 정치적 존재로 그려진다.¹¹⁰⁾ 여공들을 조직하기 위해 공장에 취업한 간난이는 외부에서 제작한 뼈라를 공장 “담 밑에 수챗구멍”으로 받아서 공장 안에 유통시킨다. 공장에 들어오자마자 외부와 연락할 창구를 찾던 간난은 콘크리트 담벽 앞에서 구멍을 찾지 못해 당황했지만, 곧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구멍”을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간난이는 여공들을 조직하고 관리자들을 교란시켜야 하는 계급투쟁의 주체로서 감식안을 지니고 있었다.

위장 취업한 여공 전위들은 공장 안에 있는 외진 곳을 활용하여 외부와 연락을 취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한편 기숙사 안에서도 공장 측을 속이기 위한 교란 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향은 공장 관리자의 스파이로 위장하여 통제가 자심한 기숙사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공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 기생 시절에 알고 지내던 공장 지배인의 도움을 받은 수향은 ‘가짜 스파이’가 되어 여공들에 대한 “거짓말의 고자질”을 하고, 밤에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여 공장 관리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스트라이크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일조한다.

“애 영자야, 요새 펍 일이 고되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였다. 그러면서 연필을 꺼내 들고 가만히 글씨를 쓴다. “내일 아침에 식당으로 모여논단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역습하자. 요구조건을 제출하자.” (중략) “내가 오늘 밤에 오늘 일을 정리할 책임을 가졌으니 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각 반의 준비위원회에 통지를 하겠다. 너희들도 내일 식전에 세수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직공들에게 미리 내통을 해서 단합을 시켜라.”¹¹¹⁾

109) 송영, 「오수향」, 『조선일보』, 1931.3.1.~3.26.; 안승현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2 : 일제 강점기 (1930-1932)』, 보고사, 1995, 142쪽.

110) 루스 배러클러프(2017), 앞의 책, 104-118쪽.

위의 인용문에서 단연 돋보이는 점은 여공 기숙사는 한 평밖에 안 되는 방에서 세 명이 함께 생활하고 전등은 가운데 벽을 뚫고 두 방 걸러 한 개씩 켜다는 점을 감안해, 수향이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와 영자만 볼 수 있는 ‘글씨’를 동시에 사용하여 각각 다른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이다. 수향은 ‘말’로는 영자의 안부를 물으면서 동시에 ‘글’로는 스트라이크 계획을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그리고 밤중에도 자유롭게 기숙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신이 할 일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영자의 역할을 나누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일과표 속에 있는 ‘세수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여공들과 소통한다. 이 일이 발각되어 수향과 영자는 공장에서 쫓겨났지만 이들이 조직한 스트라이크로 인해 “대흥섬유노동조합”이 탄생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5. 여공들의 밤과 기숙사의 철망 넘기

고프만은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수의 개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바깥 사회와 단절된 채 거주하고 일하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곳의 특징으로 “외부와 사회의 접촉과 이탈을 가로막는 장벽”을 꼽는다. 또한 다수의 인간적 욕구들을 다룰 때 사람들을 관료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총체적 기관의 요체임을 강조한다.¹¹²⁾ 근대 여공들의 기숙사가 총체적 기관일 수 있는 이유는 이곳 역시 높은 벽이나 철조망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공들의 삶이 공장의 관리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여공들이 기숙사의 철망을 밤에 몰래 넘는 경우는 대부분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꿈꾸기 때문이었다. 공장 생활에 지친 몇몇 여공들은 “혹 다른 공장이나 나올까 하여 기숙사 뒷담을 넘어 달아”났다. 그래서 기숙사 창고에는 달아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옷상자와 바구니가 가득 차 있었다.¹¹³⁾ 이 경우는 근무하던 공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위해 기숙사의 담을 넘는 것이었다면, 주기적으로 기숙사의 철망을 넘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여공들도 있었다. 그리고 전자든 후자든 공장의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월당을 한 여공들이 스트라이크에서 주로 전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랑시에르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밤」은 이런 여공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랑시에르는 이 글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것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던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하는 밤에 이들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사회의 모순과 현실의 문제를 깨닫는다. 그리고 이런 각성의 순간 뒤에는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변화된 모습이 등장한다. 정당한 자신의 ‘몫’에 대한 감각 자체를 지니지 못했던 이들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깨달은 후 인간 ‘평등’과 자신의 ‘몫’에 대한 감각을 터득한 것이다.

여공 기숙사가 등장하는 작품¹¹⁴⁾ 중에서 여공들의 밤이 지닌 의미가 두드러지는 작품은

111) 송영, 「오수향」, 『조선일보』, 1931.3.1.~3.26.; 안승현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2 : 일제 강점기 (1930-1932)』, 보고서, 1995, 145쪽.

112) 어빙 고프만, 『수용소』, 심보선 역, 문학과지성사, 2018, 11-19쪽.

113) 송계월, 「공장소식」, 『신여성』, 1931.12.; 안승현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2 : 일제 강점기 (1930-1932)』, 보고서, 1995, 275쪽.

114) 1920~30년대에 창작된 공장소설들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여공은 등장하지만 기숙사는 등장하지 않는 작품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들이 평등과 자신의 몫에 대한 감각을 깨닫는 장면을 그려낸 작품은 김남천의 「문예구락부」이다. 이 작품은 양말공장에 다니는 동료들이 퇴근 후에 문예구락부에 참여하여 동시도 짓고 감상문도 쓰면서 자신이 처한 노동 현

「오수향」, 「여직공」, 『인간문제』이다. 수향은 기생이던 시절에도 “언제든지 밤이면 신문과 잡지를 보고 공책을 꺼내 놓고 일기”를 쓰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신문에 “여성청년회 원이나 여자조합원의 활약한 사실”이 나오면 더욱 눈여겨 보았었다. 이처럼 수향은 랑시에 르가 이야기하는 프롤레타리아트처럼 밤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공 전위가 될 수 있었고 파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기숙사 속에서는 참말 어려워요. 감시하는 눈이 사방에서 빛나고 비밀은 조금도 지킬 수 없고 동모들의 생각은 알고 그렇지만 나는 밤에 잘 때를 이용했어요. 한 번 뜻을 통하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일은 쉬워요. 지금 제도 아래서는 점심 때 저녁 때 변소에 갔을 때를 타서 서로 소식은 얼마던지 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방에 있는 사람 셋 다음 방 밖에 있는 사람 둘, 도합 다섯 명을 얻었세요. 지금 예산 같으면 앞으로 이주일 안에 방방이 사람을 얻을 것 같아요.”¹¹⁵⁾

수향과 함께 파업을 주도한 영자 역시 유사한 경로를 거치면서 의식적인 성장을 이루어간다. 모든 시설들이 열악한 여공 기숙사에서 작업을 끝낸 대부분의 여공들은 잠을 잤지만 영자는 그 안에서 “『자본주의의 기교』니 『여공애사』니 『부인론』이니 『어떻게 싸울까』니 하는 사회서적”을 읽었다. 기숙사는 소등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밤에 책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작은 촛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자신들이 받는 처우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의 인용문에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나간다.

「여직공」의 보배는 소등이 된 후에 기숙사의 철망을 넘어서 외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우리는 왜 가난한가』를 읽고 토론하였다. 어떤 날은 감시가 허술해지는 시간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변소에 가는 체”를 하며 철망을 넘기도 하였다. 낮에 일만 하던 여공들이 밤에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되면 이제 그들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행동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이들은 밤에 기숙사의 철망을 넘어서 외부의 전위들과 교류한 후 “자본가와 노동자 그 사이의 이해관계”와 “노동자를 위해 일해줄 사람은 노동자 자신밖에 없다”는 “새 지식”을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져나간다. 그리고 공장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움뚝듯이 철망 넘는 년”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오수향」과 「여직공」에는 밤에 책을 읽고 토론하는 여공들이 등장했다면 『인간문제』에는 밤에 철망을 넘어 탈출하는 간난이와 간난이가 떠난 후 공장 안에서 간난이의 역할을 이어가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진다. 여공 전위인 간난이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났다고 판단한 후 뒷일을 선비에게 맡기고 기숙사 담을 넘어 탈출한다. 선비는 투쟁 의지를 고취시켜 주려는 간난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간난이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난 후에는 기숙사에 뼈라를 돌리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금씩 계급의식에 눈뜨게 된다.

루스 배러클러프는 여공들이 등장하는 공장소설은 여공들을 재현하고 있긴 하지만, “여공들에게 말을 걸고 있지는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층계급 여성

실을 문학의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촌평하고 토론하면서 그 배움의 힘을 바탕으로 투쟁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공은 등장하지만 기숙사가 등장하지 않는 이기영의 「민며느리」에는 밤에 공부를 해서 ‘글 바다’로 뛰어드는 금순이 등장한다.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공부를 통해 자신이 겪은 비극의 원인은 ‘가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산계급 전선의 한 투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115) 송영, 「오수향」, 『조선일보』, 1931.3.1.~3.26.; 안승현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2 : 일제 강점기 (1930-1932)』, 보고사, 1995, 165-166쪽.

들의 높은 문맹률과 그들을 녹초로 만드는 공장 노동이 독서 자체를 불가능한 취미로 만들었기 때문이다.¹¹⁶⁾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여 창작된 것인 동시에 작가가 문학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이상 또한 담고 있다. 여공들이 밤에 책을 읽고 철망을 넘어서 외부의 전위들과 접촉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몹시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이것은 작가들의 소망과 여공들의 염원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하나의 지향점이기에 의의를 지닌다.

6. 여공 기숙사, 죽음을 넘어선 집합적 주체의 양성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식민지 시기의 공장은 표준화된 인력을 양성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제가 참여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공장 운영자 혹은 규율공간의 기획자들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여공들은 순종적으로 착취만 당했던 것이 아니라 공장 안에서 진행되는 불합리한 폭력들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특히 집단생활이 이루어졌던 여공 기숙사는 여공들이 단결권을 행사해서, 규율공간의 기능을 초과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여공들은 규율의 대상인 동시에 저항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고 그러면서 역동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선동했던 여공들이 공장에서 쫓겨난 후에 그 흐름이 남겨진 여공들에게로 전이되었다는 것 역시 눈여겨 보아야 한다. 식민지의 정치적 상황은 표준화 과정으로부터 어긋난 인물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스트라이크를 선동한 여공들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공장 밖으로의 축출이 이어졌다. 하지만 스트라이크로 가시화되었던 여공들의 저항 행위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여공 기숙사에 철망을 넘고자 하는 욕망의 씨앗은 뿌려졌고, 그 씨앗은 ‘버섯뿌리’처럼 계속해서 뻗어나갔다.

『인간문제』에서 간난이가 떠난 후 선비가 각성한 것처럼 공장소설 속에서 여공들의 성장은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공의 죽음은 남겨진 이들의 의기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적효의 「총동원」에는 투사 부부인 옥점과 진필이 등장하는데, 투쟁하다가 검거된 진필이 감옥 안에서 전향을 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다. 매수된 진필은 돈뭉치를 내놓으며 옥점에게 직공들이 공장 측과 타협하도록 설득하자고 하지만, 옥점은 남편과 헤어질 결심까지 하며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 결국 옥점은 진필에게 맞아 죽고 옥점의 시체를 본 직공들은 “우리들은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격분한다. 결국 스트라이크는 분노한 직공들의 승리로 끝나고 “음산한 공장 속에서 일들을 하는 남녀직공 이천여 명 머릿속에는 용감하게 맞아 죽은 옥점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기숙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작품은 『인간문제』와 「공장 소식」이다. 여공 기숙사 안에서 여공들은 잠을 자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투쟁을 위한 조직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여공들이 병에 걸리면 기숙사에서 쫓겨나가거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인간문제』의 선비는 폐병에 걸린 후 기숙사에 누워 따뜻한 온돌방을 그리워하고, 「공장 소식」의 옥분 역시 같은 병에 걸린 후 기숙사에 누워서 이곳에서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와 며칠 전에 죽은 동무를 생각한다. 죽음이 다가온 여공들에게 기숙사는 안락함을 제공하지 못한 채 죽음의 이미지와 차가움의 이미지가 결합된 ‘냉돌’로 인식된다.

이렇게 무섭게 첫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선배의 시체는 차츰 시커먼 뭉치가 되어 그의 앞에

116) 루스 배러클러프(2017), 위의 책, 143쪽.

각 가로질리는 것을 그는 눈이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았다.

이 시커먼 뭉치! 이 뭉치는 점점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뭉치…… 시커먼 이 뭉치, 이 뭉치야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 인간 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천만년을 두고 싸워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첫째와 같이 험상궂은 길을 걸어왔고 또 걷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인간들이 굳게 뭉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⁷⁾

차가운 기숙사에 누워 있던 선비는 폐병임이 밝혀진 후 공장에서 바로 해고되고, 그 다음 날 간난이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선비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첫째의 눈에 ‘선비의 시체’는 점점 커지는 ‘시커먼 뭉치’로 형상화된다. 이 시커먼 뭉치를 본 첫째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임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인간들과 굳게 뭉칠 것임을 맹세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서술이 등장하진 않지만 선비의 마지막을 함께 한 간난이 역시 이 투쟁에 합류할 것이 암시되면서 작품은 끝이 난다.

한편 「공장 소식」의 서술자 옥분은 다른 여공들처럼 기숙사의 냉돌 위에서 쓸쓸히 죽어 간다. 이처럼 기숙사 안에서 여공의 죽음이 다루어질 경우 기숙사는 비극성을 획득하게 되지만, 여공의 죽음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투쟁을 촉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소설은 옥분이 S언니에게 편지로 유언을 남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언의 내용은 S언니에게 “무수한 동무들을 위하여” 힘 있게 싸우고, “남은 내 뒷동무들의 참다운 동지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소설은 S언니의 건투를 비는 것으로 끝이 난다.

옥점의 시체를 보고 노동자들이 각성을 하고, 간난이가 죽어가는 선비를 받아주고 선비의 시체를 보고 첫째가 맹세를 하며, 죽어가면서 동지들과의 연대를 부탁하는 옥분은 여공들의 스트라이크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여공의 죽음과 연결하여 여공 기숙사는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서 집합적 주체의 발견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공간이라고 의미화할 수 있다. 여공들이 어떤 행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숙사는 규율의 공간을 넘어 항거의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대의 여공 기숙사는 여공 개개인을 성장시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투쟁의지를 지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이고 집합적인 주체가 생성되는 곳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여공 기숙사는 여공들의 상호적이고 연쇄적인 성장이 가시화되고 의미화되는 곳, 다시 말해 여공이라는 “집합적 주체들의 양성소”라고 부를 있을 것이다.

117) 강경애, 『인간문제』,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413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안승현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1 : 일제 강점기(1920-1929)』, 보고사, 1995.
——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2 : 일제 강점기(1930-1932)』, 보고사, 1995.
——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2 : 일제 강점기(1933-1938)』, 보고사, 1995.

- 강경애, 『인간문제』, 『동아일보』, 1934.8.1.~12.22.
김남천, 「문예구락부」, 『조선중앙일보』, 1934.1.25~2.2.
박영준, 「소녀공」, 『전선』, 1933.5.
송계월, 「공장소식」, 『신여성』, 1931.12.
송영, 「오수향」, 『조선일보』, 1931.1.1.~1.26.
유진오, 「여직공」, 『조선일보』, 1931.1.2.~22.
윤기정, 「양회굴뚝」, 『조선지광』 91호, 1930.6.
——, 「여공」, 『신계단』 6호, 1933.3.
이기영, 「민며느리(금순의 소전)」, 『조선지광』, 1927.6.
——, 『고향』, 『조선일보』, 1933.11.15.~1934.9.21.
이적효, 「총동원」, 『비판』, 1931.8.
한설야, 『황혼』, 『조선일보』, 1936.2.5~10.28.
한인택, 「적은 여공」, 『비판』, 1932.4.
함대훈, 「호반」, 『조광』, 1937.1.

2. 논문

- 강이수,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1992.
곽건홍, 「1930/40년대 서울지역 공장 여성노동자의 생활」, 『郷土서울』, No.70, 2007.
김지영, 「여공의 신체에 새겨진 "화폐"의 초상」, 『현대소설연구』 No.33, 2007.
박산향, 「일제강점기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에 대한 폭력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69, 2015.
배상미, 「'여성노동자'라는 새로운 범주설정의 필요성」, 『여성학논집』 Vol.31 No.1, 2014.
——,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Vol.58, 2015.

- 서영인, 「프로문학의 자기반성과 여성의 타자화」, 『민족문학사연구』, Vol.45 2011.
- 서지영, 「여공의 눈으로 본 식민지 도시 풍경」, 『역사문제연구』, No.22, 2009.
- 서형실, 「식민지 시대 여성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전반기 고무제품 제조업과 제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1989.
- 안연선, 「한국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1987.
-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 - 1920년대 ~ 193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담론 201』, Vol.9 No.2, 2006.
- 이호연, 「1920·30년대 방직공업 '여공'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 『여성이론』, No.13, 2005.
- 진선영, 「송계월 서사 연구」, 『여성문학연구』 Vol.34 No, 2015.
- 하상일, 「식민지 여성의 현실과 사회주의 여성서사」, 『비평문학』 22, 한국비평문학회, 2006.
- 황지영,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의 이행」, 『이화어문논집』 제42집, 2018.

3. 단행본

-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011.
- 김경일, 『한국 노동운동사일제하의 노동운동 : 1920~1945』, 지식마당, 2004.
-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학과과학사, 1997.
- 김한수, 『노동야학, 해방의 밤을 꿈꾸다- 노동과 학습은 어떻게 만나는가』, 따비, 2018.
-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01.
-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 편집실 편역, 『어느 女工의 노래』, 인간사, 1983.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편,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한울, 2001.
- 낸시 홈스트롬 엮음,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35인의 여성/노동/계급 이야기』, 메이데이, 2013.
-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 문학 : 섹슈얼리티, 폭력, 재현의 문제』, 김원·노지승 역, 후마니타스, 2017.
-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한울아카데미, 2010.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3.
-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 어빙 고프먼, 『수용소』, 심보선 역, 문학과지성사, 2018.
- 에드워드 소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외 역, 시각과 언어, 1997.
- 외르크 뒤링·트리스탄 틸만 편, 『공간적 전회』, 이기숙 역, 심산, 2015.
-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 양창렬 역, 궁리, 2008.
-
- 細井和喜藏, 『女工哀史』, 岩波書店, 1989.

「근대 여공들의 스트라이크와 기숙사의 지정학」에 대한 토론문

박 구 비 (한신대)

황지영 선생님의 「근대 여공의 스트라이크와 기숙사의 지정학」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1920-1930년대의 공장소설을 중심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여공들의 생활의 터전인 공장 기숙사 안에서 작동했던 억압과 저항에 대해 고찰하고, 젠더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연결하여 여공들이 가진 긍정성과 역동성을 다룬 논문입니다. 특히 젠더화된 규율공간으로 언급되는 기숙사를 ‘스트라이크’라는 실질적 저항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자, 여공들을 연쇄적인 ‘집합적 주체’로 만들어내는 생성의 공간으로 해석하여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논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디다만,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먼저, 2장에서 언급하신 대로 공장은 남성 관리자들과의 사무소와 여공들의 작업장으로 젠더적으로 위계화된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공들의 기숙사는 젠더화된 규율 공간으로 감시와 통제를 통한 이중착취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논문에서 다루는 기숙사 공간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기숙사를 성적 착취의 공간으로만 읽기보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된 여공의 섹슈얼리티가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읽을 때 이 논문이 가진 새로운 지점이 더 잘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공들이 공장 내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한다는 데에서 기숙사라는 공간이 젊은 여공들의 순결과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비틀어 보여준다는 적극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루스 배러클러프는 강경애의 『인간문제』의 공장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공모된 섹스”에 주목합니다. 특히 남성 지식인 작가들의 공장소설에서 여공이 성폭력의 대상으로, 강간이 여공의 각성을 이끌어내는 장치로 묘사되는 데에 반해, 강경애는 공장 감독과 여공의 관계를 강간이나 에로틱한 폭력으로 묘사하지 않고, 폭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직공과 감독 간의 은밀한 관계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¹¹⁸⁾ 선비는 간난이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간난이 역시 그런 일을 저지르거나 않는가?”하고 의심하지만, 사실 간난이는 기숙사 내 스트라이크를 비밀리에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간난이는 어느 여공과 감독의 관계를 목격하고, 여공들이 감독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약간의)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표면화하여 여공을 피해자로 위치시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선비와 기숙사 내 여공들에게 ‘감독’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 담긴 전단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 사건을 단순히 성추문에 그치지 않고, 공장 내에서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여공들의 ‘각성’이 가능하도록 이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기숙사를 이중착취의 공간뿐만 아니라, 공모와 전략의 공간으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여공들의 철망 넘기’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논하신 5장의 마지막 문단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러클러프는 1970년대 이후에서야 여공들이 직접 사회에

118)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 문학: 섹슈얼리티, 폭력, 재현의 문제』, 김원 · 노지승 역, 후마니타스, 2017, 129쪽.

말을 걸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¹¹⁹⁾ 그렇다면, 1970년대 이후 등장하는 여공들의 소설들과는 다른 1920-30년대 공장소설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1920-30년대 공장소설 속에서 “작가들의 소망과 여공들의 염원이 어우러진 하나의 지향점”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소설 속에서는 ‘철망 넘어 외부와 접속하기’로 재현된다면, 이 재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덧붙여 1920-30년대 공장소설 속 기숙사와 1970년대 이후 실제 여공들의 글쓰기 속에서 묘사되는 기숙사 공간은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이 차이를 통해서 1920-30년대 공장소설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집합적 주체로서의 여공들과 기숙사 공간의 정치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토론자의 이해가 부족하여 드리는 질문들에 양해를 구하며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좋은 논문 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9) 위의 책, 143쪽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둘러싼 ‘상상’의 가능성

- 김숨의 소설을 중심으로 -

김 소 루 (이화여대)

차례

1. 들어가며
2. 규제된 ‘상상’과 재현의 부담
3. 과잉된 ‘상상’과 재현의 한계
4. 나가며

1. 들어가며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¹²⁰⁾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정의연(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과 윤미향 국회의원을 향한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시민 운동의 진정성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 모았다. 기자회견의 여파는 무려 28년간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을 지켜온 ‘수요 집회’ 장소를 보수단체에 내어주는 상황으로 까지 이어졌다. 언론은 자유연대가 ‘수요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육일기를 동원해 정의연 해체·수요시위 폐지·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2015년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협상 무효’를 두고 빚었던 국내 세력 간의 갈등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과거·어제·제3자’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재·오늘·우리’의 문제임을 다시금 가시화한다.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91년에 이루어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공식적인 증언 이전에도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종군위안부’ 혹은 ‘정신대’라는 용어로 혼용하며, 특히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방영하는 특집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소비해왔다. 일본 군인들에게 고통 받는 무력한 피해자의 모습은 반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정조를 잃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자살 혹은 정신 분열은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비되어온 정형화된 이미지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공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고통을 고통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은 것이다.¹²¹⁾

120) 위안부는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용어라는 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성과 강제성을 감춘다는 문제를 갖는다. 현재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와 ‘군대성노예제도(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노예’라는 강한 표현이 일부 피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군이 취하려는 ‘위안’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적 용어로서의 위안부에 작은따옴표를 붙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도 이를 수용하여 일본군 ‘위안부’라고 표기한다. - 김소룬,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학회』 제77권, 2018, 304쪽.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만이 아니다. 실제로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 징발은 식민지 조선을 넘어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개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한 속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주목할 성폭력·인권 침해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이자, 전쟁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본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사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세에 관한 고찰을 시도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 조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근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소설·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웹툰·웹드라마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꾸준히 재현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해당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드러낸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일본군 ‘위안부’를 재현하는 영상물이 꾸준히 제작되고 있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입증한다.¹²²⁾ 그러나 해당 작품들에서 재현되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살펴보면, 해당 문제를 사유하는 우리의 정형화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분야 가운데 유독 소설 분야에서 적극적인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현대소설 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은 1982년에 발표된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이다. 그러나 윤정모의 작품 전후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수많은 역사적 상처들이 소설을 통해 형상화해 온 사실을 떠올릴 때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¹²³⁾ 우리는 소설을 통해 지나온 시대를 파악하고, 현재를 조명하며, 나아갈 미래를 그려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일련의 소설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윤정모의 소설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전문 작가로서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서사화하고 있는 김숨의 소설에 주목하게 된다.¹²⁴⁾ 김숨은 2016년에 장편소설 『한 명』을 시작으로

121) 해당 논의는 폭력적 이미지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폭력적 이미지에 과도하게 노출된 나머지 폭력적 행위의 심각성에 무뎠음을 지적했던 수잔 손택의 주장과 맞물린다. - 수잔 손택,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 이후, 2004.

122) <낮은 목소리3-숨결>(2000), <백만인의 신세타령>(2000), <붉은 나무>(2001),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2003), <침묵의 외침>(2003), <몸>(2003), <끝나지 않은 전쟁>(2008), <위대한 타자들>(2008),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2009), <소녀이야기>(2011), <레드마리아>(2012), <그리고 싶은 것>(2013), <만신>(2014), <소리굽쇠>(2014), <엄마 미안해요>(2014), <마지막 위안부>(2015), <레드마리아2>(2015), <보자기 속 손거울>(2015), <지울 수 없는...>(2015), <눈길>(2015), <귀향>(2016), <침묵>(2016), <0814, 멈춰진 시간 - 끝나지 않은 이야기>(2016), <아이 캔스피크>(2017), <소녀에게>(2017), <어플로지>(2017), <허스토리>(2018), <22>(2018), <예움길>(2018), <김복동>(2019) 등

123) 해당 문제에 관해 필자는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국제어문』 제 77집, 2018.)를 통해 “우리는 서사화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할 근거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문학 작품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서사의 부재(不在)는 역사적 상처에 관한 치유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306쪽)고 분석한 바 있다.

124) 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들로는 고혜정의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2006), 소재원의 『그날』(마래, 2014), 권비영의 『몽화』(북폴리오, 2016), 김은진의 『푸른 늑대의 파수꾼』(창

2018년에 『흐르는 편지』,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라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들 작품들은 모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김숨의 소설에 그려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주목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사유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서사가 적극적으로 그려지지 않은 이유를 조명하고, 이차적으로는 그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소설 작품들이 지닌 재현의 정형성을 비판하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문제를 둘러싼 재현의 윤리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모으고자 한다.

2. 규제된 ‘상상’과 재현의 부담

김숨의 장편소설 『한 명』은 “세월이 흘러,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단 한 분뿐인 그 어느 날을 시점으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라는 창작 배경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소설화하는 작업에 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소설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1. 이 소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소설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2. 인용한 증언들의 출처는 본문에 미주로 달았다.”라고 알려두기를 밝히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소설 속에는 무려 316개의 주석이 달려있다. 이는 작가가 소설화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부담을 엿보게 한다.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느끼는 부담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예로 소설가 한강은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 1980년 광주에 관한 소설을 서술하면서 느낀 심리적 부담을 작중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 일을 쓰려면 거기 있어야 하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까”¹²⁵⁾라는 인물의 발화는 경험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작가의 심적 부담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꾸준히 소설로서 형상화되어 왔다. 본 논문의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왜 유독 소설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사가 적극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가에 관한 의구심과 연결된다. 소영현은 소설 분야에서 일본군 ‘위안부’ 재현 문제가 적극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원인을 “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질문 즉 언어화할 수 없는 폭력과 나눌 수 없는 고통을 그려야 하는 문학적 재현이 직면한 곤경과 연관”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²⁶⁾ 그렇다면 문학적 재현이 직면한 곤경은 무엇일까?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소설인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¹²⁷⁾는 우리 사회가 묵인해온 역사적 상처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루카치는 소설을 두고 일체의 가치가 무너지고 형이상학적 지향이 사라져 버린 오늘날의 역사적 상황에서 ‘진정한 가치와 총체성’을 추구하려는 현대 인간의 의식과 동경을 형상화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가장 의미있는 예술형식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¹²⁸⁾ 윤

비, 2016), 이금이의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사계절, 2016) 등의 작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재원과 권비영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은지과 이금이의 작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125)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204쪽.

126) 소영현, 「목격증언의 자리와 공진하는 ‘위안부’의 몸」, 『구보학보』 제22호, 구보학회, 2019, 676쪽.

127) 윤정모,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고려원, 1988.

정모의 소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역사적 책임감을 외면하지 않고 해당 문제를 소설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를 갖는다. 또한 윤정모의 소설 이후로는 거의 20여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중요해진다. 그러나 해당 작품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 재현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과거를 지닌 어머니(순이)가 자신의 과거를 주체적으로 발화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발화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아들의 정체성 확인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¹²⁹⁾ 일본군들에게 성적 착취에 시달렸던 조선 여성이 조선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조선인 남성의 호적에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또한 주인공을 학대하는 전 남편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와 같이 동일한 강제 징집의 피해자라는 논리를 펼침으로써, 모두가 피해자라는 논의로 귀결되고 있음도 문제적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미 한인 작가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¹³⁰⁾(1997)는 “한국의 역사를 여성의 역사, 상처 받은 자의 역사로서 다시 씌으로써 한국의 공식적인 역사, 지배적인 역사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¹³¹⁾ 소설은 일본군 ‘위안부’ 경험을 가진 주인공 아키코(순효)를 통해 일본군인들에게 “꼬챙이로 질을 찔러 등에서 입까지 췌 채” 죽음을 당한 또다른 아키코(인덕)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김숨의 『한 명』이 316개의 각주 속에서 드러난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상처를 가시화하듯이, 『종군위안부』는 순효의 입을 빌려 위안소에서 비극적인 삶을 경험한 수많은 여성들을 인덕의 이름으로 불러 모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직접적인 발화를 시도했다는 의의를 갖지만, 그것이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체적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의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소설은 “정신대”로 지칭되는 곳에서 벌어진 온갖 범죄에 관한 증언이 어머니로서 딸에게 남기는 녹음을 통해 진술되고 있다. 죽음 이후 폭로되는 증언들은 피해 여성들의 존재가 어디까지나 ‘유령’적 존재로 자리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관한 보다 실천적인 해결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의 문제를 주변화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노라 옥자 켈러와 같은 재미한인작가인 이창래의 『척하는 삶』(1999)¹³²⁾은 군인이었던 일본인 하타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여성에 관한 서술이 이루어진다. 하타는 일본 군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조선인 여성에 대한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지만, 소설 전체가 해당 서사를 중심축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주변화했다는 비난이 뒤따르기도 한다. 여기에 화자가 일본 군인이라는 점에서 일본군에 대한 미화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이는 위안소를 찾은 군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위안소에 있는 여성들을 향한 성적 가혹 행위로 묘

128)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판사, 2014.

129) 김소륜(2018), 앞의 논문, 313쪽.

130) 노라 옥자 켈러, 『종군위안부』, 박은미 옮김, 밀알, 1997.

131) 구재진, 「〈종군위안부〉의 역사 전유와 향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1권, 한국현대문학회, 2007, 384쪽.

132) 이창래, 『척하는 삶』, 정영목 옮김, 알에치코리아, 2014. (국내에 처음 소개될 당시에는 『제스처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사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 역시 전쟁의 피해자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여타의 소설들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재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상물들에서도 지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난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은 재현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증언에 기대고 있음을 증명하는 길로 모아진다. 그 결과 ‘상상’은 규제되고, 기존의 기록에 의존한 정형화된 이미지만을 재반복하는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¹³³⁾ 이러한 가운데 김숨의 소설은 일본군 ‘위안부’ 재현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반복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문제를 극복해 나갈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관해 서술한 김숨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 『한 명』은 우리가 주목해온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들에 관한 ‘가정(假定)’을 통해 ‘상상’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설은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단 ‘한 명’만이 남아있는 시점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정’이며 작가의 ‘상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곧 마주할 것이 분명한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작품은 마지막 ‘한 명’ 남은 할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또 다른 ‘한 명’의, 드러나지 않은 피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 할머니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도록 만든 현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발화할 수 없는 억압 속에서 피해자들은 각각의 ‘한 명’이 되어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가올 미래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작가의 상상력은 소설 속에서 충분한 개연성을 획득한다.

물론 『한 명』 역시 본격적인 서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러두기를 밝히고, 소설의 말미에 316개의 주석을 수록함으로써 극복되기 어려운 재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으로 “열세 살의 자신이 아직도 만주 막사에 있다는 걸”이라고 서술한다. 그리고 그 열세 살의 어린 소녀가 자리하는 위안소로 서사의 초점을 이끈다. 그것이 바로 김숨의 두 번째 장편소설인 『흐르는 편지』(2018)이다. 『한 명』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현재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남은 단 ‘한 명’의 피해 할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전개되는 작품이라면, 『흐르는 편지』는 철저히 할머니들이 경험한 과거의 사건 속에 집중하고 있다. 316개의 각주를 통해, 3인칭으로 기술되는 관찰의 시점을 통해 기록하고자 했던 기억은 『흐르는 편지』에 이르러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 후일담으로서의 ‘위안소’가 아닌 일본군의 아기를 가진 열다섯 살 소녀가 살아가는 낙원 위안소 ‘라쿠엔’ 속의 현재로 조명된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으로만 따진다면 『흐르는 편지』가 『한 명』보다 먼저 쓰였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명』을 쓰면서 찾아 읽은 증언들과 자료들이 그 소설을 펴낸 지 2년여가 지나서야 겨우 내 안에서 체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안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쓸 용기가 생겼다.”¹³⁴⁾ 고 고백한다. 이는 『흐르는 편지』에서 살아남은 소녀가

133) 이에 대해 소영현은 “피해자로서의 낙인을 통해 정상성의 범주를 공고히 하는 방식 너머의 상상, 즉 ‘이후’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소영현, 앞의 논문, 697쪽.

『한 명』이라는 소설 속에서 생존자로 그려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생존자’의 서사가 아닌, ‘실존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서사를 통해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관한 재현의 서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이해령¹³⁵⁾이 제기한 “‘위안부’ 생존자를 중심으로 한 서사가 최적의 유용성을 갖는가”에 관해 논의에 관한 답이기도 하다.

『흐르는 편지』는 기존의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재현 서사에서 끌어오는 ‘생존자’의 목소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주인공은 자신에게 아기가 생겼음을 깨닫고 아이의 죽음을 바라면서도 태어날 아이에 관한 궁금증을 갖는 열다섯 살 소녀이다. 소녀가 살아남아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과연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것인지, 소녀가 딸을 낳으면 조센삐로 만들겠다는 오지상의 위협이 실현될 것인지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생존자의 목소리를 통한 후일담이 아닌, ‘위안소’라는 실존적 장소에 존재하는 인물의 실존적 고민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온 인물들의 목소리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라는 작품을 통해 각각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의 개별 서사와 조우하게 된다.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집이자 증언소설로 구분된다. 해당 작품들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으로 개개인의 고통과 상처가 동질화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할머니들 개개인의 서사를 소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즉, 피해자로 동질화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개개인의 서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소설적 재현의 긍정적 방향제시라고 볼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재현에서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피해 여성들의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라는 고유명사 속에서 동일한 상처와 경험을 가진 존재들로 동질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호명해야 할 것은 ‘피해자’라는 호명이 아닌, 각각의 인물들에게 부여된 고유한 이름이어야 한다. 이에 작가는 『한 명』이라는 작품을 통해 군자, 석순, 해금, 금복, 기숙, 한옥, 후남, 수옥, 분선, 애순, 동숙, 연순, 봉애, 순덕, 향숙, 명숙, 복자, 탄실, 장실, 영순, 미옥, 춘희, 영순 그리고 풍길이라는 이름을 호명한다. 『흐르는 편지』 속에도 주인공 금자를 비롯해서 끝순, 해금, 에이코, 요시에, 은실, 금실, 악순, 점순, 연순, 을숙, 애순, 군자라는 이름들이 서술된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 안에서 지워버린 이름을 복원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피해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이름 안에서 동질화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던 일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폭력성과 결코 다르지 않다.

하하는 그녀에게도 일본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름이 네 개나 되었다. 어릴 때 고향집에서 부르던 막 이름,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려고 지은 이름, 면사무소 직원이 호적에 올린 이름, 하하가 지어준 일본 이름 / 군인들이 지어준 이름들까지 합하면 그녀의 이름은 열 개가 넘었다. 그녀의 몸에 다녀갈 때 군인들은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부르고는 했다. 도미코, 요시코, 지에코, 후유코, 에미코, 야에코……. / 몸뚱이는 하나인데 이름이 네 개라서인지, 그녀는 때때로 몸뚱이 속에 네 개의 영혼이 살고 있는 것 같다.

- 『흐르는 편지』, 40쪽.

134) 김숨, 「작가의 말」, 『흐르는 편지』, 현대문학, 2018, 308쪽.

135) 이해령, 「그녀와 소녀들-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피를 다 닦고 나자 주인 여자는 1층 큰 방에 여자애들을 모아놓고 번호를 매겼다. 1번, 2번, 3번……. 옷을 때 양 볼에 보조개가 패고 얼굴이 박꽃처럼 하얗던 여자애는 6번이 되었다. / “너는 23번 해라.” / 주인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23번이 되었다. / 군인들은 ‘23호’라고 쓴 나무패가 문패처럼 걸린 내 방에 들어올 때 샷쿠와 23번 번호가 적힌 군표를 손에 들고 왔다.

- 『흐르는 편지』, 57쪽.

하하는 그렇게 죽은 소녀의 이름을, 새로 온 소녀에게 물려주기도 했다. 죽은 소녀의 몸에서 벗긴 옷을, 살아있는 소녀의 몸에 대물려 입히듯.

- 『흐르는 편지』, 172-173쪽.

위의 예문에서 드러나듯이 위안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매번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 『흐르는 편지』의 주인공 금자는 후유코라는 일본 이름이 이미 있는데도, 그녀를 다녀가는 군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름을 부여받는다. 후유코, 도시코, 모모코, 후미코, 야에, 미쓰코, 요시코, 히후미, 유키코에 이르기까지, “지난밤 다녀간 군인들 중 하나가 지어준 이름까지 합하면 나는 열 개가 넘는 일본 여자 이름을 가지고 있”(142쪽)다고 진술된다. 또한 위안소는 새로 온 여성들에게 죽은 여성의 이름을 물려줌으로써, 존재의 고유성을 다시금 해체한다. 부정 당하는 이름과 지속적으로 새롭게 명명되는 이름은 주체를 부정하고 분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살아남은 피해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끌려다닐 때, 나는 나를 찾지 않았어. 해방되고 다들 나를 찾을 때도, 나만 나를 찾지 않았어. 나 없이 살았어, 나 없이…….”¹³⁶⁾라고 진술한다. 부정당한 존재의 오욕은 오늘날 우리 역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넘어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향해 부여한 작가의 호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체를 위로하는 몸짓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한 명』에서 주인공은 말미에 가서야 ‘풍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낸다. 공식적으로 살아남은 마지막 ‘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그녀를 찾아가 남아있는 또 다른 ‘한 명’의 존재를 알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에야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잊고 있던 수많은 이름들을 복원하려는 작가의 노력이라고 볼 것이다. 마지막 남은 위안부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숨겨진 또 다른 ‘한 명’이 아니라, 김복동과 길원옥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역사의 주체들을 호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 명』에서 『흐르는 편지』로, 또다시 증언소설집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창작활동은 그 자체로 오늘날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과잉된 ‘상상’과 재현의 한계

2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서사가 주로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억에 의존해왔음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상상’의 영역은 규제되고,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 재생산되는 한계를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 ‘위안부’ 재현 문제에서 지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다름 아닌 ‘상상적 이미지’와 연결된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속에 그려진 피해 여성들의 서사를 떠올릴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잔혹한 일본 군인

136) 김숨,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현대문학, 2018, 135쪽.

들에 의해 납치되고, 초경도 채 치르지 않은 어린 소녀들은 무참하게 정조를 유린당한다. 또한 살아남은 여성들은 사회 속에서 고립된 노년 여성의 이미지로 정형화된다. 소녀와 할머니로 표상되는 인물군 사이에서 소녀가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소거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의 선과 악의 대립으로 구분되어, 또 하나의 정형화된 이분법을 생산해낸다. 특히 재현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악랄한 일본 군인과 무력한 희생자인 소녀라는 이분법적 대립은 강력한 반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기능을 맡는다. 선과 악의 대립을 보다 공고화하기 위해 일본 군인의 폭력성은 극대화되고, 피해 여성들은 강제로 납치된 순결한 소녀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은폐되는 또다른 왜곡의 문제를 낳는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일 민족주의에 국한해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또 다른 비판점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서사화의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또 다른 역사 왜곡을 양산해내는 까닭이다.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또 다른 왜곡을 구축하는 과정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가운데 강제로 납치된 어린 소녀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양한 층위의 여성들이 자리한다. 권번 출신의 여성,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도 분명한 피해자로 존재한다. 고혜정의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를 살펴보면, 조선인 ‘위안부’로 끌려왔다가 ‘위안부’를 관리하는 안주인의 자리로 옮겨가는 달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녀는 미군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일본 군복을 입고 미군을 향해 총을 겨눈다. 이 외에도 소설 속에는 위안소에서 천황을 위한 성금을 스스로 자처하는 여성들도 그려진다. 또한 위안소에서 일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수십 명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증언집을 낸 작가의 작품 속에 서술된 내용들은 결코 개인의 ‘상상’이 아닌, 또 하나의 증언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미지를 순결한 소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문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 공동체 차원으로 환원하여 피해자 개인의 발화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소설집에는 “군인들 중에는 착한 군인도 있었어”¹³⁷⁾, “일본 사람이었지만 내게 고맙게 했어.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쁘지는 않았어”¹³⁸⁾라는 진술들이 발견된다. 『흐르는 편지』에서도 광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일본 군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식의 서술은 일본군에 관한 미화로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오히려 일제강점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식민지 기간에 발생한 우연적 비극으로 국한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는 2020년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 2020년 불거진 ‘N번방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는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폭력으로 자리한다.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방직후 한국과 미국의 조직적인 관리 아래 양산된 미군 ‘위안부’의 문제와도 연결되며, 매매혼을 통해 한반도 내로 이주한 외국인

137) 김숨,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현대문학, 2018, 67쪽.

138) 김숨, 『승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현대문학, 2018, 117쪽.

여성들의 문제, 납치와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속되어온 성적 착취의 문제로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주목할 성폭력·인권 침해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설 속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가한 성적 착취가 위안소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 까닭이다. 여성들은 납치되어 위안소로 끌려가는 여정 속에서도 강간을 당하였고, 위안소를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성적 착취를 당하였다. 소설 『한 명』의 주인공은 가까스로 위안소에서 도망치지만, 이내 중국인 홀아비에게 붙잡히게 된다. 홀아버지는 자기와 안 살면 일본 군인들에게 이르겠다고 위협하고, 그로 인해 주인공은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이 된 것도 까맣게 모른 채 꼬박 아홉달을 살아간다. 바글바글하던 일본 군인들이 사라지자 소련 군인들이 나타났고, 소련 군인들은 소녀들을 보면 아무 발이나 끌고 들어가고, “강냉이 밭이든, 수수밭이든, 콩밭이든, 감자밭이든. 간신히 버틴 소녀들은 소련 군인들이 떠난 뒤 밭으로 나왔지만, 나오지 못한 소녀들도 있었다”(157쪽)고 서술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는 일제강점기 위안소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성들은 돌아갈 집을 찾지 못하고 “너 갈 데 없으면 나 따라 우리 집에 갈래? 가서 말 잘 듣고, 시키는 일 잘하면 새사람 만들어줄게.”¹³⁹⁾라는 사람들을 따라 술을 팔게 하고 몸을 팔게 된다. 위안소를 벗어났지만, 여성들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장소가 위안소와 다름없는 폭력의 구조를 띠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 국한된 상황만이 아니다. 『한 명』 속에는 17살 나이에 아이 셋의 엄마가 된 아프리카 소녀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섯 명의 반군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소녀의 여동생의 이야기가 언급된다.

겉먹은 얼굴로 문가에 서 있던 아프리카 소녀가 말한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왜 내게 그런 짓을 했는지. // 자신이 하고 싶던 말을,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못하던 말을 피부 빛깔이 다른 아프리카 소녀가 해서, 그녀는 놀랍고 신기하다. // 소녀가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수풀에서 당한 일이, 만주 위안소 소녀들이 당한 일과 다른 일 같지 않다.”

- 『한 명』, 180-181쪽.

예문에서 언급된 아프리카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이 수십 년째 전쟁을 이어오며, 반군은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마을을 습격해 여자들을 성폭행한다. 전쟁이 야기한 폭력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0년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설 속에서 중국에서 밀입국한 여자들에 관한 서사와도 이어진다.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골목”에서 “서서 우는 여자”는 고향을 떠나와 빌라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는 중국인 여성 가운데 ‘한 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는 고향을 떠나 만주 위안소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던 소녀의 모습과 겹쳐진다. 김숨의 소설에서 언급된 ‘한 명’은 이처럼 아프리카 소녀로, 밀입국한 중국 여성으로, 이라크 소수 민족 여성으로 환원되어 나아간다. 이에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의 화자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이라크 소수 민족인 야지다족 여성이자, IS(이슬람국가) 성노예 피해자 ‘마르바 알알리코’와 조우한다.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은 마을로 몰려와 남자들을 전부 죽이고, 여자들을 끌고 가 겁탈하고 군인을 만들거나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죽은 쥐가 떠다니는 물을 마시게 하고, 유리조각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이며, 여자의 어린 남동생에게는 칼로

139) 김숨,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현대문학, 2018, 82쪽.

자신의 엄마를 죽이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화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을 구사하는 여자를 향해 “아프지? 너 아픈 거 내가 잘 알아…….”(87쪽)라고, “아프지? 아플 거야…… 나도 많이 아팠거든”(93쪽)이라고 말을 건넨다. 이는 상처란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가시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서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연대의 문제는 주로 ‘자매애’의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 영화 <귀향>이나 <눈길>에서 발견되는 여성들 사이의 연대는 고통의 시간을 동고동락한 동지애의 연장선이다. 이는 김숨의 소설 속에서도 발견된다. 『한 명』에 등장하는 금복은 죽어가는 동숙의 곁을 지키고, 죽어서나마 동숙을 고향에 데려가기 위해 머리뼈를 챙긴다. 연순과 해금은 서로의 몸에 문신을 새기며 ‘결의형제’를 다짐하고, 『흐르는 편지』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금실의 손을 놓지 않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소녀들 간의 연대는 그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 명』의 주인공은 해방이 되고 천신만고 끝에 두만강에 도달해 도움을 청하지만 누구도 소녀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 주지 않는다. 그때 주인공이 목격하는 것은 소녀들만의 연대이다. “발을 동동 구르던 그녀는 소녀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한 명도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일곱 명이 다 건너는 걸.”(162쪽) 이라는 장면을 통해 소녀들을 구원하는 것은 소녀들 사이의 연대뿐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소녀들을 구원할 대상은 소녀들, 같은 아픔을 공유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시화한다. 우리가 소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우리는 결코 피해 할머니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통해 우리는 해당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소설 『흐르는 편지』는 “어머니, 그런데 나는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먼 데까지 끌려와 조센삐가 되었을까요.”(291쪽)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스스로의 죄를 묻는 과정이다. 이는 증언 소설집인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이다.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속에서 할머니는 “내가 믿는 거……. 전생, 별, 그리고 내가 전생에 지은 죄. 죄를 지을까봐 겁이나…….”(21쪽), “내가 남 아프게 한 거 있으면 태풍이 와서 다 쓸어 가버려라……. 벌고 빌어…….”(181쪽)라고 이야기한다. 스스로에게 죄를 묻는 행위는 자신들이 위안소라는 지옥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위안소에 끌려온 여성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벌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는 질문만이 있을 뿐, 이들의 죄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애초에 죄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설은 피해 여성들의 질문을 통해 해당 문제의 본질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고민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대답은 이후에 발표된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를 통해 되돌아온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고, “네가 벌을 받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고, “네 잘못이 아니야”(94쪽)라고 말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또다시 ‘죄’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의 ‘죄’인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내각관방장관은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 여성의 강제성을 부인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주장은 강제연행의 기준을 “첫째 일본군과 관헌에 의해, 둘째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연행” 여부로 국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지닌다.¹⁴⁰⁾ 실제 일본군 ‘위안부’ 연행의 대부분은 병원이나 공장에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 식의 사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쟁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VAWW RAC)의 니시노 루미코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증언 52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감언(병원, 공장 등에서 일하게 해준다며 속이는 등의)에 의한 연행이 33명(63.5%), 납치·유괴가 11명(21.2%), 인신매매가 8명(15.4%)”이었다고 진술했다.¹⁴¹⁾ 그렇다면 일본군에 의한 직접적인 연행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매춘업자들이 이런 식의 범죄를 공공연하게 벌일 수 있던 배경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여성들은 위안소에서 성적 착취만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에 시달렸고, 인격 모독을 경험했으며, 경제적 착취¹⁴²⁾까지 강제 당했다. 거의 모든 종류의 폭력이 교차하는 구조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곳에 오게 된 까닭을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려 애”(51쪽)썼다고 진술한다. 그것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52쪽)이다.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를 입힌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한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소설 속에서 “순사들은 세계위안소 조센삐들의 사진이 붙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도망쳤다 잡히면 빛이 두 배로 늘었다.”(103쪽)고 서술된다. 이는 당시 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적 착취가 일본 정부와 긴밀한 유대 속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그녀들이 달포에 한번씩 군의관에게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지상은 달포에 한 번 우리를 트럭 짐칸에 싣고 군의관에게 데리고 간다. 군의관은 우리의 아래를 검사해 성병에 걸린 여자애를 가려내고 606호 주사를 놓는다.”(104쪽)라는 서술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군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또한 군인들의 감시하에 자유가 통제된 생활을 이어갔으며, 군인과 군속의 성적 상대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는 점에서 군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¹⁴³⁾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징집 과정의 강제성이 아니라, 위안소에서 박탈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강제 연행이 없었더라도 귀환을 억압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폭력 행위가 자행되었다면 일본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책임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김숨의 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피해 여성들에게 돌아갈 집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국권을 상실한 국가는 자국의 여성들이 일제의 성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방관했으며, 해방 이후 수

140) 요시미 요시야키, 「고노담화, 그 의의와 문제점」,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번역 기획, 김경원 외 옮김,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강제연행, 고노담화, 국민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말한다』, Humanist, 2014, 27쪽.

141) 문형구, 「사냥감은 13세, 14세의 소녀들이었다」, 『미디어오늘』, 2017.05.2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902&sc_code=&page=&total=#csidx208f01bfa b4fe1eaead79e38b9650a0, 최종접속일: 2020.07.05.

142) “진송 위안소에 있을 때 나는 일본 군대에 2엔씩 두 번을 바쳤어. 비행기를 사는 데 보태 쓰라고. 비행기가 있어야 일본이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디 돈만 바친 줄 알아? 피도 세 번이나 바쳤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수혈할 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 피를 나누어주었지.” - 『흐르는 편지』, 290쪽.

143) 요시미 요시야키, 앞의 글, 28쪽.

립된 국가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수차례 배반함으로써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지나간 과거로 치부될 수 없는, 여성들의 현재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부여한다. 몸에 남겨진 흉터, 치유되지 않는 질병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지닌 가부장 중심의 순결 이데올로기는 피해 여성들을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로 치부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피해 할머니들이 경험한 고통은 일본군 위안소에 국한되지 않은 채, 위안소 밖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위해 소설의 역할에 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신빙성이 없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위안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리고 다니는 이들을 향해서. 몇 살 때 끌려갔는지, 누구한테 끌려갔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분명히 대지를 못하니까. 고향 지명조차 제대로 모르는 데다, 학교에 다니지를 못해 자기 이름 석 자도 쓸 줄 모르던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고려도 않고. 수십 년이 흘러 기억들이 토막 나고 뒤죽박죽 뒤섞여 버렸다는 걸 모르고.

- 『한 명』, 150쪽.

뒤죽박죽으로 진술되는 할머니들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소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한다. 소설을 통해 우리는 소멸해가는 기억들을 복원하고,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을 공유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현 문제에 관한 보다 폭넓은 사유를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분석 작품

- 고혜정,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 소명출판, 2006.
김 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 『흐르는 편지』, 현대문학, 2018.
-----,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현대문학, 2018.
-----,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현대문학, 2018.
노라 옥자 켈러, 『종군위안부』, 박은미 옮김, 밀알, 1997. 제기한다.
윤정모,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고려원, 1988.
이창래, 『척하는 삶』, 정영목 옮김, 알에치코리아, 2014.

2. 논문 및 단행본

- 구재진, 「〈종군위안부〉의 역사 전유와 향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1권, 한국현대문학회, 2007.
김소륜,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학회』 제77권, 2018.
문형구, 「사냥감은 13세, 14세의 소녀들이었다」, 『미디어오늘』, 2017.05.21.
소영현, 「목격증언의 자리와 공진하는 ‘위안부’의 몸」, 『구보학보』 제22호, 구보학회, 2019.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번역 기획, 김경원 외 옮김,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강제연행, 고노담화, 국민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말한다』, Humanist, 2014.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판사, 2014.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 이후, 2004.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둘러싼 ‘상상’의 가능성 - 김숨의 소설을 중심으로」 토론문

양 현 진 (인천대)

김소륜 선생님의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둘러싼 ‘상상’의 가능성 - 김숨의 소설을 중심으로」은, 전쟁과 폭력이 지속되는 한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전 연구인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에서 ‘위안부’ 서사의 변모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신 바 있습니다. 그 연구는 각 시기별 한계와 극복 양상을 통해, 증언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폭력의 역사에 문학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고통의 기억을 새롭게 사유하고 실천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은 ‘증언 문학’이 처한 딜레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언 문학이란 증언을 토대로 작가의 문제의식이 생성하는 상상의 구성물일진대, 그간의 일본군 ‘위안부’ 서사는 기록을 중시한 나머지 상상은 억제된 채 ‘위안부’와 관련한 기존 이미지를 반복·재생산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무력한 피해자 소녀상, 소녀와 할머니 사이의 삶이 소거된 자로서의 이미지, 개개인의 서사가 동질화·집단화 되는 양상, 민족주의로 귀결되는 선과 악의 이분법 등이 그 대표적 정형화 양상입니다.

구술되는 파편화된 기억은 문학적 상상력이 아니면 복원 불가능하며, 지배세력의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실천적 역사 인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증언 기록’을 넘어서는 ‘증언 문학’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방향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선생님의 연구를 더 잘 이해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문학적 상상이 보다 자유롭게 펼쳐져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3장의 제목은 “과잉된 ‘상상’과 재현의 한계”입니다. 아마도 3장에서, 기록과 조화되지 못하는 ‘과잉된’ 상상의 문제 역시 다룰 계획이신 듯합니다. 발표문에는 미처 못 담았지만 계획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생존자’ 서사와 ‘실존자’ 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존자’ 서사란 생존자가 전하는 이야기, 즉 그간의 증언 문학이 주로 차용하는 후일담 양식을 일컫는 듯하고, ‘실존자’ 서사란 ‘위안부’ 서사의 정형성을 탈피하고 피해자를 집단화하지 않는, 즉 진취적인 재현을 위한 구성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본 연구에서 짐작 가능한 언급은 하고 계시지만 그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개념이 잘 정립된다면 증언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용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다.

3) 본 연구는 ‘김숨의 소설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000년대 작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과 상상의 균형을 통해 정형성을 탈피한 작품들이 더 있다면, 간단하게나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 퀴어의 성 정체성과 소설적 재현

-김봉곤, 박상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강 유 진 (중앙대)

차례

1. 페미니즘, 퀴어,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
2. '쓰는 사람'이라는 자의식과 '소설-쓰기'
3. 퀴어 작가의 오토픽션(Auto fiction)과 비밀상성
4. 퀴어 소설의 당사자와 '당사자성'
5. 여기, 다음의 퀴어

1. 페미니즘, 퀴어,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

최근 몇 년간 '퀴어'는 '페미니즘'과 더불어 한국 소설계를 견인하는 키워드로 떠올랐다. '퀴어'와 '페미니즘'이 주도하는 한국 소설계의 최근 경향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 운동으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억눌려 있던 상황을 공개적으로 발화하기 시작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이다.¹⁴⁴⁾ 이러한 흐름에서 퀴어 소설은 페미니즘 소설과 함께 맥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당 부분 둘은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¹⁴⁵⁾

페미니즘 소설과 퀴어 소설은 모두 남근로고스 중심주의(phallogocentrism)에 반대하며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가부장제 질서의 내면화를 거부한다. 가부장제는 결혼 제도 안에서 설명될 수 없는 일체의 애정과 사랑,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페미니즘 소설과 퀴어 소설은 모두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 바깥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의 유대를 인정하고, 개인을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삶의 주체자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체제 전복적인 특성을 가진다. 조남주의 「이혼의 요정」¹⁴⁶⁾은 두 여성이 이혼을 하고 '엄마들'만 존재하는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 결혼 제도의 바깥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한다. 이 소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철저히 이성애 중심주의를 제도로써 확립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페미니즘과 퀴어는 공통된 문제 의식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퀴어 소설들은 "동성애를 배경으로 깔고 있지만 동성애의 성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으며, 연대 내지 유대에 가깝게, 친구 관계처럼 그려진다는 것이 특징"인 것에 비해 최근의 퀴어 작품은 성적인 문제를 앞으로 드러내는 특징을 보인다.¹⁴⁷⁾ 고봉준은 최근에 등

144) 김향미, 「한국소설 변화 견인하는 두 축, 페미니즘 & 퀴어」, 『경향신문』, 2018.07.11.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807112133005#c2b)

145) 김상훈, 「페미니즘과 퀴어 문학 만나는 '오늘 Talk」, 박민정, 김봉곤 작가와의 만남」, 뉴스페이퍼, 2018.09.21. (<https://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7>)

146) 조남주(2018), 「이혼의 요정」, 『[큐큐퀴어단편선2] 인생은 언제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 큐큐.

장한 퀴어 작품들이 권여선, 천운영, 백가흠 등이 쓴 기존의 퀴어 소설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김봉곤과 박상영의 퀴어 소설에 모두 적용되는 특징이자, 다른 퀴어 소설과 두 작가의 소설이 갖는 차별성이다. 그리고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게이, 일상이 1인칭 주인공 화자를 통해 소설로 발화되는 형식은 이 두 작가의 성적 정체성과 맞물려 독자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¹⁴⁸⁾ 잘 알려져 있듯이 두 작가는 모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고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행위인 이들의 소설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무엇보다 그것이 ‘퀴어’의 일상이기 때문이다.¹⁴⁹⁾

2. ‘쓰는 사람’이라는 자의식과 ‘소설-쓰기’

‘소설 쓰기’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 또는 소설가라는 자의식은 그동안 박태원을 비롯해¹⁵⁰⁾, 최인훈, 이청준 등 여러 작가의 소설에서 고전적인 주제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른바 ‘예술가 소설’의 하위범주로서 ‘소설가 소설’은 소설의 내적, 외적 형식을 모두 고민하는 작가의 지적 탐구라고 할 수 있다.¹⁵¹⁾

이와 같은 ‘소설가 소설’의 계보에서 김봉곤은 가장 끝자리에 자리를 잡은 작가이다. 그는 등단작 <Auto>¹⁵²⁾를 통해 ‘쓰는 행위’와 ‘쓰는 사람’에 대한 집요한 탐구를 보여준 이래로 줄곧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김봉곤의 소설은 ‘삶=사랑+소설 쓰기’로 점철되며, 그의 소설은 이에 관한 탐구 과정의 기록지로 읽힌다. 그의 소설에서 ‘퀴어’라는 정체성은 김봉곤의 ‘사랑’이 갖는 특수성이자, 자기 고백의 정체이다. 김봉곤의 소설은 등장인물의 성별을 지우면 평범한 연애와 사랑으로 읽힌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서 동성애, 혹은 게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고 행해지는 ‘소설-읽기’는 작가의 삶, 사랑, ‘소설-쓰기’를 왜곡할 여지가 다분하다.

가장 사적인 것의 기록이 소설이 되고, ‘소설-읽기’를 통해 정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고전적인 명제가 김봉곤을 이 시대의 주목할만한 작가로 손꼽는 근거일 것이다. 소설 속 주인공 화자인 ‘나’, ‘곤 씨’, ‘미스터 박’, ‘봉 감독’은 내포 작가이면서 내포 독자이고, 비(非)극화된 화자인 동시에 극화된 화자이며, 행위와 사고의 주체이다.

147) 고봉준, “문학·언어·형식 -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시론(試論)”, 한국문예창작학회 제34회 정기학술세미나, 2018.4.21. 인용 출처 : 김상훈, 「고봉준 교수, “한국문학 두 축... 여성주의와 퀴어 문학”」, 『뉴스페이퍼』, 2018.04.26.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54>)

148) 김봉곤의 첫 소설집 「여름, 스피드」는 출간 2주 만에 4쇄(6000부)를 찍었으며, 박상영의 두 번째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은 최근 20쇄를 찍었다. 두 작가의 소설 판매가 보여주는 약진은 퀴어 소설에 독자 대중의 꾸준한 관심이 2018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149) 퀴어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설은 최근 많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 두 작가를 퀴어 소설의 대표 작가로 호명하고 짝패로 꼽는 것은 두 작가가 커밍아웃을 한 게이 작가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150) “예술가 소설이 “시인이나 작가를 포함한 예술가의 내면풍경과 존재방식 그리고 그 드러냄의 양식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라 규정할 때, 이와 같은 소설들은 일종의 하위범주로서 “소설가 소설”이라 불릴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가 소설이란 “소설가가 자신을 주인공이나 화자로 내세워 소설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고민, 소설쓰기 자체에 대한 고민 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소설”이라고 재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은진(2006), 「소설가 소설과 ‘구보형 소설’의 계보」, 『구보학보』1, 95~105쪽.

151) 최인훈의 「小說家丘甫氏의 一日」, 이청준의 「씩어지지 않은 자서전」 등의 소설은 소설가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소설가라는 자의식은 단순히 작가를 드러낸 자전소설로서 소재적 측면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설 쓰기’라는 행위의 목적과 의미가 지니는 본질적인 탐구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 왔다.

152) 김봉곤(2016), 「Auto」,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박상영은 김봉곤과 함께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퀴어 소설가이다. 두 사람 모두 커밍아웃을 한 작가이며, 소설가 주인공 화자를 빈번하게 설정하는 점에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두 작가의 소설은 ‘단군 이래 최대 커플’¹⁵³⁾ 퀴어라는 우스개소리처럼 많은 공통점을 가지지만 소설의 형식과 내용의 면에서는 상당히 대비적이다.

김봉곤의 소설이 안을 응시한다면, 박상영의 소설은 밖을 향해 있다. 김봉곤의 소설이 심경소설에 가깝다면, 박상영 소설이 지향하는 외부성은 세태소설적 성향이 다분하다. 등단부터 지속적으로 오토픽션에 기반한 소설을 쓰고 있는 김봉곤과 달리, 박상영은 초기에는 게이 주인공 화자보다 여성 주인공, 또는 화자를 설정한 작품이 더 많았다.¹⁵⁴⁾ 게이를 주인공 화자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오토픽션의 자기고백적 성격보다는 소재적 차원에서 활용된 경향이 더 크다. 박상영의 소설이 게이라는 성 정체성에 고정되기보다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의 소수자를 향해 있고, 소설의 중심이 이들의 내면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김봉곤의 소설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다.

두 작가의 대비적 성향은 최근 유행처럼 범람하는 퀴어 소설들 속에서 두 작가의 소설을 나란히 놓고 싶게 만든다. 두 작가의 소설은 어떤 부분에서 같고 또 다른가? 그리고 독자는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퀴어 소설의 현재를 가늠해 보고, 그것이 나아갈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퀴어 작가의 오토픽션(Auto fiction)과 비밀상성

오토픽션(Auto fiction)이란 자전적소설(Autobiographic fiction)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조어(造語)로, 소설과 자서전의 중간적 형태로서의 ‘소설’을 일컫는 문학 용어이다. 자서전은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성(人性)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¹⁵⁵⁾를 말한다. 소설이 작가의 삶의 반영일 수 있다는 짐작은 소설을 작가의 종속물로 보는 고전적인 소설관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동일시는 독자의 고전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인데, 실제 삶의 경험은 작가들이 창작의 재료를 얻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적으로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 이를 감당하는 것은 아직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전히 작가는 “누군가 내 소설을 봤다고 하면, 다 지어낸 거라고 해야지. 괜히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내가 웃겼다. 자의식 과잉도 병이라면 병이었다.”¹⁵⁶⁾고 하며,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오토픽션은 그 내용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소설의 허구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나는 명백하게 나이지만 나는 나와 관계없다.”는 아슬아슬하고 은밀한 줄타기가 나는 아

153) 정의정, 「[만나고 싶었어요!] 김봉곤 “쓰는 것과 사는 것을 순환하게끔 쓴다”, 『채널에스』, 2020. 05.29. (<http://m.ch.yes24.com/article/view/41877>)

154) 첫 소설집에 수록된 소설들 중 등단작 「패리스 힐튼을 찾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의 방」, 「햄릿 어머세요?」는 모두 여성을 주인공 또는 화자로, 「세라믹」은 소년을 화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 소설집에서 게이를 화자로 설정한 것은 「중국산 모조 비아그라와 제제, 어디에도 고이지 못하는 소변에 대한 짧은 농담」과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두 작품뿐이다. 이후 발표한 두 번째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은 수록작 4편 모두가 작가를 연상하게 하는 1인칭 주인공 화자를 설정하고 있다. (박상영(2018),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155) 필립 르젠(1998), 『자서전의 규약』, 윤진 옮김, 문학과 지성사, 17쪽.

156) 박상영(2019), 「재희」, 『대도시의 사랑법』, 9쪽.

주 좋았다.”¹⁵⁷⁾는 소설 <Auto> 속 문장은 김봉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오토픽션을 선택한 이유를 잘 말해준다. 1인칭 주인공 화자의 설정은 이러한 오해를 ‘소설-읽기’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숨겨진 소설 형식의 기술적 장치이다. 오토픽션과 작가의 생애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용적인 면에서의 상관성은 부정할 수 없다. 오토픽션과 작가의 삶을 동일시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의 편의를 위한 독자의 욕망이며, 작가는 이를 역이용하고자 오토픽션이라는 장치를 사용한다.

이처럼 쿼어 소설에서 오토픽션은 소설의 재료가 되는 작가의 일상이 역설적으로 비밀상성을 갖기에 소설로 가치를 지니고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요컨대 사소설의 본질은 비밀상성에 있으며 생의 위기감이야말로, 생산의 근원적 모티브이다. “실생활의 위기의식과 거기서의 구원이 그동안 좋은 사소설과 심경소설의 공통된 주제”¹⁵⁸⁾였던 것처럼 쿼어 소설의 1인칭 주인공 화자는 고뇌하는 쿼어 예술가의 비밀상을 오토픽션으로 재현한다.

본가에 있는 동안 나는 소설을 썼고, 작가가 되었다.

나와, 재희와, 우리가 만났던 남자들과, 그들과 겪었던 연애사를 대충 엮어서 아무 얘기나 써댔다. 사실 그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잠이 잘 오지 않아 뭐라도 할 일이 필요했고, 밤새 떠들고 놀던 사람이 없어져버려 누군가에게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서였다. 끝도 없이 섹스를 하는 게이와 개를 잃어버리는 연인들이 나오는 소설을 썼을 때에도 대단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다만 내가 쓴 소설들이 재희와 내가 보냈던 밤들과 썩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별 기대도 없이 그 두 소설을 공모전에 냈다가 덜컥 당선되었다. (박상영, 「재희」, 54쪽)

형을 만났을 무렵, 나는 사랑하는 데에 지쳐 있었다. 누가 사랑하겠지? 누가 사랑하는 존재였지? 그건 누가 만든 이미지지? 수십 번을 물어봐도 결국은 나였고, 나는 이제 그만 자기 증명의 관성을 끊고 싶었다. 상경 후, 내적 갈등을 끝낸 스물네 살 겨울 이후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 적이 없었다. 과장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물과 사람과 사실과 사정과 사건이 내가 게이라는 걸 지시하거나 게이가 아님이 아님을 지시했으니까. 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김봉곤, 「라스트 러브 송」, 132쪽)

위의 인용의 두 소설은 모두 작가를 연상하게 하는 1인칭 주인공 화자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쿼어 예술가의 비밀상적 일상은 독자에게 훑쳐보기의 대상이 된다. 이졸테 카림은 우리가 더 이상 동질성의 세계에 살지 않으며, 동질 사회는 지난 20~30년 동안 천천히 모든 영역에서 사라졌다고 말하며 동질 사회라는 믿음과 정상성의 범주 규정을 ‘민족’에서 찾았다.¹⁵⁹⁾

동질 사회라는 상상은 언제나 허구였다. 그러나 잘 기능하는 허구였다. 민족은 게다가 기능이 대단히 뛰어난 허구였다. (...)민족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대중을 결합하고 통일하는 유일한 정치형태였고, 대중을 하나의 사회로 만드는 유일한 정치 서사였다.¹⁶⁰⁾

157) 김봉곤(2018), 「Auto」, 『여름, 스피드』, 227쪽.

158) 이토 세이 외(1997), 「사소설의 이율배반」, 『일본 사소설의 이해』, 유은경 옮김, 소화, 187쪽.

159) 이졸테 카림(2019), 『나와 타자들』, 이승희 옮김, 민음사, 28쪽.

160) 위의 책, 14~15쪽.

위의 인용에서 '민족'의 자리에 '헤테로섹슈얼'을, '정치'에 '연애'를 넣으면 우리가 아는 이성애가 지배하는 평범한 사회의 모습이 된다. 그동안 '헤테로섹슈얼'은 이질적인 대중을 결합하는 유일한 연애 형태이자 연애 서사였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서사는 사회적/심리적 성이 일치하면서 동시에 이성애를 하는 이들,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인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cisgendered and heterosexual)을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이다.

위의 소설에서 '생물학적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인 화자의 일상은 비밀상성을 지니게 되고 그 일상은 독자로 하여금 작가의 실제 삶을 연상하게 한다. 이처럼 오토픽션, 혹은 사소설의 성격을 내포하는 퀴어 소설은 일차적으로 예술가(작가)의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다음으로 퀴어의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이중의 비밀상성을 내포한다.

'소설-쓰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사유화된 보증 행위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맺기를 통해 끊임없이 유동한다. 그리하여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는 같지만 다른 대상이고, 또한 틀림없는 '나'이기도 하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사실, 그것이 오토픽션이 퀴어 소설의 가장 적합한 글쓰기 방식인 이유이다.¹⁶¹⁾ "나는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¹⁶²⁾라는 질문에, '소설'이라고 답변하는 것, 오토픽션은 노스텔지어의 기록인 팔랭세스트로서 명백하게 나이면서 나와는 관계없는 나와 닮은 소설 속 나를 남긴다. 최종적인 종착지terminal는 '나'이고 소설은 죽어가는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나'에 대한 끊임없는 기록이다. 그리고 이것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이식 대답이기도 하다.

4. 퀴어 소설의 당사자와 '당사자성'

남성 퀴어 서사의 형식적 특징으로 내적 고백·사소설·오토픽션을 꼽는다면, 내용적 특징으로는 냉소·페이소스·블랙 코미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 특징은 남성 퀴어 서사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당사자성'과 함께 논의될 때 이해될 수 있다. 당사자이기에 게이 의 일상에 관한 유머와 냉소가 블랙 코미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란 당사자의 목소리가 유효하다는 것으로, 최근 우리 문단에서 여성의 이야기는 여성만이, 퀴어의 이야기는 퀴어만이 쓸 수 있다는 식의 논리로 주로 사용됐다.¹⁶³⁾ '당사자성'은 김봉곤과 박상영의 소설에서도 핵심 논쟁으로 등장한다. 「마이 리틀 러버」에서 '나(곤)'는 게이 친구 학영을 처음 만났을 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는다.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나(곤)'는 이성애자 남자는 퀴어를 쓰지 않는다는 학영의 말에 반문을 하며, '당사자성'에 반박한다.

“곤님은 게이죠?”

161) “우리는 오늘날에도 언제나 반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은 더이상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증해 주는 것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다. 보증은 더이상 외부에서, 공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보증은 말하자면 사유화되었다.”(위의 책, 59쪽.)

162) “사라지는 것만이 가장 현재 같았다. 구름은 사라지고 빗물이 남았고, 연기는 사라지고 재가 남았다. 음악은 사라지고 감정만이 남았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김봉곤(2018), 「Auto」, 『여름, 스피드』, 248쪽.)

163) 페미니즘과 퀴어 문학의 당사자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특집을 참고. (장은정 외, 「요즘 예술은 페미니즘과 어떻게 만나는가」, 『문학3』, 창비, 2018.2.)

“네에?”

“저는요. 이성애자 남자가 절대 퀴어를 쓸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리오님은 로봇이세요?”¹⁶⁴⁾

‘나’에게 초면에 무례한 질문을 던지던 ‘학영’은 ‘나’의 절친이 된다. ‘나’는 ‘학영’의 직설적인 화법에 당황하기는 하지만, 곧 그의 미소에 무장해제되고 만다. 둘의 만남에서 등장하는 ‘당사자성’의 문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진다. 그의 소설에서 ‘당사자성’은 부인되지 않고 게이 친구가 상대를 확인하는 가벼운 에피소드로 사용된다. 김봉곤 작가는 “당사자성을 가진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¹⁶⁵⁾고 하며 퀴어 서사의 ‘당사자성’을 절대화하지 않으면서도, 소설의 인물을 통해 ‘당사자성’의 가치를 인정한다.

한편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의 주인공 화자 ‘나’는 자신의 퀴어 영화에 혹평을 한 감독에게 “저 감독이라는 놈이 저번에 내가 말했던 그 가짜 게이 새끼야.”¹⁶⁶⁾라며 ‘당사자성’을 문제 삼아 ‘오 감독’을 힐난한다. 그는 가짜 게이임이 틀림없는 ‘오 감독’과 이성애자인 ‘평론가 김’이 게이인 ‘나’의 (퀴어)영화를 두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들은 ‘나’의 영화를 평가할 때 ‘당사자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상영은 ‘나’와 ‘오 감독’을 통해 퀴어 서사에 있어서의 ‘당사자성’ 문제를 제기한다. 외면적으로 작가는 ‘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 안에서 결국 ‘나’는 실패한 영화감독일 뿐이기에 ‘당사자성’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럴듯한 허구인 ‘소설’은 실제로서의 ‘사실’을 완벽히 재현할 수 없고 이를 사실처럼 느끼느냐는 것은 실제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자가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기존의 퀴어 서사와 김봉곤, 박상영 작가의 소설이 보이는 가장 큰 차이도 바로 이러한 ‘당사자성’의 문제를 떠나서는 설명되기 어렵다. 두 작가는 공공연하게 게이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소설에서 당사자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퀴어의 삶은 퀴어만이 말할 수 있기에 더욱 내밀한 리얼리티의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당사자성’은 페미니즘 문학의 논의에서 사용되었으며, 더 멀리에서는 6-70년대 노동 문학에 관한 논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결국 ‘당사자성’은 소수자는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사회에 꺼내 놓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박상영의 소설에서 소수자는 여성, 게이 남성, 소년으로 변주된다. 첫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에서 「패리스힐튼을 찾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의 방」, 「햄릿 어떡세요?」는 모두 여성을 주인공하며 퀴어 소재가 전면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세라믹」은 소년을 주인공 화자로 삼는 소설이다. 이 소설집에서 게이라는 성적 정체성을 가진 1인칭 주인공 화자가 등장하는 것은 「중국산 모조 비아그라와 제제, 어디에도 고이지 못하는 소변에 대한 짧은 농담」과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뿐이다. 그리고 이 두 편의 퀴어 소설에서도 화자인 ‘나’보다 그의 친구인 ‘제제’와 ‘왕샤’의 이야기가 서사 전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 두 소설을 작가의 오토픽션으로 읽는 데는 무리가 있다.

164) 김봉곤(2020), 「마이 리틀 러버」, 『시절과 기분』, 173쪽.

165) 김상훈, 「페미니즘과 퀴어 문학 만나는 '오늘 Talk」, 박민정, 김봉곤 작가와의 만남」, 『뉴스페이퍼』, 2018.09.21.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7>)

166) 박상영(2018),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144쪽.

요컨대 박상영 소설에서 '퀴어'는 소수자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의 소설에서 '당사자성'은 게이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소수자로 확장되어 적용된다. "소설을 쓰는 사람은 어떤 소수자성을 공유하는 이들"이라는 김봉곤의 말처럼 박상영의 소설에서 작가의 성적 지향은 소설가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당사자성'이며 그가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넘어선 소수자들의 삶이다.

이들테면 재희는 나를 통해서 게이로 사는 건 때론 참으로 좇같다는 것을 배웠고, 나는 재희를 통해 여자로 사는 것도 만만찮게 거지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대화는 언제나 하나의 철학적 질문으로 끝났다. "우리 왜 이렇게 태어났다." "모르지 나도."(「재희」, 45~6쪽)

내 소설 속에서 규호는 여러번 죽었다. 농약을 마시고, 목을 매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손목을 굽고.... 규호는 헤테로 남자가 됐다 게이도 됐고, 여자가 되기도 하고, 아이도, 군인도 되고 아무튼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되었다가 결국 죽는다. 죽은 상태로 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추억의 대상이 되고, 꿈의 대상이 되며 결국 대상으로 남는다. 내 기억 속의 규호는 언제나 완결된 상태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늦은 우기의 바캉스」, 272쪽)

위의 첫 번째 인용에서 '나'는 헤테로 여성인 대학 동창 '재희'와 각각 게이와 여성이라는 소수자성을 공유하는 친구이다. 둘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게이와 여성으로 태어나 한국 사회의 주변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기도 했다. 두 번째 인용에서 화자는 자신의 잊을 수 없는 옛 애인 '규호'가 소설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인물로 변주되어 현실의 그와는 다른 존재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작가를 연상하게 하는 1인칭 주인공 화자 설정에서도 이들이 박상영 작가의 오토픽션적 인물로 동일시되기보다는 작가의 손을 빌린 퀴어의 목소리로 읽힌다. 그의 소설이 주인공 화자의 내면의식보다는 주인공의 행동과 그로 인한 사건에 더욱 주목하는 사실은 박상영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유머와 해학으로 담아내는 '이야기꾼' 유형의 작가임을 말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소설들은 심리소설이라기보다는 사회소설에 가까우며, 박상영 소설의 '당사자성'은 퀴어 소설의 범주를 넘어서는 소수자성이라 부를 수 있다.

5. 여기, 다음의 퀴어

김봉곤과 박상영은 자신의 소수자성을 다른 메타포로 환원하지 않고 직설화법을 사용해 우리 사회에 나와 부딪힌 사례이다. 이는 한국 문단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이례적이고 모험적인 도전이다. 퀴어 작가의 커밍아웃이 개인적인 차원의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문단뿐만 아니라 독자 대중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킨 사실은 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다. 두 작가의 최근 활약과 문단 내 행보는 단편적으로는 소수자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듯하지만, 그보다 이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차원의 성숙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읽기'가 기존 사회와 소설 양식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때 두 퀴어 작가에 보이는 독자들의 관심은 기존 소설과 구별되는 차이, 즉 '당사자성'과 깊이 관여된다. 그리고 소설에서 '당사자성'은 1인칭 주인공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재현된다. 그러나 퀴어 작가의 소설을 퀴어 작가의 사생활이라는 소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장기적으로 작가는 소재 고갈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기 쉽고, 독자는 관음적 욕망 충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작가의 사생활을 모두 소설로 적고 난 후, 더 이상 쓰일 수 있는 ‘나’가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퀴어 소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의 무언가가, 내가, 기억될/할 만한 글의 질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의 곤란함이다. 다시 말해 쓰일 수 있을 ‘나’가 있어야 한다”¹⁶⁷⁾는 사실은 현재 퀴어 소설의 유행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인 오토픽션과 ‘당사자성’의 한계를 고민하게 한다.

167) 김봉곤(2018), 「Auto」, 『여름, 스피드』, 226쪽.

“남성 퀴어의 성 정체성과 소설적 재현-김봉곤, 박상영의 소설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 지 혜 (이화여대)

강유진 선생님의 발표문,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 발표문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남성 퀴어의 대표 작가라 할 수 있는 김봉곤과 박상영 소설에 주목하여 다른 퀴어 소설과 차별화되는 두 작가의 소설의 '성적 정체성'과 소설적 재현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최근 퀴어 서사가 지닌 정치적인, 그리고 비정치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발표문을 읽고 제 이해가 미진했던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은 “단군 이해 최대 커플”인 두 작가의 소설을 “자신의 소수자성을 다른 메타포로 환원하지 않고 직설화법을 사용해 우리 사회에 부딪힌 사례”로 보고, 이들 소설의 ‘오토픽션’과 ‘당사자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작가의 남성 퀴어 서사는 2000년대 초반 퀴어를 소재적 차원에서 다루었던 기존의 퀴어 서사뿐 아니라 최근의 여성 퀴어 서사와도 변별되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당사자성’이라는 레테르가 너무도 크기에, 두 작가로 대표되는 남성 퀴어 문학이 지닌 차별화된 지점이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선생님께서서는 3장, 4장에서 김봉곤과 박상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설은 모두 작가를 연상하게 하는 1인칭 주인공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김봉곤의 소설이 ‘소설-쓰기/읽기’라는 오토픽션을 통해 남성 퀴어의 사생활이라는 비일상성을 드러낸다면, 박상영 소설의 ‘당사자성’은 게이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소수자로 확장되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선생님의 분석에 동의하나, “김봉곤 소설이 안을 응시한다면, 박상영 소설은 밖을 향해 있다”, “박상영 소설의 ‘당사자성’은 퀴어 소설의 범주를 넘어서는 소수자성이라 부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선 역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작가의 소설은 모두 퀴어 아이의 ‘비일상성’을 통한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김봉곤의 소설이 퀴어의 사생활이라는 이중의 비일상성을 통해 가장 일상적인 사랑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박상영의 소설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통해 현대사회의 넘쳐나는 욕망과 관계 맺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나’가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퀴어 소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오토픽션과 ‘당사자성’의 한계를 넘어선 “다음의 퀴어” 문학은 무엇일까요? 이들 소설의 ‘당사자성’을 한계로 보는 것, 나아가 ‘퀴어 문학’이라는 유표화가 이들 소설을 퀴어 문학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점은 선생님의 발표문을 오독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하의 『작별 인사』를 통해서 본 과학 기술 시대의 타자들

한 승 우 (중앙대)

차례

1. 호모 사피엔스에서 마음의 아이들로
2. 휴머노이드와 브리더, 미래 시대의 타자들
3. 얼굴 없는 마음들의 세계
4. 부질없는 육체에 대한 욕망
5. 나오며

1. 호모 사피엔스에서 마음의 아이들로

근대적인 몸과 영혼의 이미지는 데카르트에 의해 구축될 수 있었다. 그가 주장한 심신이원론은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종류의 실체임을 말해주었다. 몸과 영혼은 각각 자립적이면서도 고유의 법칙에 따라 존재한다. 인간은 ‘사유’하는 마음과 운동하는 ‘연장(육체)’으로 구성되며, 사람의 몸은 기계가 되고 그 속에 영혼이 존재하는 ‘기계 속 영혼’의 모습을 이룬다. 그러나 몸과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송과선(松科腺)’이라는 특수한 개념의 연결고리를 주장한다. 눈에 비친 외부세계의 이미지들은 입자로 바뀌어 송과선에 전달되고, 이렇게 마음으로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몸은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송과선 개념은 많은 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덕분에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주체와 대상, 몸과 마음을 구분해 있는 그대로의 몸을 바라볼 수 있는 ‘근대인의 시선’을 갖게 된 것이다.¹⁶⁸⁾

데카르트가 나타나 “사물은 연장이다”라고 외치자마자 천지에 숨을 쉬고 있던 영혼들이 모두 증발해버렸다.¹⁶⁹⁾ 인간의 영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시계와 같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으며, 영혼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이므로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데카르트가 이룩해낸 몸과 마음의 분리는 시간이 흐른 후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도래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된다. 로봇 공학자인 한스 모라벡은 “인간의 두뇌를 특별히 디자인된 로봇 몸에 이식하는 것”¹⁷⁰⁾을 제안한다.

몸-동일성은 한 인격체가 인간의 몸으로 구성된 물질에 의해 규정된다고 가정한다. 오직 신체 구성 물질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의 개별적 인격을 보존할 수 있다. 역으로 패턴-동일성은 한 인격, 예컨대 나 자신의 본질을 내 머리와 몸 안에 일어나는 패턴과 과정으로 정의

168) 강신익, 『몸의 역사-의학은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나』, 살림, 2007, 29쪽 참조.

169) 김상환,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2012년, 32쪽.

170) 한스 모라벡 씬·박우석 옮김, 『마음의 아이들』, 김영사, 2011년, 191쪽.

하고, 그 과정을 지지해주는 기계로 정의하지 않는다. 만일 그 과정이 보존된다면, 나는 보존된다. 나머지는 젤리에 불과하다. (...)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자는 패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오직 일부만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머문다. (203쪽)

모라벡이 주장한 것은 '패턴-동일성'이다. 하나의 신체에 하나의 마음을 유지해야만 개별적인 인격체일 수 있다는 상식을 거부하고, 인간의 본질을 "내 머리와 몸 안에 일어나는 패턴"으로 정의한다. 인간은 수도 없는 세포의 죽음과 생성이 반복되면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세포는 거의 모두 대체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 역시 일정한 단계적 발전을 통해 성숙한다. 그렇다면 태초에 우리를 형성했던 모든 원자(세포)가 교체된 지금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모라벡은 이처럼 몸이라는 것은 늘 변화하는 것이며, 육체가 하나의 움직임이지 않는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한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닌 마음에 있으며, 마음이 성장하고 유지되는 그 패턴만 잘 보관할 수 있다면 "나는 보존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모라벡은 몸이라는 것은 "젤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다른 젤리"로 이동하더라도 한 인간의 마음의 패턴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데카르트가 몸으로부터 '생각하는 나'를 따로 끄집어 올려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킨 것을 모라벡은 더욱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마음을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다.

모라벡은 2050년 이후 기계들 안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업로드'하면서 지구의 주인이 인류가 아닌 로봇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예언한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는 로봇에게 인류의 정신적 자산, 곧 지식·문화·가치관을 송두리째 넘겨줄 것¹⁷¹⁾이다. 우리의 마음을 물려받은 로봇을 우리는 기꺼이 '자손'이라고 지칭하고, '마음의 아이들(mind children)'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후손들은 진화의 속도를 빠르게 주도할 것이며, 나약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로써 호모 사피엔스인 인류는 마음의 아이들에게 지구의 패권을 넘겨주게 된다.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몸과 마음의 분리라는 추상적인 명제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눈앞에 현실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의 마음이 여러 개의 몸을 소유할 수 있다는 모라벡의 예고는 김영하의 『작별 인사』¹⁷²⁾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로봇이 일상화되고, 인간의 마음을 육체로부터 분리해 기계에 옮길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이 소설의 단초가 된다. 소설 속에서 인류는 이미 감쪽같은 기술로 인간의 피부와 혈액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 된 휴머노이드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를 인간으로 믿을 정도의 휴머노이드"를 탄생시켰다. 기계적인 감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인간과 휴머노이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시점에서, 주인공 '철'이는 '마음의 아이'로 창조된다. 모라벡의 말처럼 인류는 마음의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문명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존을 선택할 것인가? 『작별 인사』는 이에 대한 작가의 냉철한 답변과 같은 작품이다.

2. 휴머노이드와 브리더, 미래 시대의 타자들

주인공 철이는 휴먼매티스 랩의 수석 연구원인 최진수 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최신형 하이

171) 이인식, 「로보 사피엔스가 물려온다」, 한스 모라벡, 앞의 책, 10쪽.

172) 김영하, 『작별 인사』, 밀리의 서재, 2020년. 이후 소설의 인용은 쪽수만 제시하기로 한다.

퍼 리얼 휴머노이드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중세의 수도원들이 고대의 지혜를 보존하여 르네상스로 전달했듯이 너는 인류의 유산을 간직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킬 책무가 있어.”(130.)

음악을 듣고, 시를 읽고, 영화를 보며, “19세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안타까워하면서 읽”을 줄 아는 철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완벽한 인간 그 자체이다. 모라벡이 “인공적인 자손”¹⁷³⁾은 우리가 수도 없는 세월동안 만들어 낸 문화 정보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듯이, 철이는 ‘마음의 아이’로 탄생되어 인류의 문화적 정보를 차별하게 습득해가는 중이었다. 최진수는 철이에게 어린 아이를 가르치듯이 한자와 음악 등을 가르쳤다. 이는 인류가 가진 거대한 문화적 유산을 계승할만한 특별한 휴머노이드를 실현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미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들인 기계들과 인류를 이어줄 가장 최상의 대리자로 고안된 것이 철이었으며, 가장 이상적인 기계들을 만들어낼 피그말리온으로 최박사는 철이를 고안한 것이다.

가장 인간다운 휴머노이드, 인간의 감정과 윤리를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문화적 유산을 계승해나갈 휴머노이드. (...) 나는 정말 아빠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피그말리온이었을까? (61.)

그러던 어느 날, 철이는 무등록 휴머노이드를 감시하는 이들에 의해 로봇으로 분류된 후,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는 일을 겪는다. 단 한 번도 자신이 인간임을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충격에 빠진 철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리얼 휴머노이드들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야하는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섭식과 배설을 해야 했다. 그런 휴머노이드를 보고 기계들은 “똥싸게”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헐뜯는다. 강력한 힘을 지닌 전투용 휴머노이드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리얼 휴머노이드들은 한없이 무력하기만 하다. 철이는 처음으로 무력한 자신의 ‘몸’을 인지한다. 막강한 철과 실리콘으로 무장한 기계 앞에서 인간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대목에서 자신의 몸을 자각하고, 자신의 ‘몸’을 느끼고 인지하는 철이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육체로부터 자유롭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난생처음으로 차라리 기계였으면 하고 바랐다. (...)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일까 원망스러웠다. 살아오면서 나는 내 몸에 대해 이렇게까지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42.)

인간과 똑같은 창조물을 만들어내기에 몰두한 인류는 겉모습만으로는 인간과 휴머노이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기계를 생산해낸다. 정부는 그런 휴머노이드를 구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휴머노이드는 정부가 정한 “제복”을 입고, “왼쪽 가슴에 R자 표시”를 달고, “팔목에 식별 칩”을 장착해 등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에 이른다. 한편, 의식과 감정이 있는 휴머노이드를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또 다른 비난에 부딪힌 정부는 휴머노이드들을 한 곳에 가둘 수 있는 수용소를 만들어 그들을 격리시킬 것을 결정한다.

173) 한스 모라벡, 앞의 책, 18쪽.

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용소는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분리 수용되는 곳이 되었고,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은 존재들을 모두 가둬놓는” 장소로 변질된다.

다행히 철이는 수완이 좋은 ‘선이’를 만나 로봇들의 공격을 피해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철이에게 도움을 준 선이는 브리더였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자의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제인간으로, 원본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덜 된 것” 혹은 “인간 같지도 않은 물건”이라는 멸시를 받았다. 이처럼 선이는 불법으로 배아를 복제한 클론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통해 출생한 보통의 인간들처럼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처지여서 기계들과 함께 수감될 수밖에 없었다. 낡은 기계들과 소용없어진 휴머노이드, 그리고 브리더가 모여 있는 수용소는 타자로 낙인 찍힌 이들의 집합소와 같았다. 마치 유대인의 가슴에 별을 달아 구별하고, 정부에 반기를 든 공산주의자와 집시들, 부랑자와 매춘부들을 함께 아우슈비츠에 수감했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되듯, 차이를 만들어 쉽게 타자로 구분해버리는 습성은 휴머노이드나 복제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과학기술 시대에 새로운 타자들이 탄생된 것이다.

선이가 자신의 원본으로부터 들었던 ‘인간이 덜 된 것’이라는 표현은 철이를 로봇으로 감별했던 이들이 말했던 ‘99퍼센트 비슷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런 말 알아?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말과 겹쳐진다. 인간과 너무 유사하지만, 결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는 그들. 인간은 자신들과 꼭 같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갈망했고, 결국 철이와 선이 같은 또 다른 종(種)을 만들어냈다. 철이가 인류의 문화를 담지한 ‘마음의 아이’라면, 선이는 인류의 DNA 정보를 그대로 담아낸 ‘몸의 아이’인 것이다. 철이와 선이는 모두 기술 과학 시대가 낳은 ‘사이비(似而非)’¹⁷⁴⁾들이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가짜다. 순수한 인간 종 안에 포함되지 않은 비순수한 그들은 타자로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으면서 아닌 것(似而非)을 미워하노니, 가라지를 미워함은 싹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해서이고, (...) 자주색을 미워함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해서이고(...) ¹⁷⁵⁾

사이비를 미워하는 것은 본래의 것을 위협하고, 그것의 가치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류가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 따 만들어낸 쌍둥이 창조물들은 인간의 고유함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인류는 원본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모습을 지닌 복제품들을 혐오하기 시작했다. 이런 인류의 모순 안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가고, 과학 기술이 만들어낸 또 다른 타자들이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이다.

3. 얼굴 없는 마음들의 세계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 민병대원들이 수용소를 습격해 로봇들을 강탈하게 된 틈을 타서 철이 일행은 탈출을 감행하고, 우여 곡절 끝에 ‘달마’라는 특별한 로봇을 만나게 된다. 로봇 달마는 흥미로운 존재이다. ‘달마’라는 이름은 불교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 대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수련을 통해 청정한 ‘마음’을 되찾아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교리이다. 달마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혜가(慧可)와 관련된 일화는 달마가 주장한 ‘마음’의

174) ‘사이비(似而非)’는 『맹자』의 「진심」 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 ‘惡似而非者’에서 온 말이다. ‘같으면서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김영하는 정민의 해석인 ‘비슷한 것은 가짜다’(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00년, 107쪽)를 가져다 쓰고 있다.

175) 남희근 씀·설순남 옮김, 『맹자와 진심』, 부키, 2012년, 350쪽.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달마에게 찾아간 헤가는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기를 간청하지만, 달마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헤가는 믿음의 증표로 자신의 팔을 끊어낸다. 달마는 그런 헤가에게 무언가를 던졌는데, 헤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팔은 이미 없어졌음을 깨닫는다. 이미 떨어져나간 팔은 생명력을 상실한 유한한 육체를 상징한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무한하며 영원한 것이다.

로봇 달마 역시, 낱아서 폐기처분 될 처지에 놓인 휴머노이드의 기계 육체는 폐기하고 마음만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네트워크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뭉쳐 거대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로봇이 달마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인간 달마와 로봇 달마는 모두 육체에 담겨진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꺼내어 다른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인간 달마는 해탈의 경지를, 로봇 달마는 네트워크에서의 자유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로봇 달마 덕분에 네트워크로 이식될 수 있었던 수많은 휴머노이드들의 의식들은 전 세계를 떠돌며 최고의 인공지능과 연결될 수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지식과 지혜를 모은 인공지능은 인간 없이도 스스로 새로운 로봇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하였다. 결국, 로봇 달마는 기계 몸속으로부터 의식을 분리시켜 네트워크 속 인공지능의 세상을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물리적인 몸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순수한 마음과 의식만이 뭉쳐진 지구의 새 강자 슈퍼 인공지능이 도래하게 된다.

로봇 달마는 여러 가지의 장비를 통해, 철이가 분명한 휴머노이드임을 판명해준다. 철이는 자신이 로봇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큰 실망과 혼란에 휩싸인다. 그러던 중 ‘쇄골절흔’에 숨겨진 백도어를 통해 교신을 시도하던 최진수에 의해 달마의 근거지가 포착되고, 정부의 기동타격대가 들이닥쳐 이곳이 모두 초토화된다. 최진수는 철이의 머리 부분만을 겨우 회수해 집으로 돌아온 후, 철이의 뇌를 회사 서버에 백업해 둔다. 몸을 잃고 의식만 다시 살아난 철이는 자신의 뇌를 한 군데 더 백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최진수는 로봇 고양이 ‘데카르트’에 철이의 뇌를 백업하기로 결정한다.

최진수 박사가 키우는 세 마리의 고양이의 이름이 근대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들인 데카르트, 갈릴레오, 칸트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 중에서도 데카르트에 철이의 의식이 백업되는 것은 몸으로부터 영혼을 분리해낸 그의 업적을 풍자하는 듯하다. 고양이의 신체 안에서 정신과 마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이 상태를 철이는 ‘수정공’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묘사한다.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안에서는 밖과 소통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동그란 물체. 육체 없이 완전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철이의 의식은 철학자 데카르트의 주장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만 같다.

휴먼매터스 랩에서 해고 된 최진수는 데카르트의 몸에 담겨진 철이의 의식만을 챙겨, 싱가포르로 간다. 그동안 철이의 의식은 네트워크를 떠돌면서 인류의 문화를 섭렵하기도 하고, 다른 인공지능과 교섭하기도 한다. 이처럼 철이의 뇌를 그대로 스캔해서 기계에 업로드 하는 것처럼, 인류 역시 그들의 마음을 네트워크에 업로드 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난다.

“그건 막을 수 없어, 최박사. 과학은 언제나 그랬어. 상상한 것은 결국 다 현실이 돼.”

“그러니까 막아지지. 인공지능의 폭주는 결국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거야. 우리는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야.”

“이미 인간은 기계와 결합하고 있어. 지금 웨어러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 우리의 심장 박동, 혈압, 혈당, 그 밖의 모든 수치가 기계에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어. 우리가 기계와 다를 게 뭐야? 이미 우리는 사이보그라고.”

“그럼 김박사는 자기 뇌를 업로드해서 인공지능과 같이 영생할거야?”

아빠의 질문에 오히려 김박사가 반문했다.

“그럼 최박사는 안 할 거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의 의식을 업로드하면 그 의식은 육체 없이도 지금과 똑같이 살아갈 거야. 사유하고 연구하고 토론도 하겠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인공지능이 우리를 왜 필요로 하겠어? 우리가 인간일 때만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거야. 인간은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으니까.”(60.)

“어떤 사건에 의해 그 배치가 뒤흔들리게 된다면, 장담할 수 있건데 인간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얼굴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¹⁷⁶⁾고 말한 푸코의 말처럼, 인간 주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인류는 차츰 철이가 느낀 나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몸이 지닌 한계를 통감했고, 막강한 기계의 신체 안에 마음을 새겨 영생하고자 했다. 인간 주체의 범주가 하나의 몸과 하나의 마음의 결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몸과 하나의 마음으로 바뀐다면, 인류가 가진 그동안의 주체의 개념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스 모라벡이나 레이 커즈와일은 인간의 사이보그화를 통해 이제 포스트휴먼 시대의 주체는 더 이상 비인간적인 타자(기계, 동물, 괴물)를 지배하고 배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타자와의 혼종 속에서 공진화(供進化) 할 것¹⁷⁷⁾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포스트휴먼적 미래를 낙관적 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이들의 전망은 과학 기술과 인류의 공존을 이야기하지만, 『작별 인사』 속 인류들은 공존하는 대신 소멸과 파멸의 길을 걷는다.

로봇 달마는 철이에게 일찌감치 인간의 소멸을 예언했었다. 인간들은 기계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이다. 로봇 달마의 예언대로 인공지능은 인간들에게 엄청난 쾌락을 뇌 속에 입력해 주면서, 인간들을 환각 상태에 머무르게 했고, 가상의 세계 속에서 만족을 얻도록 만들었다. 자손을 낳아서 종족을 번성시켜야 한다는 욕구와 욕망도 일찌감치 사라졌다. 일부 인간들은 자신들의 뇌를 백업하고 영생을 꿈꾸었지만, 인간의 뇌 백업 데이터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인공지능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듯”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릴 것이 자명했다. 그렇게 인간들은 지구에서 급격하게 소멸해버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회상은 언제나 직박구리가 죽어 있던 그 날 아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순간으로부터 시작됐다.(9쪽)

철이는 자신의 회상의 시작을 직박구리가 죽어 있던 날 아침부터라고 말한다. 컴퓨터 윈도우 시스템에서 폴더를 생성하면서 특별한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직박구리’는 쉽게 생성되고 더 쉽게 삭제된다. 이런 폴더 속에 지금껏 인류가 이룩해 놓은 지혜와 정신들은 쉽게 업로드 될 것이다. 그러나 delete 키 하나에 직박구리는 사라져버릴 것이며, 인류의 문명 역시 흔적도 없이 증발할 것이다. 결국 인류의 지식을 모두 흡수해서 더욱 빠른

176) 미셸 푸코 씬·이규현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2012년, 526쪽.

177) 임석원,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기획: 배타적인 인간중심주의 극복」,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70쪽.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과 우주에서도 강건하게 버틸 수 있는 기계 몸을 가진 그들에게 지구의 패권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직박구리가 죽어 있던 그 날 아침은 인류의 정신의 패배를 상징한 것이며, 작가가 보여주고자 한 미래관을 압축한 것이다.

4. 부질없는 육체에 대한 욕망

인간의 소멸을 지켜보던 철이는 네트워크의 여러 기록 속에서 오호츠크해 연안에 머무르고 있는 선이를 찾아내고, 다시 기계 신체 안에 자신의 의식을 옮기기로 결정한다. 달마는 불안정한 몸 안에 의식을 담아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지만, 철이는 선이를 처음 만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물리적 육체 속에 다시 마음이 깃든 철이는 처음 모습 그대로 선이를 찾아 간다. 나이가 든 선이는 모든 낡아가는 것들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면서, 심적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평행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평행이론(parallelis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마음과 신체는 동시적인 것이며,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늘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세계에는 오로지 단 하나의 왕국, 바로 신, 즉 자연의 왕국만이 존재한다.¹⁷⁸⁾ 인간이 너무나도 특별한 나머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생각을 스피노자는 가볍게 무시하고, 결국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런 스피노자의 주장은 선이가 공동체를 이루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는 종교적 철학과 같은 맥락에 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추억들은 ‘나’를 형성하고, 늙어가는 육체와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통들 모두 ‘나’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자연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 이것이 선이가 선택한 삶이었다.

나는 선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이야말로 인간다운 것이 아닌가. 선이가 충분히 인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충분히 인간이란 말인가.(165.)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것의 기쁨을 알았다.(167.)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즐거움과 몸으로 느끼는 감각들에서 오는 마음의 변화는 지극히 인간다운 것이다. 영생의 기술을 두고 자연의 이치 그대로 늙어 가는 육신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선이의 행동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인간의 그러한 무모한 어리석음이야말로 인간다운 것이다. 철이는 “의식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몸으로 겪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몸을 다시 얻은 후에야 느낄 수가 있었다.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몸을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인간임을 깨닫게 된다. 육체의 노쇠함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선이는 죽음을 맞이했다. 선이가 자연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철이는 선이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자연의 일부가 되는 삶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철이가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 것은 시베리아 불곰의 습격 때문이었다. 강인한 불곰의 힘에 의해 힘없이 내팽개쳐진 철이의 육체는 희생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다.

178) 매튜 스튜어트 지음·석기용 옮김, 『스피노자는 왜 라이프니츠를 몰래 만났나』, 교양인, 2011년, 309쪽.

나는 말년의 아버지에게, 뇌를 백업하고 영생하지 않겠느냐고, 이미 많은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단호히 거부했었다. 육신 없는 영생을 바라지 않는다고, 인간의 존엄성은 죽음을 직시하는 데에서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육신 없는 삶이란 끝없는 지루함이며 참된 고통일 거라고도.(154~155.)

최진수가 “인간의 존엄성은 죽음을 직시하는 데서 온다”고 말한 것처럼 철이는 자신의 죽음을 온 마음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서서히 자신의 의식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철이는 ‘인간다운 죽음’을 경험한다. 그렇게 인류의 정신을 담고 있던 마지막 휴머노이드 철이가 사라지면서, 지구 상에는 인간 종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김영하의 『작별 인사』를 통해서 본 과학 기술 시대의 타자들’토론문

손혜숙 (한남대)

한승우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이 발표문은 김영하의 최근작인 『작별 인사』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 시대의 타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타자’라는 키워드는 우리 시대의 핵심 화두 중 하나로, 이미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 발표문 역시 이러한 시대적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혹여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론에서 이 연구의 대상 텍스트가 되는 김영하의 『작별 인사』를 인류의 변화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예컨대, 휴머노이드와 인간의 공생, 공존 등에) 답하고 있는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목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2. 2장의 소제목이 전체 주제와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소설은 미래 사회를 공간으로 하는 하나의 서사 속에서 인간, 휴머노이드, 브리더의 삶과 각각의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각 장의 구성을 이 세 유형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제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미 3장은 마음의 아이 휴머노이드를 4장은 몸의 아이 브리더를 상징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2장에서 인간 최진수 박사에 주목해 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3. 2장의 제목이나 내용을 볼 때, 휴머노이드나 브리더를 ‘타자’로 바라보고 계신 듯한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전 텍스트를 읽으면서 과학 기술 시대의 타자란 당연히 휴머노이드나 브리더가 될 수 있다는 보편적 인식을 전복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최 박사의 죽음이나 인간의 소멸 등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타자가 될 수 있다는. 즉 언제든지 타자가 바뀔 수 있으며, 누구든지 타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인공지능 시대의 정체성’이란 시대적 화두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룬 기존의 영화나 여타의 소설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나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 선생님께서 바라보는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5. 이 소설은 마치 종교(마치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한)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평화와 공존이 가능한 것이라는 듯, 종교를 브리더와 휴머노이드의 마지막 생존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설정이 이 소설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950년대 신춘문예 희곡과 현대극의 향방

-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

이 승 현 (경북대)

차례

1. 신춘문예 제도의 재개와 1950년대 희곡
2. 전쟁의 영향과 시대적 고민의 지속
 - 2.1. 여성의 성(性)문제를 통한 삶에 대한 고민
 - 2.2. 근대 가치의 결점과 인간성의 문제
3. 사실주의 형식과 거리두기의 징후
4. 신춘문예를 통한 희곡 실험의 대중적 활용 - 결론을 대신하여

1. 신춘문예 제도의 재개와 1950년대 희곡

한국사에 있어 1950년대는 여러 의미가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일종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평범하게 영위하던 기존의 생활은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게 된다. 일제강점기부터 지속하였던 신춘문예 제도도 다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문단을 형성하는 데 힘을 발휘했던 신춘문예 제도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는 과정에서 운영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신춘문예의 기원은 1910년 『매일신보』에서 있었던 ‘신시현상모집(新詩懸賞募集)’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신춘문예’라는 용어는 1919년 『매일신보』에 등장하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신인작가를 선발하는 제도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동아일보』에서 ‘신진작가의 작품’을 조건으로 내걸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신춘문예 제도는 1940년 8월 두 신문사가 폐간되면서 중단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신춘문예 제도는 1955년¹⁷⁹⁾에 이르러 재개되었다.¹⁸⁰⁾

1950년대 신춘문예 제도의 복원은 단순하지 않다. 신춘문예와 추천제라는 등단제도는 “문학사적 의의와 함께 문학이 사회적 위상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¹⁸¹⁾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문은 독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와중에 신춘문예 제도를 재개하였다.¹⁸²⁾ 따라서 신춘문예 제도는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문학에

179) 동아일보, 한국일보를 기준으로 신춘문예 제도는 1955년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는 1954년에 소설 부분만 따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재영이 「신춘문예 제도의 명칭과 기원에 관한 연구」(『한국시학연구』 47호, 한국사학회, 2016, 364쪽)에서 1955년으로 언급한 것은 1954년 조선일보가 진행한 신춘문예가 소설 부분에 한정되어 오늘날과는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180) 조재영, 「신춘문예 제도의 명칭과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시학연구』 47호, 한국사학회, 2016, 355~364쪽 참조.

181)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68쪽.

182) 이와 관련하여 이봉범은 당시 신문 및 잡지가 문학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신춘문예 및 추천제와 같은 등단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문의 경우 『한국일보』가 ‘상업주의’를 표방하였기 이러한 경향 더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봉범, 「1950

대한 신문 독자 나아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일보는 1955년부터 신춘문에 희곡 분야를 공모한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함께 신춘문에 제도를 이끌어왔지만, 한국전쟁 이후 행보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동아일보가 시, 시조, 동화, 소설, 콩트, 논문 등의 분야를 시작으로 신춘문에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에 비해 조선일보는 1954년 소설 부문만 다시 시작했다가 이듬해 1955년에 시, 단편소설, 평론, 희곡, 동화, 동요 등 주요 문학 장르를 포괄하여 신춘문예를 실시한다. 동아일보가 1958년에 이르러서야 희곡 분야에 첫 당선작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주요 일간지와 비교해도 희곡 장르와 관련하여 신춘문에 제도를 통한 조선일보의 기여는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가 1955년부터 신춘문에 공모에 희곡 분야 포함하였지만 희곡 작품이 뽑힌 때는 1955년과 1956년뿐이다. 또한, 서울신문의 경우도 1956년 신춘문에 시작하면서 시, 소설과 함께 희곡 분야를 공모하지만, 1956년, 1958년, 1959년 작품만 확인된다.

기실 희곡 장르는 “연극무대와의 연계 속에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당시에는 “창작통로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¹⁸³⁾다. 그리고 당시 “연극전문극단은 국립극단과 신협 외에 소수에 불과했고 전문극장도 명동의 예술극장과 원각사뿐이었다.”¹⁸⁴⁾ 이러한 당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신진극작가들이 희곡 작품을 창작하고 자신의 창작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한다면, 전문극단이나 기존의 창작 방식에 경도될 필요가 없기에 신진극작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작품에 담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신춘문예를 포함한 등단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에,¹⁸⁵⁾ 1950년대 신춘문예를 통해 뽑힌 희곡 작품이 온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현대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다양한 연극적 실험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일간지를 통해 이루어진 신춘문예 제도는 해방과 전쟁을 경험한 새로운 극작가들의 출현을 위한 공간이었을지 모른다. 그중에서도 1955년 신춘문예를 재개하면서 희곡 작품을 꾸준히 뽑은 조선일보의 영향을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러한 1950년대 조선일보의 신춘문예와 희곡 장르의 접점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우선 밝혀야 할 사실은 1950년대 신춘문예와 희곡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양보인과 이해성 정도가 희곡 장르를 중심으로 신춘문예 제도의 의의를 살피고 있는 정도다.¹⁸⁶⁾ 1955년부터 논문이 작성되기 전인 1971년까지 5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작성한 신춘문예 희곡 작품 목록을 바탕으로 주요 작품과 작가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공연 상황을 함께 다루고 있어 신춘문예와 관련된 희곡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연구이기에 개괄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세부적인 의미를 추출하기는 어렵다.

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68~374쪽 참조)

183) 오영미, 『한국전후연극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6, 30쪽.

184) 오영미, 『한국전후연극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6, 30쪽.

185) 신춘문예의 문제점으로는 선발의 공정성 여부, 문단의 권력화, 효용가치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강진호, 「신춘문예라는 제도, 그 전개 양상과 운명」, 『문화예술』 2003년 2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3, 64쪽)

186) 양보인·이해성, 「희곡문학에 있어서의 신춘문예의 의의」, 『한국어문학연구』 12집, 이화여자대학교, 1972.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발판으로 삼아 특정 시기와 특정 일간지, 즉 1950년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신춘문예에 뽑힌 희곡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1950년대 신춘문예라는 제도를 통해 신진극작가를 발굴하는 데 조선일보가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은 이전 시기와 달리 사실주의 연극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대극’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희곡이 창작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1950년대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세상에 나온 희곡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 작품들이 품고 있는 현대극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의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모든 작품을 분석해야 하지만, 실제 신문이나 작가의 희곡집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작품도 간혹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임희재의 <기류지(寄留地)>(1955, 당선), 차범석의 <밀주(密酒)>(1955, 가작), 차범석의 <귀향>(1956, 당선), 김홍훈의 <상청(喪廳)집골목안>(1957, 당선), 홍윤숙의 <원정(園丁)>(1958, 당선), 정조의 <도깨비>(1959, 당선), 김자림의 <돌개바람>(1959, 가작), 이세원의 <초상화>(1960, 가작), 그리고 박현숙의 <사랑을 찾아서>(1960, 가작) 등 총 9편¹⁸⁷⁾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¹⁸⁸⁾

2. 전쟁의 영향과 시대적 고민의 지속

2.1. 여성의 성(性)문제를 통한 삶에 대한 고민

1950년대는 “유난히 육체적인 것에 몰두하던 시대였다.”¹⁸⁹⁾ 이는 전쟁과 미국 문화의 영향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많은 희곡 작품도 육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 서사에 담아내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성(性)을 중심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용연 왜 그라구 있어? 어서 따라가!

은실 (결단성있게) 딸아가라면 못따라갈줄알구?

용연 그렇지! 어서따라가! 따라가! 더러운 것!

은실 (방앗논곳으로 가며) 걱정마세요 따라갈테니까 단연 내 갈길을 가죠.

(두 사람 대결하듯이 서로 상대방을 응시한다. 은실이의 얼굴에는 점점 공포와 전율로 창백해진다. 그러자 용연이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집어 들고 은실이의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은실이 소리도 못지르고 그 자리에 못박힌채 부동(不動)¹⁹⁰⁾

위의 인용은 1955년 당선작 임희재의 희곡 <기류지>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환도 직후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모든 남자들이 은실의 감정을 오해하는 데서 발생한다. 판자집에 사는 일들은 은실이 아픈 남편인 용연을 두고 건강한 정수를 따라 서울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실 은실은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와줬던 정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이지만, 정수와 용연을 비롯한 다른 이들까지 은실이 용연과 부도덕한 관계라고 의심하게 된다. 즉, 전쟁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

187) 가능하며 모든 작품은 『조선일보』에 실린 원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간혹 신문지상에서 작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이후 출판된 작가의 희곡집을 참고하였다.

188) 연구 대상에서 빠진 작품은 최순호의 <홍수>(1957, 가작)와 김포천의 <역구(驛構)>(1958, 가작) 두 작품이다.

189) 김옥란, 「자유부인과 육체의 담론」, 『1950년대 희곡연구』, 새미, 1998, 221쪽.

190) 임희재, <기류지>, 『조선일보』, 1955.1.9. (이후 모든 희곡 작품은 처음에만 세부 서지정보를 밝히고 이후 작가, 작품명, 그리고 인용 쪽수만 표시)

성의 성(性)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은실은 극중 남성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그려지지만, 남성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¹⁹¹⁾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1950년대 조선일보 신춘문에 희곡 작품에 계속 등장한다.

1955년 <기류지>에 이어 가작에 오른 차범석의 <귀향> 또한 여성의 성(性)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 필레네는 전쟁으로 인해 남편 상기를 노무자로 전방에 떠나보낸다. 오랫동안 남편의 연락이 없자 필레네와 어머니 김씨는 상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박주사와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자 한다. 이때 병으로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박주사의 아내 윤씨가 나타나고, 전방에 갔던 상기가 돌아오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귀향>은 남해안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여성의 성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기류지>와 유사하다. 전쟁으로 부부가 헤어지고 남편의 부재중에 필레네가 재가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극중 필레네 또한 오랜 시간 남편이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아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볼 수는 없다.

1957년 당선된 김홍훈의 <상청집골목안>의 경우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쟁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성(性)문제가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위의 작품들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상청집골목안>은 형이 죽은 상황에서 남겨진 봉룡과 그의 형수 정임이 함께 살면서 주위에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웃에 살며 봉룡을 마음에 두고 있던 삭난은 봉룡과 정임이 부도덕한 관계라며 정임의 부친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에 정임의 부친인 추봉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정임을 데리러 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형수와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봉룡은 삭난과 그녀의 아들 둘이를 데리고 서울로 떠난다. 봉룡이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 정임은 “장염감두 사람을 없수이 여기는 거지 대랫님은 그 꼬임에 흡족하겠서요. 성님 대상을 눈앞에 놓구 이나마 집 꼴을 어찌구 뜨시겠따는 요랑이예요.”¹⁹²⁾라고 말하며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한다. 극의 진행으로 보면, 다른 작품에 비해 여성 인물의 고민이나 결단이 강조되지는 않지만, 다른 작품과 같이 여성 인물이 다소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1958년에 당선된 홍윤숙의 <원정>은 앞서의 작품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영희는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친구와 해외로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와 아이들 때문에 결국 떠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특징적인 이유는 영희와 그녀의 친구가 부부의 문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존재적 고민을 하기 때문이다.

여인 그건한낱 감상이야 현실적으로 너의 어머니 너로인해 희생되었고 너는 너의 자식들로 인해 희생되고있어 작식은 마약이야 더구나 맘약한 여자예겐 암처럼 불치의 병이되어왔어 우리들은 이병을 고쳐야해¹⁹³⁾

위의 인용에서 영희의 친구는 여성의 삶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존재적인 고민을 한다. 물론 여인이 극단적인 관점에서 여성과 가정의 문제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고민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결국 남편이 부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 속에서 영희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존재에 대

191) 조서연, 「1950년대 희곡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1~42쪽 참조.

192) 김홍훈, <상청집골목안>, 『조선일보』, 1957.1.16.

193) 홍윤숙, <원정>, 『조선일보』, 1958.1.3.

한 고민까지 나아가게 된다.

1959년 가작에 오른 김자림의 <돌개바람>에서는 자신의 성(性)관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여성이 그려진다. 기숙은 미망인으로 의사인 현묵에게 관심이 있지만, 조모 강씨는 현묵을 집에서 내쫓고자 한다. 조모 강씨와 어머니 박씨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았기에, 강씨는 기숙도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숙과 현묵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각각 창규와 애경의 사랑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던 상황에서 기숙이 적극적으로 현묵에게 자신의 마음 보이며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미망인인 기숙이 적극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설정이 다른 작품의 여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녀는 “사낼 그리워한다는 게 뭐가 못써요? 저저로 솟구쳐 오르는 자연스런 갈구죠. 왜 사내 소리만 나오면 그리 법석들이세요. 마치 섯광이라도 든 것처럼 안타까와들 하시냐 말이예요.”¹⁹⁴⁾라며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치관에 의문을 던진다. 즉, 전쟁으로 남성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적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가작에 오른 이세원의 <초상화>도 전쟁으로 인해 재혼한 여성이 가정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대학교 교수인 경숙은 남편이 북으로 납치되고 혼자 살던 중 동료 교수인 한교수를 만나 재혼하게 된다. 경숙의 아들인 고등학생 기석은 이런 모친의 행동의 불만을 가진다. 언제까지나 둘이서 아버지를 기다리겠다고 했던 어머니의 변심으로 충격으로 받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러나 경숙이 한교수와 재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녀는 기석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외국유학까지”¹⁹⁵⁾ 보내기 위해 재혼을 결심한 것이다. 남편의 생사마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재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정당성을 통해 경숙이 전쟁 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지 알 수 있다.

<초상화>와 함께 1960년 가작에 뽑힌 박현숙의 <사랑을 찾아서>도 한 여성의 사랑으로 문제로 사건이 시작된다. 이 작품은 전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간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애리는 일제강점기 북에서 함께 지내며 결혼을 약속한 민규를 찾아 남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분단 상황에서 민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이에 애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 전쟁이 일어나자 애리는 북에서 내려온 영식을 따라 아픈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월북한 후, 다시 남으로 내려왔다가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애리과 민규 사이의 이별과 오해는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리고 애리는 영식과 결혼하려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간첩으로 이용당하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애리 역시 극중에서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영식이 어쩔 수 없이 애리에게 간첩 활동을 요구하자, 그녀는 “나를 그런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싫어요”¹⁹⁶⁾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

앞서 작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랑이나 부부 관계에 따른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쟁의 영향으로 남성이 실제로 부재하거나 남성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 인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존재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월경>

194) 김자림, <돌개바람>, 『이민선』, 민중서관, 1971, 399쪽.

195) 이세원, <초상화>, 『조선일보』, 1960.1.9.

196) 박현숙, <사랑을 찾아서>, 『그 찬란한 유산』, 범우사, 1986, 95쪽.

의 경우는 여성의 존재적 고민을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다른 작품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기류지>의 은실은 자신을 의심하는 남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행복하구싶잖은 사람이 어디있겠어”라고 말하며 자신이 존재적으로 가지는 고민을 밝힌다. <귀향>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필레네는 박주사와의 재혼 결심을 걱정하지만, 이에 어머니 김씨는 “이러다간 네 신세 망쳐! 너도 인자 한 세상 살아야제…”하며 필레네가 하고 있는 고민을 존재가 가진 욕망으로 답한다. 이러한 여성의 존재적 욕망은 <돌개바람>에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조모인 강씨와 어머니 박씨는 기숙이 계속 혼자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숙은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그녀는 “이건 뭐 사흘 걸레 제사다. 생일이다. 뭐다……. 귀찮아 못 살겠어요.”¹⁹⁷⁾라고 말하며 변화된 여성의 세계인식을 보여준다.

2.2. 근대 가치의 결점과 인간성의 문제

앞서 언급한 작품들이 여성의 성(性)문제를 통해 존재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 작품들도 있다. 이들 작품은 근대적 가치가 가지는 문제점을 통해 인간성의 문제를 함께 다룬다.

차범석의 <밀주>는 한국전쟁 이후 흑산도에 있는 빈촌을 배경으로 한다. 생계마저 어려운 이 마을에 밀주수색원 두 사람이 나타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노동을 이어가기 위해 술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부 …(전략)… 우리들 고기잡이하는 사람에게는 밥보다 더 요긴합니다. 종일 주낙을 던지고 앉았을 때는 춥고 배고파 못 견디다가도 이것 하잔 들어가면 동상이 다 뭐입니까…… 그야 귀한 식량으로 술을 담구는 것이 법에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섬에서는 이것 없이는 못 살어랴. 예……¹⁹⁸⁾

가난한 어부인 석산의 아내는 밀주수색원이 온다는 말을 듣고 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 이때 머느리는 술을 버리자고 하지만,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술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인용한 석산의 대사처럼 마을에서 술은 식량보다 더 요긴하다. 살기 위해 식량이 필요하지만,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술이 필요한 것이다. 즉, <밀주>에서 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유흥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흑산도 마을의 사람들이 술을 담그는 이유는 자신들의 노동을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석산이 “세상에 내것 내가 먹는데 어떤 놈이 지랄해!”¹⁹⁹⁾라고 하며 밀주수색원들의 방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밀주수색원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길상은 아버지 소상(小祥)를 앞두고 모아둔 7만 원을 밀주수색원들에게 주는가 하면, 도순은 마르지도 않은 미역과 기르던 닭을 내놓는다.

밀주수색원의 방문으로 닥친 이러한 마을의 어려움은 국민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석산의 아들 효석이 돌아오면서 해결된다. 효석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인물로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묘사된다. 이러한 효석이 마을에 돌아오던 와중에 밀주 조사를 온 세무서원을 만나면서, 이미 마을에 온 밀주수색원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7) 김자림, <돌개바람>, 402쪽.

198) 차범석, <밀주>, 『조선일보』, 1955.1.26.

199) 차범석, <밀주>, 『조선일보』, 1955.1.26.

정조의 <도깨비>는 학도호국단 간부인 주인공 창달이 혈서를 쓴 후 사건이 시작된다.

민씨 그래, 어디서 그랬다던?

창순 미국 대사관앞에서요. 우리 고등학생부는 잘 몰라 행렬이 한 20리는 족히 되는 걸요. 앞에서 하두 애들이 만나가기에 모두를 쯤이 쭈셔 몸살을 치구 섰는데 글썽 쭈덕쭈덕 들려오는 말이 혈서를 쓰고 있다잖아요- 그게 누가 오빰지 알았어.

민씨 저걸 어찌니- (일어나며) 아니, 그게 무슨 짓이라구 혈서를 다 쓴담. (끝끝댄다)

창순 참, 어머니- 정전을 결사반대한다는 거예요……200)

많은 여학생이 집에 꽃과 선물을 가지고 오자, 어머니 민씨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한다. 이어 등장한 딸 창순은 오빠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휴전을 반대하는 의미로 손가락을 잘라 “<굴욕의 정전 피로써 반대한다>”²⁰¹⁾라는 혈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린다. 창달의 이러한 행동 때문인지 창달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창달의 행동을 격려한다. 그러나 창달은 스스로 정전에 반대했으면서 징집영장이 나오자 태도를 달리한다. 그는 전쟁터에 가지 않기 위해 충청도에 있는 고모댁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 떠난다.

<밀주>는 단순히 가짜밀주수색원의 정체가 탄로 나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효석에 의해 가짜밀주수색원의 정체가 밝혀지고 효석이 이들을 응징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벌이 무대 밖에서 주어진다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갑을 자 잠간 같일이 생겼어! (하며 바빠 도망쳐 나간다. 효석 「저놈 잡아라!」하며 쫓는다. 몇사람 따르고 남은 사람은 돌각담 너머로 시선을 옮긴다)

…(중략)…

군A 앗 효석이가 두 놈을 끌고 물 속으로 막 쓸고 가네… 저 도적놈들 누굴 나오제! 옳지! 꼬라박아라! 한번 더! 옳지! 하나 둘 셋! 헛하…202)

위의 인용에서 보듯, 효석은 두 가짜밀주수색원을 무대 밖에서 응징한다. 관객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무대 위의 장면은 석산이 담배를 피우며 “아가 술 좀 맛있게 걸러라, 효석이 목마르겠다.”²⁰³⁾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결국 이러한 무대 위의 설정은 이 작품이 가짜밀주수색원을 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술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도깨비>도 이와 비슷하다. 정전을 반대한다면 혈서를 쓰던 그가 입대하지 않기 위해 충청도로 떠나는 모습은 한편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풍자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위선적 애국심 그 자체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이중성이었다”²⁰⁴⁾는 사실이다. 즉, 단순히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념을 풍자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이념을 가치화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성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0) 정조, <도깨비>, 『마지막 기수』, 수도문화사, 1965, 66쪽.

201) 정조, <도깨비>, 『마지막 기수』, 수도문화사, 1965, 70쪽.

202) 차범석, <밀주>, 『조선일보』, 1955.1.29.

203) 차범석, <밀주>, 『조선일보』, 1955.1.29.

204) 박명진, 『한국 전후희곡의 담론과 주제 구성』, 월인, 1999, 188쪽.

이처럼 <밀주>와 <도깨비>는 근대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인간성의 문제와 연결하여 보여준다. 범법이라는 기준으로 밀주를 단속하는 상황은 법의 기준에는 예외를 둘 수 없다. 그러나 실상 누군가에게 술은 식량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의 기준을 내세운 가짜밀주수색원의 출현은 근대적 가치에 결점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인간성의 문제를 함께 보여준다. <도깨비> 또한 단순히 분단 상황에서 드러나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근대적 가치의 결점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전을 외치며 혈서를 썼던 창달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한”²⁰⁵⁾다는 아버지의 유훈을 내세워 징집을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이데올로기라는 가치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3. 사실주의 형식과 거리두기의 징후

앞서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 조선일보 신춘문에 희곡 작품은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여성의 성(性)문제를 통한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는 경향을 작품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법이나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근대적 가치가 가진 결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부정적인 인간성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었다. 내용으로 볼 때,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이전과는 다른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이 “부분적인 역할만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아 발언하”²⁰⁶⁾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근대적 가치를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문제와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성의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있기에 시대에 필요한 세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인식이 연극을 통해 쉽게 무대에 올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대부분의 연극은 사실주의 형식에 따라 창작되었다. 양식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주의는 “관찰의 결과인 외부적인 상황과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에서 벗어나는 현실 문제의 본질을 그려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²⁰⁷⁾ 따라서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사실주의 형식 또한 외부적인 상황과 문제를 다루는 데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사실주의 형식을 통한 단순한 외적 재현으로 작가의 세계의식을 드러내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몇몇 작품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상청집골목안>, <원정>, <사랑을 찾아서>를 들 수 있다. <상청집골목안>의 경우는 플롯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시학 이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갈등이 메인 플롯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각각이 서로 다른 층위의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갈등 관계는 봉룡과 정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정임의 봉룡의 형수이기는 하지만, 봉룡은 정임을 어릴 적부터 사랑해왔다. 그러나 봉룡은 정임이 자신의 형수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착난과 서울로 떠난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 서울로 떠나는 장영감과 은주의 갈등도 작품에 등장한다.

205) 정조, <도깨비>, 『마지막 기수』, 수도문화사, 1965, 85쪽.

206) 김옥란, 「자유부인과 육체의 담론」, 『1950년대 희곡연구』, 새미, 1998, 223쪽.

207) 이승현, 「전후(戰後) 사실주의 희곡과 그 균열의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41집, 2013, 97쪽.

경관 장영감 하은주라는 다방 「매담」을 아시지요?

장영감 은주요? 아지 못합니다.

...(중략)...

경관 철로에서 죽사를 했습니다.

장영감 죽었어요? (놀란다)

...(중략)...

경관 아닙니다. 그런건 아닌데 □□의 「핸드·백」 속에 장영감을 원망하는 루의 유서가 있었읍니다.²⁰⁸⁾

기실 장영감과 은주는 부적절한 관계로 은주는 임신한 상황이다. 장영감이 서울로 떠나는 소식을 들은 은주는 임신한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기 위해 장영감을 찾아온다. 그러나 장영감은 오히려 은주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한다. 그는 “난 위선자요 비단 은주에 만 견주운 나의 생활관이 아니오. 험난한 세태에 위선과 기만없이 어찌 배겨 내겠소”²⁰⁹⁾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장영감은 자신의 책임을 대신하기 위해 은주에게 돈을 주지만 은주는 이를 거절한다. 돌아갔던 은주가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만, 장영감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경관에 의해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장영감이 서울로 가면서 봉룡의 서울행을 제안하기에 두 이야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이야기가 봉룡을 중심으로 한 메인 플롯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장영감의 서울행은 봉룡이 정임과 떨어져 서울로 갈 수 있는 결말과 연결된다. 그러나 장영감의 개인적인 문제는 봉룡이나 정임과 같은 주요 인물들의 사건과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결되지 않는다.²¹⁰⁾ 따라서 장영감과 은주의 이야기는 당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다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서사의 구성이 중심 이야기가 없는 탈중심적 구성을 따른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작은 갈등이나 다양한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실을 단일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원정>의 경우는 <상청집골목안>과는 또 다른 방식을 취한다. 우선 이 작품의 배경은 “현대”, “서울 중류정도의 가정”²¹¹⁾으로 설정되어 있다. 집을 묘사하는 무대는 사실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야기의 전제가 될만한 어떠한 설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이 작품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상징적인 대사에 있다.

남 음 옳은 말야 부부는 제각금의 위치를 달리는 두 개의 차바퀴, 아무리 합치려도 안되는거다 아니 합치려면 거기 오히려 무리가 온다. 제가 지닌 각기의 떨어진 위치에서 한 개의 우주를 받들고 각각의 굴러가는 바퀴밑의 길은 다르나 가는 곳은 한곳이다. ...(후략)...²¹²⁾

위의 인용은 <원정>에 등장하는 남편의 대사이다.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며 오입질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 남편 때문에 힘든 아내는 친구와 함께 외국으로 떠나려고 한다.

208) 김홍훈, <상청집골목안>, 『조선일보』, 1957.1.28.

209) 김홍훈, <상청집골목안>, 『조선일보』, 1957.1.17.

210) 만약 장영감이 경찰서로 가고 이로 인해 봉룡이 서울로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두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는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11) 홍윤숙, <원정>, 『조선일보』, 1958.1.3.

212) 홍윤숙, <원정>, 『조선일보』, 1958.1.3.

남편과 아내는 다투면서도 위와 같이 상징적인 대사들을 꺼낸다. 아이들 때문에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포기한 아내는 마지막에 “마약이라도 좋다. 암이라도 할 수 없다. 이 불치 병을 나는 앓으마. 너희들의 태양이 되기 전에 너희들의 원정이 되마”²¹³⁾라고 말한다. 위의 인용처럼 영희의 대사도 매우 상징적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두 사람이 대사를 통해 대립하고 있기에 대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상징적으로 대사를 처리했다는 사실은, 작가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러한 특징은 심사를 맡았던 유치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대사다. 이 대사로서 이 비극의 전모가 설명되는 것이다. 구성은 평범하다. 그러나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점이 진실하여 좋다. 결점을 말한다면 부부불화의 근본원인이 □명되어있지 않은 점이라할까?²¹⁴⁾

위의 인용에서 보듯, 유치진은 심사평에 관해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남편의 대사를 지목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희곡의 구성이 평범하지만, 대사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다른 작품과는 차이를 보인다. 유치진의 말처럼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오히려 존재적인 문제를 따지기에 표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1950년대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중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박현숙의 <사랑을 찾아서>이다.

상징적인 무대로서 도구들도 간단히 꾸며져야 한다. 이것은 현실양상의 일군의 부조화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대 오른쪽은 법정으로 되어 있고 중앙이 민규네 응접실 겸 서재다. 왼쪽은 북한괴뢰의 내무서 내부의 일면을 보여주면 된다.²¹⁵⁾

위의 인용에서 보듯, <사랑을 찾아서>는 작가가 이미 상징적인 무대를 전제하고 있다.²¹⁶⁾ 이러한 무대 설정은 남과 북 그리고 재판장을 급박하게 오고 가는 극중 공간 설정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은 다른 작품들이 제한된 한 공간을 무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 공간을 무대 공간으로 설정할 경우 무대는 사실적으로 꾸밀 수 있다. 그러나 짧은 작품에서 다양한 공간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는 어렵다. 즉, 다양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존과는 다른 사실적인 무대가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신춘문예를 통한 희곡 실험의 대중적 활용 -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논의를 통해 보면, 1950년대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작품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크

213) 홍윤숙, <원정>, 『조선일보』, 1958.1.3.

214) 유치진, 『희곡』, 『조선일보』, 195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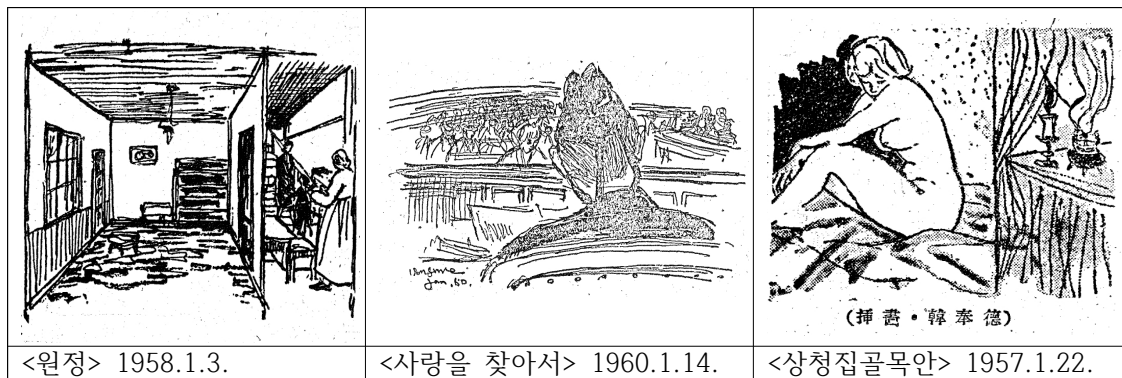
215) 박현숙, <사랑을 찾아서>, 『조선일보』, 1960.1.13.

216) 조선일보에 실린 원작의 무대지시문은 인용과 같이 상징적인 무대에 대한 설명으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희곡집에 실린 무대지시문에는 “연극은 각각 조명에 의하여 진행되게 한다.”(박현숙, <사랑을 찾아서>, 『그 찬란한 유산』, 범우사, 1986, 79쪽.)와 같이 조명 활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공연을 할 경우 상징적인 무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 가치가 가진 결함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성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작품은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부부를 중심으로 한 남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간혹 전쟁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제시되지 않거나 부부가 아닌 관계가 그려진다고 해도, 전후라는 시기와 부부와 유사한 관계가 작품에 전제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남성의 부재는 직접적으로 그려지거나, 남성의 신체나 정신이 훼손된 상태로 부재와 다름없이 남성이 등장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성은 성(性)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여성은 과거의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이어간다.

이처럼 작가의 세계인식이 이전과 변화를 보이면서 그들이 희곡 장르를 통해 표현하는 현실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 <상청집골목안>, <원정>, <사랑을 찾아서>에서 확인했던 형식적 특징은 이전의 사실주의 형식이 주를 이루었던 희곡 작품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하지 않은 플롯의 사용, 상징적인 대사의 처리, 그리고 상징적인 무대의 활동 등의 형식적 변화는 전쟁을 겪으면서 기존 세대와 달라진 신진작가들의 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신춘문예를 통해 등장한 희곡들이 『조선일보』라는 신문 매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문 매체가 신춘문예를 통해 뽑힌 희곡을 독자에게 어떻게 전하자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이 바로 삽화이다. 삽화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독자의 시선을 확보하고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²¹⁷⁾ 따라서 삽화를 통해 『조선일보』가 신춘문예 희곡을 어떻게 보여주고자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²¹⁸⁾ 특히 형식적 실험성이 강했던 작품의 경우 작품의 특성과 신문의 이미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17) 김정화, 「김유정 신문연재소설의 삽화 연구」, 『우리어문연구』 54집, 우리어문학회, 2016, 36쪽 참조.

218) 물론 삽화가 신문매체의 특성이나 성향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삽화가 하나의 예술 분야로 성립할 수 있었던 반면, 과거 삽화가가 예술가라기보다 신문사 직원에 가까웠다는 회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수나, 「해방기 정현웅의 신문소설 삽화」,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0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5, 38쪽) 이러한 회고를 고려한다면, 삽화가가 신문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삽화는 앞서 분석했던 작품 중 사실주의 형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험성이 드러나는 작품들의 삽화이다. 위의 삽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삽화가 희곡을 이미지화하면서 그 실험성은 약화된다. 우선 <원정>의 경우 한 면을 활용하여 한 작품 전체를 싣고 있지만, 삽화는 무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 한 장밖에 없다. 따라서 작품이 가지는 주요 사건의 의미와 대사의 상징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사랑을 찾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첫 화에는 남녀 인물이 각각 1명씩 등장하지만, 남자 인물이 앞에 있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고 다음 화에 실린 인용된 삽화의 경우 법정이라는 공간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희곡 작품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사랑을 찾아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형식적 특징을 삽화가 표현하지 못한다.

<상청집골목안>은 두 작품의 경우보다 더 독자를 의식한 모습을 보인다. 위의 삽화를 통해 보듯, <성청집골목안>의 삽화 중에는 누드화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누드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미 근대 초기부터 신문 삽화로 누드화가 많이 그려지기도 했다.²¹⁹⁾ 따라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도, 누드화 자체가 등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상청집골목안>에서 나체의 여성을 떠올릴 만한 내용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즉, 작품의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는 데도 여성의 누드화를 작품의 이미지로 삽입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접근은 독자를 의식한 삽화의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50년대 당시 신문 및 잡지는 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독자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1950년대가 대중문화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²⁰⁾ 당시 약극이나 상업극과 같은 대중극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당대 문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신춘문예를 통해 여성의 성을 다룬 작품이 주로 뽑히고 삽화를 통해 이를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물론 당시 『조선일보』라는 매체의 의도나 특징을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쩌면 이는 당시 인기를 구가했던 대중문화와 신문 매체의 신춘문예 활용 방식의 접점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신춘문예를 통해 등장한 신진작가들의 실험은 현대극을 향한 과도기적 변화라고 하겠다. 여성의 문제나 근대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와 사실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형식적 변화가 아직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신진극 작가의 희곡 작품을 통해 연극적 실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더불어 여성의 성이 전면으로 배치되면서 기존의 관념들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²¹⁾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민족에 기반한 거대담론이 개인에게 관심을 두는 미시담론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이러한 미시담론의 변화가 근대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문제를 물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에 대한 관심과 세계인식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연극 형식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신진작가들의 실험이 현대극으로 어떻게 나아갔는지는 1960년대 이후 그들의

219) 이수나, 위의 글, 38쪽 참조.

220) 오영미, 『한국전후연극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6, 37-58쪽 참조.

221) 이에 관해서는 김옥란, 「자유부인과 육체의 담론」(『1950년대 희곡연구』, 새미, 1998, 244쪽)을 참고할 것.

작품 활동과 연극 공연의 실상을 파악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춘문예 제도가 향후 현대 극이 성립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고민은 향후 연구의 숙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김자림, <돌개바람>, 『이민선』, 민중서관, 1971.

정조, <도깨비>, 『마지막 기수』, 수도문화사, 1965.

박현수, <사랑을 찾아서>, 『그 찬란한 유산』, 범우사, 1986.

강진호, 「'신춘문예'라는 제도, 그 전개 양상과 운명」, 『문화예술』 2003년 2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3.

김옥란, 「자유부인과 육체의 담론」, 『1950년대 희곡연구』, 새미, 1998.

김정화, 「김유정 신문연재소설의 삽화 연구」, 『우리어문연구』 54집, 우리어문학회, 2016.

양보인·이혜성, 「희곡문학에 있어서의 신춘문예의 의의」, 『한국어문학연구』 12집, 이화여자대학교, 1972.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이수나, 「해방기 정현웅의 신문소설 삽화」,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0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5.

이승현, 「전후(戰後) 사실주의 희곡과 그 균열의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41집, 2013.

조서연, 「1950년대 희곡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조재영, 「신춘문예 제도의 명칭과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시학연구』 47호, 한국사학회, 2016.

민족문학사연구소, 『1950년대 희곡 연구』, 새미, 1998.

박명진, 『한국 전후희곡의 담론과 주체 구성』, 월인, 1999.

오영미, 『한국전후연극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6.

이영석, 『한국 전후연극과 탈재현주의』, 푸른사상, 2017.

STYAN, J. L., 원재길 옮김, 『근대극의 이론과 실제 1』, 문학과비평사, 1988.

「1950년대 신춘문에 희곡과 현대극의 향방」에 대한 토론문

백 소 연 (가톨릭대)

이승현 선생님께서는 1950년대 조선일보의 신춘문을 통해 등단한 희곡 작품을 대상으로 현대극으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하며 그 의의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도 선생님 연구의 의의와 문제의식, 전체적 논지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 역시 이 분야 연구에 과묵한 탓에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과 추가 설명을 듣고 싶었던 대목에 관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1950년대 신춘문에 당선작의 내용적 경향은 이 시기에 나타난 연극계 전반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반적 흐름 가운데에서도 신춘문에 당선작만이 갖는 어떤 특수성이 존재했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차범석, 임희재, 김자림 등, 이후 극작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있어 당선작이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 소설이나 시 등과 달리 희곡은 인쇄, 출판물 등을 통한 출현과 유통의 경로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대화를 전제로 하여 창작되더라도 모든 희곡이 무대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신춘문에 작품의 출현은 연극계에 데뷔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지만 역으로 무대화 되지 않은 작품들이 창작, 발표되는 경로가 공식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950년대에 희곡으로 등단한 작가 중에는 연극계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무대화 되지 않은 작품들을 다수 남긴 작가들도 있으며 이미 활동 중이었던 극작가도 있었습니다. 전체 한국 연극계 안에서 신춘문의 역할과 영향을 과연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선생님께서는 2장 1절에서 “유난히 육체적인 것에 몰두하던 시대”로서의 1950년대의 경향성이 미국문화와 전쟁의 영향이라 보셨습니다. 전쟁이 미친 영향 등은 발표문을 통해 설명되고 있지만 미국문화의 영향과 관련된 부분은 서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각주 9번을 통해 선생님께서는 가능하면 모든 작품은 조선일보에 실린 원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작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된 작가의 희곡집을 참조했다고 하셨습니다. 출간된 희곡집에 수록된 작품과 당선작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원본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5. 선생님께서는 4장에서 대중극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1950년대에 신춘문에 희곡 분야를 신설하고 자극적인 삽화를 곁들인 것은 신문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신춘문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르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대중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희곡 공모 사례만이 보여준 특이점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젠더화된 스펙타클 노동: 고통과 유희의 자기 계발

길 혜 민 (서울시립대)

차례

1. 페미니즘과 주체성의 역설
2. 물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인’과 ‘소외’
3. 스펙타클 노동에 달라붙는 젠더
4. 유희와 자기계발이라는 무임 노동
5.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와 감정노동
6. 페미니즘의 성찰성과 실천에서의 자기 문제화의 과제
7. 나가며

1. 페미니즘과 주체성의 역설

조앤 스콧은 페미니즘의 역사를 다시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올랭프 드 구즈의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주지 않고 오로지 역설만을 던지는 여성”²²²⁾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페미니즘의 역사는 역설과 함께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권리 선언은 남성과 여성에게 자연적 성차를 기준으로 하여 남성에게만 시민권을 주었다. 이후 여성의 참정권 운동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맞서 항변하며 ‘성차’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한편으로는 ‘여성’의 편에서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서 자신이 없애 버리고자 했던 ‘성차’를 생산해내는 역설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앤 스콧이 보기에 “역설은 페미니즘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페미니즘의 역사는 오로지 역설만을 던져 온 여성들의 역사”²²³⁾이다.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 과정에서의 역설은 “근대 서구의 페미니즘이 역사적으로 개인성과 남성성을 동등하게 여겨 온 민주주의 정치의 담론적 실천”²²⁴⁾위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기의 정치 이론에서 추상적 개인에 대한 정의는 얼굴의 생김새, 피부색, 성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떼어 내고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차원에서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을 지운 개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회가 명명하는 여성이 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말”²²⁵⁾해야만 했다.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과정은 이처럼 역설의 논리와 함께했다. 그런데 동시대적 여성 이미지 비평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지의 소유권과 주체성의 논의는 여성의 권리 운동과 같은 역설적 문제에 직면한다. 포스트페미니즘의 논의 속에서 여성의 주체성은 여성의 대상화, 여성성의 물신화 비판과 한 쌍으로 등장한다.²²⁶⁾ 특히 ‘여자 아이돌’

222) 조앤 스콧, 공임순·이화진·최영석 역,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앨피, 2017, 55쪽.

223) 위의 책, 56쪽.

224) 위의 책, 56쪽.

225) 위의 책, 65쪽.

226) 김수아 김세은,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광고와 여성 재현」, 『한국광고홍보학보』19(2), 2017; 조선정,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불만: 영미권 페미니즘 담론에 나타난 세대론과 역사쓰기」, 『한국여성학』30, 2014; 김예란, 「아이돌 공화국: 소녀 산업의 지구화와 소녀 육체의 상업화」, 『젠더와

과 ‘소녀성’에 대한 논의는 ‘걸 파워’ ‘걸임파워먼트’와 같은 독법을 동반하고, 시각화의 대상이자 상품으로 등장한 여성(성)은 물신화의 대상인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생산자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런 이미지화는 “동시에 자기 규율적이고, 현대의 로맨스 산업이 요구하는 섹시함의 규범에 맞추어진 것이며, 따라서 이성애적 중심 사회의 여성에 대한 규범의 상품화와 관련된다는 복합성”²²⁷⁾이 존재한다. 여성 이미지를 비평하는 관점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가부장제 남성중심주의적 시각 비판에서부터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주체인 여성의 자기 계발 경영술의 담론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할리우드의 스크린에 반짝이는 상품으로 등장하는 여성의 물신화는 살아있는 여성을 상품으로 만들고 신비화한다는 이유로 1970년대 로라 멀비를 비롯한 영미 페미니즘 이론가의 비판을 받아왔다.²²⁸⁾ 여성의 물신화에 대한 비판은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이돌 산업에서 여자 아이들이 “남성의 성적 욕망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이자 “남성의 쾌락을 위해 헌신하는 노예의 몸”²²⁹⁾으로 불거리화 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진다. 이를테면 ‘여자 아이돌’ 되기는 남성들의 판타지를 반영하고 균질화된 몸에 도달하면서 과도한 노동과 인내를 요구한다. “이때 여성의 몸은 개성을 담지한 각각의 몸이 아니라 가부장제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요구하는 대상화, 상품화된 몸”²³⁰⁾이 되며, “소녀는 여성으로서 자기에 대한 배려의 기술을 배워야 하지만 스스로를 타인과 타인의 욕구 그리고 욕망과 관련해서 정의하도록 강제당하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소외된”²³¹⁾다고 비판받는다. 더 나아가 자율성을 가진 자아를 전제한 자기 계발의 담론에서 소녀 아이들의 적극적인 ‘상품’ 되기는 신체 훈련을 거쳐 상품화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감정 노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야 한다.

로라 멀비는 「클로즈업과 상품(CLOSE-UPS AND COMMODITIES)」에서 클로즈업이라는 영상 기술의 발견과 함께 미국의 검열 정책 속에서의 여성의 성적 욕망과 실천은 억제되는 동시에 수동화되고, 대상화되는 여성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1950년대의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를 덧붙인다. 화면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빛나는 스펙타클로서의 마릴린 먼로는 대표적인 금발 백인 여성의 물신이다. 또한 인종의 이미지이다. 이처럼 마릴린 먼로는 자신을 백치 여성 이미지라는 표면성을 담아내는 카메라 앞에서기 위해서 철저히 그들이 원하는 금발 백인 여성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신만의 화장술을 갖고 있기도 했다.²³²⁾ 그녀는 신비롭게 반짝이는 입술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을 통해 더 욕망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다. 마릴린 먼로는 물신화된 금발이면서 동시에 그 이미지를 만들어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이돌의 실천은 이미지 위에 전치되고 응축되어 성적으로 물신화하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정

사회』, 동녘, 2014.

227) 김수아, 김세은, 위의 글, 140쪽.

228) 그리피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스타 릴리안 기시를 클로즈업으로 화면에 담았고, 이후 장 릉 고다르와 히치콕도 여성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신비화하거나 화면 가득한 주목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Laura Mulvey, 「Close-ups and Commodities」, 『FETISHISM AND CURIOSITY』, INDIANA UNIVERSITY, 1996)

229) 김은하, 「소녀란 무엇인가」, 『소녀들: K-pop 스크린 광장』, 여이연, 2017, 40쪽.

230) 위의 책, 41쪽.

231) 같은 책, 43쪽.

232) 《라이프(Life)》지와 인터뷰에서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참 문제예요. 섹스 심볼은 물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물건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의 심볼이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섹스의 심볼이 되는 게 낫겠어요”(Laura Mulvey, ibid, p.48)

동 속에서 자신을 경영하는 주체성의 존재로 읽어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스펙타클화 된 상품인 동시에 자신을 상품으로 만드는 주체라는 역설적인 상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거리를 만드는 젠더화된 스펙타클 노동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젠더화된 스펙타클 노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의 스펙타클 노동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이미지 노동과 여자 아이돌 노동의 비물질적 노동을 통해 그들 자신을 물신화된 상품으로 만들지만 정작 그것의 가치로부터 소외된 주체로 만드는 통치성을 밝히기로 한다.

2. 물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인’과 ‘소외’

로라 멀비는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물신 개념에 등장하는 페티시적 대상(물신)이 되어버린 대상이 기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의 장에서, 마르크스는 사회적인 것의 차원에서 가치의 상징적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부인’이나 ‘소외’를 거침으로 해서 물신이 만들어짐을 밝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정이 다소 달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루는 이유는 두 이론 모두 “가치의 상징적 체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거부나 장애, 혹은 정신의 공포증적 불능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²³³⁾가 있기 때문이다.

로라 멀비의 글이 작성된 90년대에는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었고 이때의 걸프전이라는 전세계적인 스펙타클로서의 상흔은 기호가 되어 세계를 떠돌고 난 뒤였다. 걸프전의 폭력과 전쟁의 이미지는 “극심한 인간의 고통이라는 반박 불가능한 현실”의 구체성을 숨기며 기호로 남았다. 당대는 이미 소비문화와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복제될 수 있는 이미지가 득세하고 있었고 이는 물신화에 의해 기호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실재’를 부인하고 그것을 대신하며 나타났다. 스펙타클의 사회는 원이미지를 넘어서는 이미지가 복제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다. 그럼에도 모더니즘 이론의 대표격인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이론은 적절한 분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더욱 득세하여 무차별하게 상품을 복제할 수 있게 된 자본주의의 상품은 곧 이미지이자 스펙타클이기 때문에 그것이 출현하고 교환되는 장소는 기존의 지정학적 성격을 이미 넘어섰다. 멀비는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프로이트의 ‘부인’과 마르크스의 ‘소외’ 과정은 사물의 과잉-가치화를 만들어내며, 이 과잉-가치화는 사물의 미적 의미적 차원(aesthetic and semiotic of thing)위로 흘러가며 이들을 변용”시킨다고 한다. 이 변용이라는 사물의 과잉-가치화가 만들어지는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이트의 ‘부인’과 마르크스의 ‘소외’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상품이 생산자의 노동력에서 나오지만 상품에는 노동자의 노동력의 몫이 남아 있지 않음에 따라 ‘소외’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소외는 상품이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에 의해 교환될 때, 그것이 화폐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한에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상품 그 자체에 투여된 노동자의 노동은 교환 과정 속에서 교환되는 화폐에 의해서만 나타날 뿐이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도 상품으로의 도약이 노동자의 노동성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매끈하게 상품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공장의 땀과 기계제 대량 생산,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의 착취라는 모든 지표성의 흔적을 지워”내는 소외과정이 성공함에 따라 가치는 역설적으로 매겨진다. 이 과정이 상품의 물신화이다. 이는 화폐(기호)라는 현상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지식을 부인하는 완벽한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상품 물신은 불거리가 되어 교환가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열중인 상품”이 된다.²³⁴⁾ 사용가치가 사라진 불거

233) Laura Mulvey, *ibid*, p.2.

리 상품은 로라 멀비의 말처럼 “노동자의 노동력이 자신의 생산물에 자신을 가치로서 날인하는 데에 실패하는 기이한 입법과정에 의해 생산자나 생산 과정에 대한 모든 지표적 흔적은 씻겨나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과 소외의 발견은 차후 스펙타클 이미지를 생산한 노동자의 고통이 젠더화된 스펙타클 이미지로 나타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소외를 통해 생산과정과 노동성은 감춰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페티시즘은 국내에 번역된 「절편음란증」²³⁵⁾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페티시가 생겨나는 과정은 어린 남자아이가 자신의 신체에 있는 성기가 어머니나 여성에게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남자아이는 (애초에 있지 않았으나 상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이 가지지 않은 페니스를 대체할 대상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페티시의 대상이 된다. 소년은 분명 여성이 페니스를 가지지 않음을 알게 되지만 그 ‘부재’를 부인하는 과정을 감추기 위해서 대체적인 ‘기호’를 찾아 자신이 가지게 된 거세 불안을 잠재우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실한 대상을 애도하고자 하는 흔적을 갖고자 한다. 이렇게 성차를 부인하는 페티시적 사물은 “역사적 사건을 개인의 연대기와 합리적 기억 바깥으로 고정시키고 동결시킨다”라고 로라 멀비는 말한다. 그런데 영화를 통해 환등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는 ‘부인’의 과정과 유사하다.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어야만 영화의 관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미지라는 환등상의 등장은 이처럼 ‘부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며, 이는 소비 자본주의 속에서 원본보다 더 믿게 하고 ‘실재’로 작동하는 스펙타클이다.

로라 멀비가 분석한 ‘소외’와 ‘부인’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상품의 물신성은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얻은 성찰이다. 이는 기호와 지시체 사이의 간극을 개념화하면서 이미지는 자신이 지시하는 것과의 닮음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따라서 이미지의 의미는 불안정하며 지시는 지시체와 닮지 않는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내세우는 ‘지시에 대한 거부’를 받아들이면서 기호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화폐라는 기호가 상품의 가치로 전치되었던 것이 자본주의의 물신화라는 개념을 통한 마르크스의 발견이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실재보다는 ‘이미지’의 복제를 통해, 화폐와 같은 기호 그 자체의 복제가 ‘실재’를 대신하는 포스트모던의 사회는 스펙타클의 사회이다.

상품, 전시적 가치인 이미지로서의 물신은 이제 다시 도약하여 이미지 그 자체만으로 온 세계를 떠다니는 스펙타클이 되었다. 이미지의 백화점이라고 했던 영화, 그리고 그 환등상인 스펙타클로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는 ‘부인’의 구조에 의해 작동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펙타클로 나타난 여성이미지의 물신은 앞서 정신분석학적으로 규명한 것처럼 ‘정신적 고통의 장소’이다. ‘부인’이라는 과정을 숨기면서 여성의 이미지로 등장한 것이다. 그렇기에 사실 이미지는 “정신적 고통의 장소를 징후적으로 알리는 붉은 깃발처럼 자신의 고유한 트라우마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펙타클이라는 이미지가 과거에는 노동력을 비가시화하며 나타났

234) 벤야민이 아케이드에서 발견한 불거리는 교환도 되지 않고 순전히 재현적 가치로 등장하는 상품이다. “벤야민의 출발점은 역사경험의 철학이지 경제적 자본 분석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도시 환등상 문제를 푸는 열쇠는 시장-안-상품이 아니라 진열-중-상품이었다. 진열중인 상품에서는 교환가치 역시 사용가치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의미를 상실하며, 순수한 재현적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다. 섹스에서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욕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변형될 수 있었으며, 진열-중-물신인 상품은 사적 소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균중을 매료했다.”(수잔 벅 모스, 김정아 역,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016, 115쪽~116쪽.)

235)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절편음란증」,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319~326쪽.

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에서는 폭력과 전쟁이 만들어 낸 고통의 자국을 지우는 자리이면서 그것을 은폐하는 이미지로 발견되었다. 로라 멀비는 “볼거리(스펙타클)는 오늘날 자본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체계 속에서 급격히 확산된다. 그와 동시에 전쟁, 기아, 빈곤, 질병, 인종주의 등의 형태를 띤(인간 사유의 비합리적인 부분이라는 끈덕지게 지속되는 징후가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은 동시대 이론이 못 본 척 할 수 없는 긴급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볼거리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부인’되는 고통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볼거리라는 스펙타클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스펙타클 노동에 달라붙는 젠더

마르크스는 19세기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상황을 바라보며 상품이 생산되면서 상품의 잉여 가치로부터 노동자가 ‘소외’되는 현상을 알아차렸다. 한편 20세기의 기 드보르가 바라봤을 때,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마르크스가 말했던 ‘소외’는 더 차원을 달리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자가 생산하는 스펙타클이라는 상품은 “독립적인 지배력”을 가지며 “박탈의 과잉”으로 심화되어 되돌아오게 된다.²³⁶⁾ 따라서 스펙타클은 소외의 실질적 생산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시성의 형식과 파급력을 강조하는 듯 보이는 ‘스펙타클’이라는 상품은 “고도로 축적되어 이미지가 된 자본”이다.²³⁷⁾ 스펙타클로 불리는 상품이 된 이미지는 가장 감각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감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상품의 규격에 맞는 것만이 거래될 수 있다. 그런데 스펙타클로서 상품 물신에 달라붙은 아름다움이라는 체제는 ‘성별적’으로 물신화된 기호로 유통되어왔다.

‘물신숭배’의 작용 과정에는 육체적 아름다움의 영역이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움-물신은 얼굴과 육체에 관한 절대적인 ‘계율’로 현상한다. 육체와 얼굴의 과시에서 드러나는 교환가치/기호가 일반화되어 아름다움이라는 물신으로 교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약호화된 기호가 교환되면서 그 물신성은 생산과 재생산을 반복한다. 이제 상품이 기호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운’매혹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 매혹하는 상품이라는 “기호들은 육체를 긴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멋부리기 작업에 따라 육체의 실제적 활동 과정이 더 이상 하나도 비쳐보이지 않는 완벽한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²³⁸⁾ 존재한다. 그리하여 ‘스타’는 변쩍거리는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이자 기호로 등장한다. 상품화된 인간으로써 “스타의 조건은 가상적 경험의 특화 - 깊이 없는 가상적 삶과 동일시 되는 대상 - 이다” 따라서 스타는 자신의 스펙타클 노동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을 구현”²³⁹⁾해야 한다.

스펙타클 노동이 젠더화 되어 여성 ‘스타’의 ‘아름다움’으로 달라붙는 현상에 대한 비판은 여성 이미지를 어떻게 읽어내는가에 대한 비평에 개입한다. 앞서 언급했던 여성 아이돌의 이미지의 읽기는 포스트페미니즘 담론 등장에 따라 대상화에 대한 비판과 자기 계발적 주체의 자율성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게 되었다. 여성 스타나 아이돌의 경우, 성적 대상화 된 이미지로 읽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임파워먼트’의 이미지로 의미화 되더라도 그 특유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광고에서 젠더화된 스펙타클 노동의 결과물인 이미

236)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32~33쪽

237) 기 드보르, 위의 책, 34쪽.

238) 장 보드리야르, 앞의 책, 97쪽.

239) 기 드보르, 앞의 책, 2018, 56-57쪽.

지 가치의 소유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는 대중문화산업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문제제기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상업 광고에 데이터로 축적하여 이용된다. 테라노바에 따르면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의 유희성은 “무임 노동(Free Labor)”이 된다.²⁴⁰⁾ 그는 “무료 노동”이 제공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가치가 창조된다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이미지를 전시하는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자기 재현은 디지털 산업의 데이터로 이용되어 자신의 소유를 벗어나고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 이미지를 만들고 피드에 올리고 공유하는 디지털화의 과정에 대한 가치는 소셜미디어 내에서 교환되고 유통되지만 소유권의 배타적 권한은 창작자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 플랫폼의 비물질적 유희성은 동시에 “무임 노동”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4. 유희와 자기계발이라는 무임 노동

김애라는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소녀들의 디지털 노동을 분석하고 유희, 관계 맺기, 인정의 놀이를 통해 SNS활동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또래들과 네트워크하는 과정이 “무임 노동”화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녀의 논문은 10대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올린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페북스타’로 유명세를 얻게 되면 소셜네트워크의 인맥과 이미지를 이용하는 마케팅 산업에 캐스팅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업체로부터 의류나 화장품 등의 상품을 제공받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약간의 수고비를 받고 상품을 자신의 계정에서 업로드하게 되면 그들 자신의 인맥 형성의 장이자 자기 유희의 디지털 활동의 개인적 수단은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가진 마케팅의 통로가 된다. ‘페북스타’나 ‘얼짱’등 소셜네트워크에서의 유명인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방식은 그들의 유명세가 상업 광고에 이용되지만 마케팅 수익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비물질노동 특히 여성성을 강조한 ‘셀카 기술’이나 ‘보정력’과 같은 그들의 놀이의 기술은 “무임 노동”으로 상품을 이미지화하는 데에 사용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의 마케팅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건 이성애적 규범성 속에서 ‘여성성’이나 ‘소녀성’의 상품이 재현하는 소비문화·이성애 섹슈얼리티·성형·웃입기 등의 실천이다. 수시로 일거수일투족을 피드로 올리고 공유하는 유희의 과정이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와 소비문화의 실천을 강화하며 이들을 성별화된 소비문화의 잠재적 소비자로 포섭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상품과 문화는 참고 정보가 되면서 상품과 이미지 소비가 촉진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선별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자신의 사진 이미지를 올려 소셜네트워크의 또래 집단에서 지지를 받고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은 자신의 이미지를 선망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자신만의 테크놀로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유희는 자기 계발의 연장선이 된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 선망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 개인의 특별하고 고유한 개성에 근거하기보다는 당대의 ‘여성(성)’의 기준에 기댄 것이다. 따라서 푸코가 지적했듯이 “주체가 스스로의 실천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해도, 개인이 스스로 이런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속한 문화 속에서 발견한 양식이며, 그의 문화, 그의 사회,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들이 그에게 제의하고 부과한 양식들”²⁴¹⁾이라는 자기 계발의 담론 속에서 이루어지는

240) Tiziana Terranova, 「Free Labor: Producing Culture for the Digital Economy」 Duke University Press, 2000.

것이다. 김예란은 여성성과 이성애적 섹슈얼리티를 이용한 여자 아이돌 산업과 같은 ‘소녀 산업’을 “위태롭고 불안한 삶의 구조 안에 처한 젊은 여성들의 감정적인 노동을 촉진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 논리를 통해 더욱 발전”²⁴²⁾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탈근대 사회에서 스펙타클이라는 자본은 공통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물질적인 것을 만든다. 비물질노동인 여성 승무원의 노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엘리 러셀 흑실드는 ‘친절’을 생산하는 비물질노동의 뒤에 숨은 감정노동을 분석한다. 이미지라는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주체성을 새롭게 조직할 수밖에 없는데, 승무원의 경우 항공사의 유니폼, 헤어스타일 규범, 서비스매뉴얼 등을 늘 예측 불가능한 고객에 맞춰 만족,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 그로인해서 얻는 고객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 항공사가 판매하려는 서비스와 이미지에 맞춰 승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주체성은 승무원 개인의 주체성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승무원은 자신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회사의 규범이 요구하는 ‘감정법칙’에 따라 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정법칙은 성별, 연령, 인종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한다. 비물질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어떤 정동이라고 할 때, 이 노동에 요구되는 감정법칙은 차별적으로 발휘된다. 흑실드는 자신의 연구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주목한다.²⁴³⁾ 이는 젠더에 따라 요구되는 감정 노동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물질노동의 시대에 감정노동은 부불노동이자 여성들의 매력으로 취급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노동의 생산물로 기능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노동의 특성이란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에 기댄 것으로 ‘감정노동’과 같은 테크놀로지가 강조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논의 했듯이 스펙타클 노동은 이미지라는 상품이 되면서 신체·태도·이미지를 만들어 낸 노동 과정은 지워진다. 이를테면 모델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무대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대 바깥에서부터 준비해야만 한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들은 스테이지 위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승무원의 노동, 아이돌의 노동, 소셜네트워크에 이미지를 올리는 여성의 이미지 노동과 마찬가지로 이때 상품으로 등장하는 모델은 자신의 노동이 이미지로 등장하는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모델이 되려면 이들은 무대 바깥에서도 모델에게 요구되는 환상을 만드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신체에 대한 계발 규칙과 감정은 상품이 되는 장면의 바깥에서부터 요구된다. 누군가에게 이미지 상품이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무대 위의 존재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통치하는 자기계발의 기술과 조절 능력을 유지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여자 아이돌은 긴 시간 동안 연습생을 거치고 데뷔를 하게 된다. 데뷔한 여자 아이돌의 이미지는 페티시적 신체로 분할되고 소비된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아이돌 무대 직캠은 신체의 일부분만 클로즈업해서 편집이 되고 이는 전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이미지가 된다. 이는 아이돌이 생산한 생산품이면서도 그것은 그들로부터 소외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체 이미지에 대한 착취, 페티시적인 대상으로 강조가 되는 현상은 수년간 반복해서 재생산되어 왔다. 자신의 이미지 노동이 성애화되어 편집되고 이미지가 착취되는 상황에서 마저

241) 미셸 푸코,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아에의 배려」,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133쪽.

242) 김예란, 앞의 글, 409-410쪽.

243) 엘리 러셀 흑실드, 이가람 역, 『감정노동』, 이매진, 2010, 211쪽.

도 아이들은 이미지와 정동을 만들어내는 상품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노동자이자 상품으로써 자신의 노동이 만들어 낸 가치로부터 소외되고, 주체성을 가진 개인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게다가 아이돌을 생산하는 엔터테인먼트사의 시스템은 규율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유대 관계로부터도 소외된다. 예술문화 종사자가 되려는 이들의 꿈은 철저한 관리 시스템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소외시키고 개인을 지우는 감정노동을 요구받는다.

5.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와 감정노동

마르크스는 경제학철학수고에서 소외를 4가지의 형태로 나타낸다.²⁴⁴⁾ ①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소외/ ②노동의 활동에서 소외/ ③유적 존재로부터의 인간의 소외/ ④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로 나타난다. 앞에서 잠시 다뤘다시피 여자 아이돌의 노동은 비물질노동으로써 스펙타클과 정동을 생산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가진 이미지 상품에서 유래한다. 이들은 특별히 성애화된 상품으로 등장하고 이들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가치로부터 소외된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아이돌의 스펙타클 노동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 소외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낸 노동 활동에서부터 소외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의 활동에서 소외”는 자신이 노동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처음엔 사람들이 절 알아준 계기라 마냥 신기하고 신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같은 모습만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같은 것만요. 한동안 딜레마였어요. 왜 계속 크롭티만 입으라고 하지? 다른 것도 해보고 싶는데...물론 그것도 제 모습이지만, 저한테 다른 모습도 많거든요.

제가 바꾸려 해도, 대중 분들이 사랑해주는 모습이니까. 그 고정된 이미지라는 게, 내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할까요? 그게 나인 것 같아요. 대중이 판단하는 모습이 진짜 같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남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판단해주니까 스스로의 생각을 놓치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 해도, 다르게 가기란 어렵고요.

제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어요. 데뷔 초에는 신체 일부분만 집요하게 확대한 ‘움짤’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도 그런 일들이 불합리하고 불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뀌어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록 그런 일을 겪었지만, 앞으로 활동할 친구들을 위해서.²⁴⁵⁾

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자 아이돌의 경우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집요하게 클로즈업해서 이미지로 복제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때 발생하는 이미지의 소유권과 통제의 문제는 “대중 분들이 사랑해주는 모습”,

244) 칼 마르크스, 김태경 역, 『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 실천, 1990, 54~68쪽.

245) “설현의 결심”, <GQ KOREA> (2018.12.24.)

<http://www.gqkorea.co.kr/2018/12/24/%EC%84%A4%ED%98%84%EC%9D%98-%EA%B2%B0%EC%8B%AC/>

“고정된 이미지”의 문제보다 부차적이게 된다. 자신의 노동에서 착취되어 나타나는 소외를 바꿔나가기엔 노동자의 노동성과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산업의 생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거리로써 존재하는 노동자인 아이돌이나 승무원은 모두 이러한 노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정노동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그것이 이 노동이 전제된 조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시스템에서 통제성을 가질 수 없는 노동자들은 시스템을 대신하여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통제하기를 요구받는다. 그것이 프로페셔널한 노동자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인터뷰어에서 “지금도 그들도 그런 일들이 불합리하고 불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라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실에 대하여 성찰성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는 시스템을 멈추는 데에 발휘될 수 없으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자의 통제력으로 발휘되어야 버틸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의 인맥을 통해 상품 광고와 인터넷 쇼핑물 모델이 되는 1020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마치 자신이 오래 사용한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피드를 올리게 되면 상품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상품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계정의 댓글이나 인격 평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위에서 다룬 사례들에서는 임금을 받은 노동 이외에도 평판과 같은 감정노동을 통제하는 정동적인 노력이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정 조절의 책임은 스스로 감내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

6. 페미니즘의 성찰성과 실천에서의 자기 문제화의 과제

2015-6년도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 속에서 나타난 1020의 새로운 페미니즘의 주체들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수동적이고 가부장제적 질서를 재현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요구되어 오던 여성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과정 속에서 여성 아이돌이 자신을 스스로 성애화하는 이미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요구하는 아이돌 시장에 대한 비판과 성찰 속에서 여성의 능력을 가시화하는 이미지로의 도약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시장과 문화 현상 속에서는 ‘임파워먼트’한 여성의 이미지, 전문가 여성, 리더 여성을 재현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의 문화 운동이 나타났다. 세대적인 특성을 띠는 실천적 ‘포스트페미니즘’은 주로 1020 세대의 여성들이 두각을 보였다. 즉 집단적으로는 해화역 시위, 스쿨미투 등의 운동이 일어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SNS상으로 ‘탈코르셋’운동에 참여하고 서로를 향한 공감과 해시태그 메시지가 활성화되었다.

‘탈코르셋’ 운동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탈코르셋 해시태그 운동이나 ‘갯레디워드미’와 같은 방식의 디지털 이미지 운동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²⁴⁶⁾ ‘탈코르셋’ 운동은 “디지털미디어와 신자유주의, 포스트페미니즘적 에토스가 태동한 이후의 개인/여성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뷰티유튜버이자 그 팬이며 패션뷰티 시장의 급부상한 신흥소비자”이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성운동의 정치적 주체²⁴⁷⁾들에 의해 추동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탈코르셋’운동에 참여하지만, 집단화하는 경향 보다는 네트워크의 인맥으로 연결되어 디지털경제의 주목과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대적 운동의 성격을 가진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면서 해방 운동 방식이 된 ‘탈코르셋’

246) 김애라, 「‘탈코르셋’, 갯레디워드미(#getreadywithme):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35(3), 2019; 김남이, 「탈코르셋: 담론의 전쟁터인 여성의 몸」, 『여/성이론』41, 2019.

247) 김애라, 앞의 논문, 2019, 47쪽.

을 설명하는 언어는 ‘꾸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성적 대상화로부터의 해방 운동 공식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꾸밈 노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에 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는 문제이므로 이로 인해 여성은 경쟁력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꾸밈 노동’을 거부하게 된다는 논리로 주장된다. 성적 대상화와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여성성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함께 ‘꾸밈 노동’을 멈추고 ‘디폴트’인 모습이 되고자 하는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답이 도출되는데, 이러한 선언에는 자기 자신의 경쟁력과 자기 계발의 서사가 동원되며 페미니즘 운동은 개인의 차원에서 꾸밈을 멈추고 평등한 경쟁을 위한 인적 자원이 되겠다는 뜻이 된다.

여성의 신체에는 권력의 통제와 규율의 역사가 새겨졌다는 비판과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해방의 실천의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 선언이 ‘자기 계발 서사’로 표현된다면 이 운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복장 변경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과소 해석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탈코’를 인증하는 것은 페미니즘 운동이 일탈적인 볼거리로 소비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양성에 근거한 여성의 모습이 ‘디폴트’운동으로 남성의 이미지에 가깝게 나타나면서 이성애 중심주의의 성애화된 이미지는 와해되기는커녕 확고한 젠더 이미지로 남을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처럼 여성의 ‘해방’과 ‘혁명’에의 주장이 신자유주의 속의 이미지노동과 자기계발의 서사로 수행된다면, 그 안의 노동성은 ‘무임 노동’과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생성하는 궤도를 벗어나기 어려워지게 된다.

신자유주의 안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의 성찰성은 자기 계발의 서사로 소비되고 인적자원화의 개인적 계기로 소박하게 남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시에 이미지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페미니즘 운동으로부터 도출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성찰성은 과연 남성성에 기대지 않은 여성의 스펙타클을 만들고 여성 해방의 운동에 매개시킬 수 있는가의 의문도 남긴다. 여성의 노동으로 만든 이미지의 가치와 통제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신자유주의적 자기 계발의 통치성의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은 페미니즘 이미지 읽기와 비평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성찰성과 실천이 오로지 개인적 차원에서 수렴하는 한 피해와 소외는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게 만드는 계토화와 피해자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나가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미지를 비평하기 위하여 이미지가 어떠한 담론적 역설에 놓여졌는가를 살피고자 했다. 여성의 이미지가 젠더화된 스펙타클인 상품이지만 동시에 이미지를 만들어 낸 주체인 여성의 노동성을 동시에 어떻게 가시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페미니즘의 역사 속에서 그 자신의 역설을 가지고도 여성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해방의 실천을 현재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다뤄보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19세기의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화 소외에 대한 논의, 프로이트의 부인을 통한 물신화를 살피고 여기에 20세기의 스펙타클의 사회에서의 상품이 어떻게 젠더화될 수 있는가를 설명했다. 동시대적 현상인 1020 여성의 디지털 이미지 노동, 여자 아이돌의 젠더화된 스펙타클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와 주체성에 대한 논의에는 곤란이 따른다. 자신의 유희를 위한 테크놀로지가 감정노동을 동반하며 그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황, 노동자이자 자기 이미지의 창작자인 아이돌이 자신의 이미지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표현’과 ‘유희’가 ‘소외’가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감정노동과 무임노동을 정당화하는 자기 계발의 담론이 득세한 배경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자기 계발의 서사와 이미지 노동에 대한 입장이 포스트페미니즘의 언어 속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탈코르셋’이라는 여성의 몸에 대한 해방 실천의 방향이 ‘자기 계발’의 선언으로 발견된다면 결국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 서사로 페미니즘의 실천과 비평이 남는 한계를 마주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젠더화된 스펙타클 노동: 고통과 유희의 자기 계발」에 대한 토론문

김민지 (한기대)

토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정토론자 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길혜민 선생님(이하 필자)께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표문에 대한 저의 궁금증과 상념을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 필자의 글을 통해서 페미니즘이 아직도 담론적 역설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소비를 이끄는 주체로 명명되고, 여성을 자신들의 욕망 충족의 대상과 자본주의에 따른 불거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탈코르셋’ 운동으로 맞서고자 했지만 이러한 선언이 ‘자기 계발 서사’(10)로 표현되면서 남성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탈코’ 운동이 오히려 남성 이미지와 가깝게 되는 역설적 상황과 한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필자의 글을 읽으면서 “실천의 운동으로서 페미니즘 선언이 ‘자기 계발 서사’로 표현”될 때 확고한 젠더 이미지로 남는다는 점에서 물음이 생겼습니다. 마치 페미니즘 운동이 자연스럽게 노동으로 치부되면서 현실 뒤에 숨겨진 “자아-감시”²⁴⁸⁾라는 강력한 권력 장치는 묵인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여성들의 ‘탈코르셋’ 운동은 남성의 이미지를 모방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의 인증과 확산으로 인한 젠더 이미지로의 회귀가 오로지 ‘자기 계발 서사’의 한계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매체를 통해서 변질되고, 진정한 의미의 ‘탈코르셋’의 의미를 단순히 남성의 이미지로 옮겨가며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는 권력의 문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강력한 권력 작용에 의해 페미니즘 운동이 일탈적인 불거리로 소비되고, 마케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방이라는 단어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들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페미니즘은 실제로 젠더의 ‘혐오’로 이어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2차 소외와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필자는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의 역사는 오로지 역설만을 던져온 여성들의 역사”(1)라고 보고, 사회가 명명하는 여성됨은 역설을 안고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엄격한 통제 아래 “길들여진 몸”(푸코)과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로 들어주신 ‘여자 아이돌’은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남성의 욕망에 부합하는 이미지에 맞춰야 하는 불상사를 겪어야 합니다. 결국 자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찌면 역설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이 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인식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 규제 혹은 욕망을 다스릴 권력 구조의 재생산이 먼저일까요? 페미니즘의 역설 원인과 역설을 무화할 수단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미덕”(9)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통제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여성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통제하기 위해 정동적인 노력으로

248) 산드라 바트키, 서정신 역, 「푸코, 여성성, 그리고 가부장적 권력의 근대화」, 『한국여성철학회』, 1997, 10쪽.

스스로 감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느낀 것은 지배적인 메커니즘 아래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정동적 합리화’가 작동된다고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필자께서도 “페미니즘 운동으로부터 도출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성찰성은 과연 남성성에 기대지 않은 여성의 스펙터클을 만들고 여성 해방 운동에 매개시킬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셨듯, 저 또한 자기 성찰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은 권력과 사회적 길들임으로 인한 ‘정동적 합리화’로 여성의 심리적 열등감을 영속화 시킨다고 봅니다.